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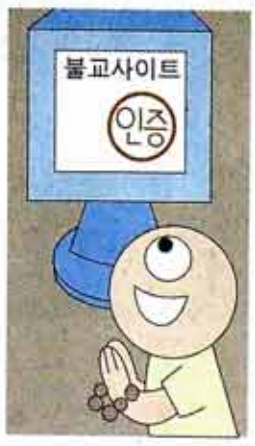
불전하다 전을이요
최초하다 그 모습이나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네
-화엄스님-

#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임종대광

다트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7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278 호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영어권 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사이트 중에는 '달마링(Dharma Ring)'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접속 횟수가 말해주듯, 이 사이트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가상공간에 개설된 불교 관련 사이트 중에서 300여 개의 우수한 사이트를 선정, 연결해주는 '인증마크제'가 그것이다.

###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인터넷에는 수 만 개의 불교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있어 불자 네티즌들은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한번쯤 의심하지 않은 불자 네티즌은 없다.

'달마링'은 이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게,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청색 리본'을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사이트의 생명은 네티즌의 손가락에 달렸다. 클릭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이트의 수명이 길고 짧아질 수 있다. '달마링'의 청색 리본이 사이트의 고삐를 조이고, 양질의 정보를 업그레이드(경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인증마크제 실시
### 우수사이트 양산

그러나 달마링은 영문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만 '청색 리본'을 발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불교 사이트의 정보를 평가해줄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선 없다. 국내 불교계에는 '달마링'의 역할을 맡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불자 네티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야후' 심마니' 등 검색 사이트의 색인서비스에 의존할 뿐이다. 국내 불교 사이트의 정보에 대해 정확성·시기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제도가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이와 관련, 교계 인터넷 전문가는 "이 제도는 교계 정보화의 양(量) 뿐만 아니라 질(質)까지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종단과 신문 등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마크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전자신도카드 전국 확산

## 보광사 등 8개 사찰 사용
## 봉은사·능인선원 등 준비중

전자신도카드 사용이 전국사찰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자신도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은 8곳에 이른다. 서울 수유동 보광사(주지 정인)가 교계 처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5천여명의 신도들에게 전자신도카드를 보급하여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중이다. 강남 봉은사 능인선원에서도 전자신도카드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전국사찰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들에게 성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발급하는 전자신도카드에는 신도의 주소, 가족, 연락처, 각종 법회의 참석 유무, 기도비 납부 현황 등이 입력돼 있다. 카드만 긁으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 또 사찰, 신행단체, 법회 참석, 연령·직업·지역별 신도분포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자신도카드 사용에 따라 종무소에서는 신도들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문서 등의 수기작업이 없어졌다. 또 신도들의 신행내역과 활동사항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도교육체계와 포교활동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신도들도 지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신행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예전처럼 종무소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의 신행참가 내역을 문의하고 접수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보광사 신도 이옥자씨(서울 강북구 수유 4동)는 "언제라도 카드만 넣으면 내가 참여한 신행내용과 보시금



◇전자신도카드 사용이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보광사를 찾은 한신도가 전자신도카드로 신행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내역을 알 수 있고 또 접수 후 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받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효율성과 빠름,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자칫 사찰이 지닌 '쉼표'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공원제도개선 공청회 열자"
### 조계종, 정부 등에 제안

국립공원 제도개선위(공원제도개선위) 구성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이달 말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일께 관련 공청회를 열 기로 했다.

황찬익 기획실 기획과장은 5일 "공청회를 통해 공원제도개선위 구성 일정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전공 교수와 환경부,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국가공원청 신설 등의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39조에 입장료 징수 조항이 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 도심사찰에 교통유발부담금

## 내년부터…건물 연면적 300평 이상 해당

내년부터 도심지역 사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찰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각종 종교시설과 정당, 학교용 시설물, 국공립공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 연면적 300평(1000㎡) 이상의 사찰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10부제나 단체버스 등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산정방법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350원)을 곱한 수에 건교부가 산출한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곱한 것이다.

그러나 주거시설은 면적 합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찰 요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중심지역이 외곽지역에 비해 유발계수가 높아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사찰에 적용될 교통유발계수는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 예로 사찰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규정에 명시돼 있는 관람집회시설(유발계수 4)로 산정해 계산하면, 총무원과 교육원 대법당 등 1900여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 1년에 880여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7대 광역도시와 수원 성남 의정부 등 인구 30만 이상의 12개 시다. 그러나 춘천 천안 군산 경주 등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하의 13개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났을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 외의 사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조계종 '환경위원회' 구성
### 정책입안·분쟁해결 방안 등 수립

조계종의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환경위원회가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구성된다.

사회부는 종단환경정책 마련, 환경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사찰의 친환경적 불사지침(불사계획 표본) 및 운용계획 마련·적용 등을 위해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위원회는 종단집행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분쟁사찰 주지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찰정책분과'와 '환경환경분과'로 구성되며, △개별사찰 환경분쟁에 종단적 대처 △종단환경정책 마련 △환경교육 계획 수립·실시 △사찰의 친환경적 불사지침 마련·적용 △사찰의 친환경적 운영계획 마련·적용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 및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사회부는 13일 종단중진을 초청,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일정, 활동 내용 등을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문화부, 종교인 초청
### 남북교류 자문회의

문화관광부는 14일 불교 등 7대 종교 대북교류 관계자를 초청, 남북종교교류 자문회의를 연다.

문광부는 이날 모임에서 남북종교교류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에서는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밝은 신심을 갈라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동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발: 20일 오전 10시 조계사 / 도착: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마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대한불교예술원
■단집·탁자 법당내부 시공·수리 전문
■목탱화·영단·대웅전·단청·탱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끝키퍼는 공격의 시작이자 골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때문에 직관능력과 안정성에서 최고의
신뢰를 가진 포지션으로 불립니다
변화무쌍한 세계주식시장에서 국제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주가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안정성을 갖춘기업 포스코.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증권가에서 우리 한국경제의 수문장으로
포스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차돈심 포스코.
늘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 임무를 지켜가겠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

#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차질

## 불추위 활동중단…주관단체 재선정등 시일 촉박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합의해놓고서도 준비는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는 지난 3월 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이 북경에서 만나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가을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종단협의회는 토론회의 남측 주관단체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주최는 종단협의회에서 하겠다고 조불련에 알렸다.

그러나 불교추진위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토론회 개최 합의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주관단체를 선정해 경비,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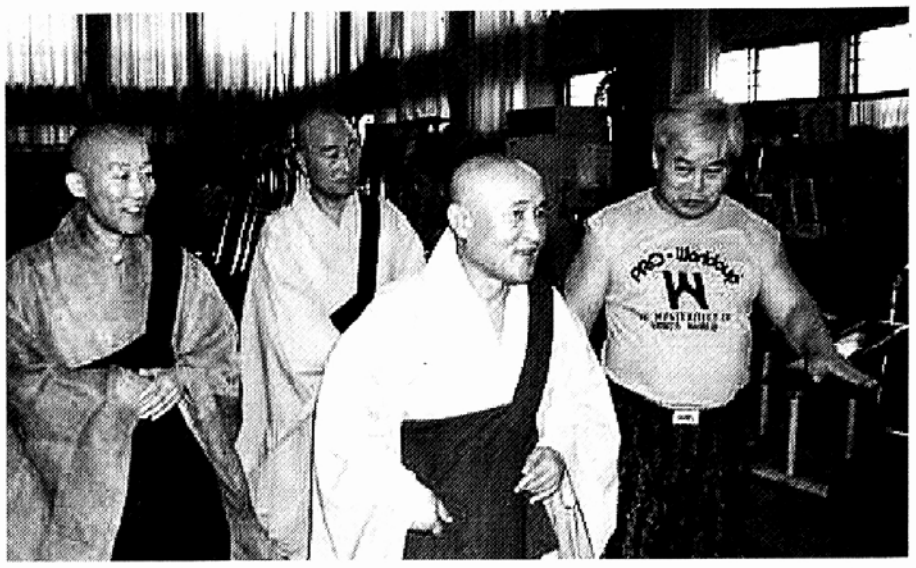
종단협의회는 이달 중 방북하는 진각종 대표단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파악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남측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진각종 대표단에 북측과의 논의를 맡겨두고 있는 상태다. 종단협의회는 3월 이후 한 차례도 통일토론회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8.15 남북동시법회도 현안으로 다가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8.15 남북동시법회는 지난 해 처음 조계사와 보현사에서 열려 공동발원문과 남북불교 대표의 인사말을 교환했다. 올해 8.15 동시법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의 교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단별로는 8.15 남북동시법회 개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 종단의 교류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종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종단협의회 내의 남북불교교류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각 종단 대북교류 주무부서장이 참여토록 돼있는 남북불교교류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민족화합불교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종단과 단체별로 대북교류를 하되 중복 사업,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종단협의회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종단협의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정대스님, 올림픽대표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태릉선수촌을 방문,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대스님은 장창선 선수촌장의 영접을 받고 귀빈실에서 선수촌 현황과 올림픽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장 선수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성준 체력훈련 지도위원의 안내로 체력훈련장인 월계관을 둘러보고 "목표한 성과를 거둬 국민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이천만 물자들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8월말 태릉선수촌에서 불자선수 환송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정대스님의 이날 태릉선수촌 격려 방문에는 교육원장 일면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일철스님, 사서실장 성국스님이 동행했다. 정성운 기자

# 불교계-환경단체 합심

#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 '국민행동' 28일 발족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불련 등 불교단체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농심마니, 세민재단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가칭)'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을 오는 28일 결성해 국민적인 댐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7일 느티나무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4~1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지리산 살리기 문화축제(8월 5일 예정)를 개최하는 한편 8월 발표예정인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조사단의 1차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이 지리산댐 반대운동에 잇달아 가세함에 따라 불교계가 주도해 온 지리산 살리기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 태고종 '남북교류위' 구성

## 북한불교연구·포교기금조성등 추진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5일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남북불교교류를 전담할 '한국불교 태고종 남북불교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남북교류추진위')'의 설치를 결의했다. 남북교류추진위는 북한불교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남북통일에 일정 역할담당을 자임하며 △남북불교문화교류 △북한동포지원 △북한불교연구 △북한포교기금 조성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된다.

태고종은 지난달 북한불교계에 제안한 바 있는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 영산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는 것을 비롯 불화와 단청기술 지원, 전통사찰복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과 비료, 생필품 지원사업을 승계, 북한동포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 또한 북한불교계와 공동으로 정통법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모금된 2천여만원의 통일기금을 토대로 북한포교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교류추진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 19개 교구종무원에 지방위원회를 두게된다. 태고종은 현재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이경숙 기자

# 종교계 사형제 폐지운동 확산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확산되고있다.〈관련기사 3면〉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위원장 진관스님)는 4일 발표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선언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존중한다는 가르침을 온 몸으로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불자들은 사형제 폐지운동을 통해 '살생중죄 금일참회'의 생명존중 사상을 전국민과 함께 날마다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는 "아무리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해도 이는 또 다른 살인을 하는 행위"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존중의 참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지원·한상범)는 이와 관련 '감옥에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전원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편 종교계의 사형제 폐지운동에는 불교사형제 폐지운동본부를 비롯하여 기독교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고침** 277호 2면 '조계종 문화부장에 혜자스님 임명' 기사 중 문화국장 항명스님은 사회국장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문화국장은 범해스님입니다.

## 현대만평 박구원




방치하다간…

# 동국대 교수 임용 내정설 등 '구설수'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 불교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3일 모집 마감한 불교대 교수 임용분야는 유식학·한국불교사(서울), 인도선사상·중국선사상(경주) 등 4 분야. 이중 '유식학' 분야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인도선사상' 분야 지원자격을 '유과유식' 전공자로 한정해 이미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대 결원 분야는 유식학과 한국불교사를 비롯해 최근 타계한 故 김인덕 교수의 전공분야인 중관학 등 총 3개 분야. 그러나 지난 97년 유식학 공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공채에도 불구하고 매번 채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97년 이후 불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원칙보다는 재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이에 따라 재단과 교수들의 반목도 심했다.

이번 공채에서 유식학 분야의 지원자가 없는 것도, 이 분야 전공자들이 '재단에서 이미 낙점을 찍은 스님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지원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불교사(서울)와 인도선사상(경주) 부문의 교수 임용 역시 '실세의 내정설'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국대 내 '불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국대 한 교수는 "교수 임용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교수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학교가 불교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 서울광역신도회 9월2일 창립

서울 광역신도회가 9월 2일 창립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일 조계사회의실에서 영화사등 3개사찰 신도단체 대표와 지하철 법우회등 3개 신행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역신도회 창립준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일 여타 사찰 신도회및 신행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회의를 갖고 회칙 초안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43개 사찰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16개 신도회와 단체가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날 참석한 신도회및 단체는 6곳에 불과했다.〈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 조계종 87개 선원 1685명 정진

조계종 87개 전국선원에 정진하고 있는 선방납자는 1,68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선원수좌회가 1일 발표한 이 같은 수치는 선방 안거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선방 방내 안거대중은 83년 739명이던 것이 87년 동안거부터 1천명을 넘기 시작해 93년 하안거 1094명, 94년 동안거 1143명, 95년 동안거 1218명, 96년 하안거 1289명, 97년 하안거 1389명, 98년 동안거 1536명, 99년 1640명등이다. 또 이번 결제중에는 갑사, 개심사, 서운암, 성륜사, 신흥사, 용화사등 6개 사찰이 비구선원을 새로 개원, 선원 숫자도 87개로 가장 많다. 선원은 1983년 35개이던 것이 98년 69개, 99년 77개, 올해 87곳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김원우 기자

## "동국학원 정관 재개정 요청"

조계종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소위원장 영담스님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국학원 정관 재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임원 선임방법' 개정하며 '법정기일 내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단서를 단 것은 종회 추천절차상의 물리적 시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담스님은 또 "종립학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으나 동국학원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종립학교관리위 전체 회의를 10일 이후 열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동국학원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임(이사, 감사),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을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망입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14, 21, 28 8/4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통,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원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 출 발 일 :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새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10명이상 수시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 목어

### 치열한 삶의 계절

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돈다. 곡식이 제대로 익으려면 여름이 여름답기도 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 또한 문제다. 땡볕도 문제, 가뭄도 문제인 것은 마치 자유와 고독의 양자택일처럼 선택의 고민을 불러온다.

바람직한 것은 이를테면 중도라 할 것이다. 이상기온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분도 중도를 잃는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짜증이 더욱 잦아진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회문제도 좀 덜 발생했으면 싶다.

한약분쟁에 이은 의약분쟁으로 전국에 의료대란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더니만, 이번에는 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집단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존권과 이권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간세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치열한 것이 인간세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동물이나 곤충과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화해의 시대니,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자니 하는 말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길임을 사람들이 깨닫곤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도 잠깐, 자신의 이기심을 잠시 접거나 쉬는 일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처럼 싫어한다.

부처님은 이를 중생들의 생래적인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다. 서로의 이익만을 다투다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다 결국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단견의 중생들은 서슴지 않는다고 말이다.

뜨거운 한여름처럼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도 자기를 직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색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는 부채가 그늘같은 여유가 아쉬워진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생명,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

## 불교계 사형제 폐지운동 '의의'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발족시킨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위원장 진관스님)가 4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선언문'을 발표하는등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늦었지만, 사형제 폐지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사상적인 근거를 정리한 것은 생명존중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형제 폐지국가 우세

부처님께서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친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던 앙굴리 말라를 진심으로 참회시켜 제자로 받아들였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으나 3역죄(逆罪)를 짓고 무간지옥에 떨어진 제바달다에게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내려주신 것도 진심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한 살인자를 제도하신 인간존중사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살생중죄 금일참회'의 생명존중사상을 교리적 배경으로 지닌 불교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사형을 반대하는 것은 불법(佛法) 실현의 관점에서 응당 주장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말 여야 의원 70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듯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운동을 펼쳐왔던 종교계와 시민단체측은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법의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반대측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사형제 폐지운동이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했던 89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79개국이었고 유지 국가는 101개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러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폐지국이 106개국, 유지국이 89개국으로 그 수가 역전됐다.

### 정부 법제화 촉구 여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인류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당기간 후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검토'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사형을 자제하는 식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다 상당기간을 거친 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형폐지 입법화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특별히 제도화는 안했지만 사실상 사형집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묵시적으로 동의(천주교인인 만큼)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불교 등 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은 정부의 사형제 폐지 법제화에 힘을 실어주는 일로서 종교적 명분과 사회운동의 성과도 담보할 수 있는 사안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늦었지만 종단 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돼 불교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주지스님 OK없이 조직결성 제대로 될까

## 서울광역신도회 창립간담회 '썰렁'

조계종 광역신도회 구성이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다. 4일 서울광역신도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에 사찰신도회 3곳, 신도단체 3곳만이 참석했다.

각 도의 대표도시에 지역신도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신도법에 따라 중앙신도회는 서울지역 신도회 구성에 나섰다. 서울 지역 43개 신도회와 신도단체에 참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16개 단체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막상 창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는 6개 단체만 나왔다. 결국 준비위원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은 다음 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중앙신도회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신도회 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3차례 사찰과 신도단체에 직접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찰신도회의 자립 기반 미약에 화살을 돌렸다.

중앙신도회 한 관계자는 "참가하지 못한 대부분 사찰신도회의 경우 주지스님에게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는 얘기들을 들었다"며 "주지스님들이 신도회 운영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힘있는 전국 신도조직 결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스님에 의해 사찰신도회가 좌지우지 되다보니 폐쇄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전체대중의 대표가 되지 못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이다.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신도회가 해당사찰 주지스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이는 것은 물론 연락도 안되는 실정부터 해결돼야 신도조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일 서울지역 광역신도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6개 단체만 참석해 신도법에 따른 조직구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신비 영역 벗어나 일상성 회복해야

2000년 기획
## 禪과 21세기

### ⑲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대안 (2)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필자는 한국 선불교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성은 불성의 보편성만큼이나 선에 대한 정보가 보편화되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는 지적이고 이성적 종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도의 교리나 이론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놀랄 만치 얕고 좁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를 경시하는 선불교의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가풍에서는 교학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 까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극단이란 언제나 편협하고 위태로운 것이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했던가. 간혹 문자 속만 뒤지는 구두선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도 된장은 담아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수행과 교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선종사를 보면 일류 지식인들이 일거에 깨친 예가 너무 많다. 무식한 사람이 사량분별이 쉬는 무심의 경지에 더 쉽게 이른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혜능이 과연 무식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가 '무식했기 때문에' 견성하기 쉬웠다고 볼 수는 없다. 무식한 사람이 망상이 더 적은 것은 결코 아니며, 그 반대라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오히려 왜 사량분별을 쉬어야 하며, 어떻게 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침에 이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목적지와 거기에 이르는 도정에 관한 정확한 지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과 같다.

선을 대중화하자는 것은 시민 선방을 많이 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순간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선은 체험인 동시에 체험에 이르는 길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선의 방법론, 또는 선수행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론은 선이 신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일상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행론은 '어떻게', '왜' 간화를 해야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포함해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선수행에 앞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몸과 마음의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심신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수행론은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의 교학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실천수행의 성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가 아무리 자상해도 어떤 이유에서든 몸소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선이 과연 모든 대중들에게 적합한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답은 다소 부정적이다. 출가 수행자들은 몰라도 가정과 직장을 가진 생활인에게는 불리한 수행일 수가 있다. 그것은 회두 참구와 일상적인 삶이 양립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화두가 성성한 가운데에서도 일상적인 모든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화두 삼매에 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도 경지에 이르기까지 일상인에게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상승법을 위해 '사소한' 일상사는 접어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모든 삶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도 부정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니 부득불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보편적 수행이라면 염불이나 주력을 들 수 있다. 물론 경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도 수행이요, 절을 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다. 간화선 주창자들은 여타 수행법이 죄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야말로 입증되지 않은 교조적 신념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화선 이외의 수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행법들이 안고 있는 문제 역시 간화선의 경우와 같다. 즉 체계적인 수행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한갓 기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티벳불교나 남방 불교의 장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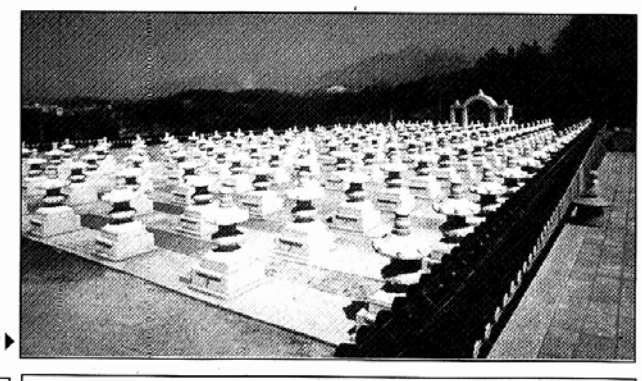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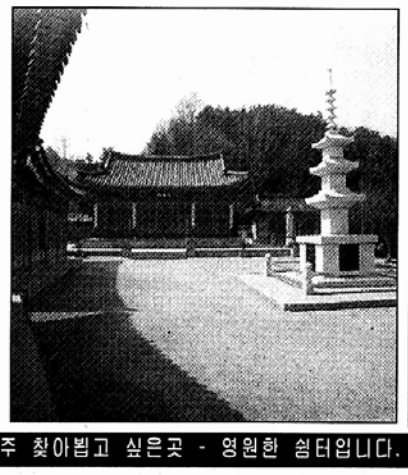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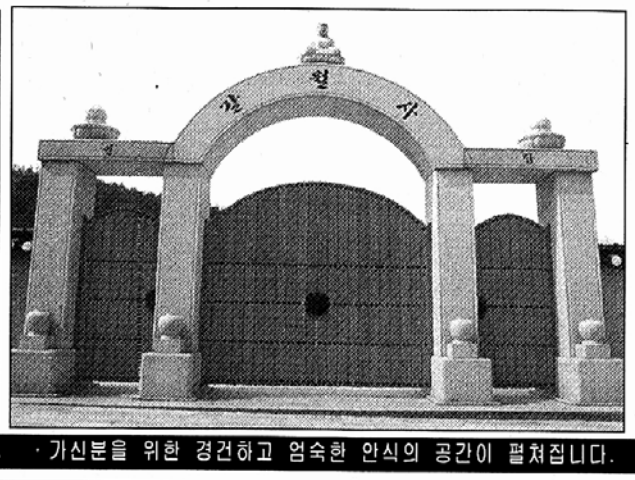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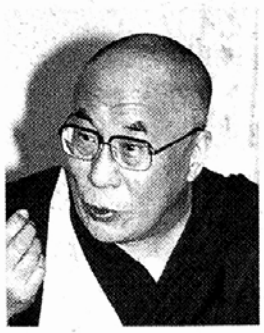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물질보다 정신서 행복찾자"

## 달라이 라마 워싱턴몰서 대중 법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2일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하면서, "인간들이 물질적인 부의 추구에 탐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2일 미국 워싱턴시내 워싱턴 몰(Mall)에서 1만5천여 청중들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보인 급속한 성장은 정신적인 만족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 부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석 반지를 낄 수 있지만 손가락은 오직 열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티베트에도 생중계된 법문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워싱턴만 해도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분화현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행과 범죄를 초래하는 경제적 불균등은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대해서는 대화와 합의가 갈등과 억압을 극복할 것이라고 완곡하게 언급했다. 그는 "이웃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웃 국가를 자기 국가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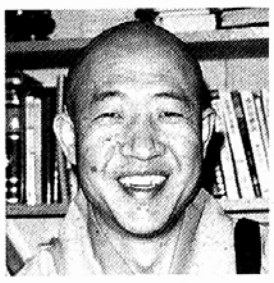
"많은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며 정신적 행복을 강조한 달라이 라마의 법문에 사상 최장기 경제호황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속 마음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 하며, 신선한 경책으로 받아들였다.

이같은 강연은 6월23~7월4일 열린 티베트 행진 및 티베트 민속축제 기간중에 잡힌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 일정 속에 포함된 것으로, 그는 6월 20일 워싱턴에서 첫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청소년업무 문화부 흡수 안될 말"

## 청소년 통합기구 촉구 성명 선일 스님



"청소년 정책의 보호 육성을 전담할 청소년 통합 정책기구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흡수하려는 것은 명백한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지난달 7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선일 스님(청소련 인천지부장)은 문화관광부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6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10명도 안되는 인원이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청소년 문제의 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선일 스님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화부의 흡수통합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달 내로 한나라당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문화부 통합을 위한 '여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결과를 지켜 본 뒤 문화부의 흡수 통합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인 음란물과 컴퓨터 오락 게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청소년보호법과 문광부의 시행 규정 법률이 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청소년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스님은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발원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노래하면, 삼독소멸 절로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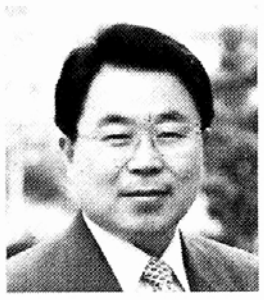
## 강남포교원 아버지합창단 이한수 단장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아껴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는 불자들이 있다. 그것도 합창단하면 떠오르게 마련인 한복저고리 차림의 어머니들이 아니라 양복 입은 아버지들이 나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포교원 거사모임인 유마회 아버지합창단이 바로 그들이다.

"기회가 닿는다면 자비음악회를 꼭 열고 싶습니다."

아버지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이한수 씨는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스스로 감흥을 느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며 "일반인에게도 이 감흥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버지합창단이 생긴 건 지난해 5월. 타종교에 비해 대중적 음악활동을 통한 포교가 미약함을 안타까워하던 이 씨가 주축이 돼



16명의 아버지들이 뜻을 모았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15명의 회원들과 합창 연습에 구슬땀을 흘린다. 올가을 개원 기념법회를 위해서다. "노래도 우리에겐 하나의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멀리하고 진선미를 생활화하는데 노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일주문

### 해군 2함대 해운사 방문



정각 군불교진흥회 회장(법륜종 총정)은 16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법당 해운사를 방문해 법문한다. 법회 후에는 함정 시승과 평택 인근의 수도암, 심은사를 참배할 계획이다.

### 군승단 수련회에 1천만원 기탁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은 4일 김갑영 군승단 사무총장(수방사 법사) 등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울릉도 하계수련회(11일부터 13일까지)와 관련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마니칸 붐이야기' 출판회



혜정 진각종 종학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 총인원 내 종학연구실에서 영인본 〈마니칸 붐 이야기〉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니칸 붐 이야기〉는 육자진언에 관한 티베트 국내외의 저작들을 총집대성한 경전이다.

### 성북사암연 새회장 취임



정수 내원사 주지는 6일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승불교의 정신을 살려 보살행에 앞장서는 사암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북동포돕기 성금 1천만원



정우 서울 구룡사 주지는 최근 1년동안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은 1천만원을 북한동포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 판문점 남북대치상황 둘러봐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5일 판문점을 다녀왔다.

### 울산불교교육원 졸업식



목산 울산불교교육원 이사장은 6월 29일 교육원 4층 강당에서 울산불교교육원 제16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 BBS 교리강좌 회향법회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은 3일 부산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BBS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끝마치며 청취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무심스님 초청 강연

황인렬 통도사 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장은 2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무심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선과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심산스님, 김정도 부산불교거사림회장을 비롯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 길상사 거사림회 2돌법회



강원호 길상사 거사림회 회장은 6월 28일 대웅전에서 창립 2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소식지 〈보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 연등회 한화갑 고문 천불사 방문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겸 연등회 고문 한화갑의원과 이사 조성준 의원은 1일 양산 천불사(주지 도봉) 화엄 정기법회에 참석하여 철야기도중인 1천5백여명의 신도들에게 동서화합에 불자들의 기여가 컸음을 감사하는 인사를 했다. 이날 법회에는 가주천 부산불교대학 부학장, 정대근 민주당 양산시 지구당위원장, 성흥룡 도의원, 박일배 시의원, 박수택 웅상읍장 등 지역인사들도 참석했다.

윤행생 울산지사장



# 일산 여래사 만불전 본존불 점안

일산 신도시 정발산 자락에 자리잡은 통도사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주지 정우)가 2일 대법당인 만불전의 본존불 점안법요식을 시작으로 신도시 포교에 나섰다. 여래사는 이날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본존불 점안식을 봉행한 뒤에 일본 정행사 불교 아악단 초청공연을 비롯해 승무 등 특별공연을 펼쳐 참석한 3000여 사부대중의 갈채를 받았다.



# 서울 마포경찰서 경승실 수덕사 순례

서울 마포경찰서 경승실은 6월 27일 마포경찰서불교회와 포교사단의 후원으로 독립기념관 방문과 수덕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는 청해 경승실장과 김진홍 정순모 차정삼 경찰포교사를 비롯해 모범경찰관, 불교회원 부부 등 사부대중 62명이 참석했다.



# 휴렛팩커드 동국대에 영상장비 기증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4일 한국휴렛팩커드(HP)사 최준근 사장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영상제작 장비를 기증받았다. 이는 HP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첨단 장비를 기증하는 'Grant Program'에 따른 것.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학은 스텐포드대, 하버드대, MIT대, 동경대, 케이오대, 북경대 등이며, 국내는 포항대와 서울대 뿐이다.



# 석불선양회 서산·홍성 돌부처 답사

야외에 방치돼 있는 석불을 찾아 예불공양을 올리는 한국석불선양회가 2일 서산과 홍성으로 제5회 석불친견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선양회 회원 40명은 먼저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을 친견하고 그 앞에서 다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이어 홍성 용봉사로 가 용봉사 명문 마애석불(충남 유형문화재 제116호)과 마애미륵불(보물 355호)에 예불공양을 올렸다.


#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과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 "외국인 불교알리기 감 잡았어요"

## 관광가이드 20여명 통도사 연수



◇관광가이드들이 예불, 참선, 발우공양등 불교체험에 앞서 5일 통도사에서 '한국불교문화의 특색'이란 주제로 강의를 받고있다.

### 조석예불·참선·발우공양 체험
### 불교문화재 바른 지식도 습득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요즘, 지난 5일 양산 통도사에서 20여명의 관광가이드들이 저녁예불을 드리고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소개하며 한국불교를 설명하던 그들이지만 법요집을 손에 들고 절을 하는 모습은 웬지 어색하다. 자신의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불교의 단편지식을 습득했던 이들에겐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관광가이드 연수를 통해 올바른 불교지식을 배우고 불교를 가슴으로 느껴보고 싶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3회 째인 관광가이드 연수는 조계종 포교원이 가이드들에게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단기연수로 그동안 114명의 가이드들이 참석했다.

가이드 경력 14년째인 정순영(49)씨는 조석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 짧게나마 스님생활을 하며 불교를 체험했다. 처음에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아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깊은 내면세계를 조금씩 알게되어 좋았다.

작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는 불교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프로그램이 짜여졌다.

사찰 조형물에 대한 강의시간. 참석자들은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바라본다. 강사의 설명에 사찰 당우는 물론 불상, 탑, 탱화 등 불교문화재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가이드들의 얼굴에는 한국문화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너무 몰랐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올바로 알려야겠다고 저마다 다짐한다.

연수는 다음날인 6일까지 이어졌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의 안내로 서운암, 안양암, 자장암 등 통도사의 암자를 참배했다. 암자에 들어서면서 반배를 하고 법당에 들러 삼배를 하는 모습에서 전날 저녁 예불 드릴 때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다.

연수를 통해 종교가 없는 가이드들은 자연스레 불자가 된다. 조계종 포교원도 더 많은 관광가이드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가이드 기본교육에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관광가이드 직능불자회를 만들어 불교의 이미지 향상과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 규 오
〈강원도청 사무관〉

어렵고 힘들었던 IMF의 긴 터널도 서서히 온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새 희망과 꿈을 가져다 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천년을 뛰어넘은 큰 발걸음으로 나서는 우리 앞에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천년에 맞는 넓은 사고와 큰 비전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세기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물질적 관리시대라면 21세기는 개성화, 다양화,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보화시대로 생활관, 가치관까지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공직사회는 2단계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조기 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가장 안정된 평생직장으로 공인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임하루하루를 익히면서 끝없는 복습 시간으로 나는 단순반복이 아닌 초발심의 자세로 매일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청의 중견관리자로서 공직생활을 하는 나의 아침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이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원이 성취되어 본인과 그 가정은 물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또한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잘못된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한다.

## "이웃 소원 모두 이뤄졌으면"

한 선배 공직자도 있었지만 금년은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에 이르는 동료들이 정년을 앞당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기 퇴직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떠난 뒤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들이다.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 동기나 친구들이 하나 둘 퇴직을 서둘러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아 나 자신도 앞날을 위해 마음에 준비를 해 본다.

나는 10년 전부터 매일같이 새벽 5시면 봉의산을 등반하여 업무와 관련해 심신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 일과를 구상해 왔다.

1시간여 동안 삼림욕과 운동으로 몸을 풀고 돌아와 봉의산 자락에 위치한 봉현선원이나 집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기도와 삼귀의 독경, 기도발원, 사홍서원의 순서에 따라 아침예불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기도 시간이면 나는 공직생활을 통해 젖어온 타성적인 생활습관에 고달픈 어제의 일들을 한순간 잊어버린다.

신앙 생활 중 이 아침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또 다른 하루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런 회향의 정신으로 나는 직장의 상사나 부하를 대할 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인을 접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업무를 추진한 결과, 금년 2월 경제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얻어진 공덕이라 나는 믿는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면서 기업인과 도민을 위한 보시행을 내 나름대로 펼치고 있다.

나의 삶에 있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일이 참으로 고맙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면서 밝게 열어갈 내일을 위하여 업을 쌓아가고 있다.

그 공덕으로 마음이 정화될 때 선업만을 차곡차곡 쌓아 새로운 업의 씨앗을 뿌리면서 지혜광명과 자비로운 미소가 온누리에 펼쳐지는 삶이 되도록 가꾸어 갈 것이다.

## 탐방 대한중석 석불회

# 3000배 정진…"수련 강도높게"



◇석불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98년8월 남산 성지순례도중 한자리에 모여 촬짝 웃고있다.

### IMF로 인원줄어 회원 50명
### 회지발간등 재도약 준비

탱크의 철갑판이나 굴삭기등에 사용되는 텅스텐을 취급하는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石佛會, 회장 임갑수)는 7월23일 청도 죽림사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갖는다. 텅스텐 만큼 강도 높은 정진을 통해 신심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침체기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직능 신행단체와는 달리 석불회는 흔들리지 않는 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기는 석불회도 마찬가지. 지난 98년 8월 회사가 이스라엘의 다국적기업 ISCAR에 합병되면서 많은 회원이 직장을 떠나야했고 총 회원수가 5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올2월 정기총회에서 임갑수씨가 제6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보발간을 비롯해 5월에는 해인사성지순례, 6월에는 팔공산 파계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왕성한 활동만큼이나 회원들의 신심도 강해져 3천배 정진을 통해 석불회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임회장과 함께 석불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무국장 김형중씨(35). 그는 그동안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모임과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대구지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젠 석불회를 위해 열심히 3천배를 할 생각이다.

임회장은 "불자라면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참선을 비롯한 수행중심의 신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 우리 모임여선

### 승만부인회 관촉사 순례

승만부인회(회장 심경숙)는 4일 논산지역에 위치한 관촉사와 쌍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는 18명의 회원이 동참해 신심을 다졌다. 올 1월 22일 창립한 승만부인회는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부부모임으로 그동안 매달 셋째주 화요일 2시 월계동 기원사에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가지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 유니텔 부처님 나라 수계법회

유니텔 불교동우회 부처님 나라(대표시샵 이태경)는 1, 2일 양일에 걸쳐 불국사에서 수계법회를 가졌다.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분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150명의 부처님나라 회원들이 계를 받았다. 수계를 받기에 앞서 부처님 나라 회원들은 불국사 경내 석가탑과 다보탑을 도는 탑돌이와 석굴암 부처님을 참배했다. 한편 부처님 나라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강남포교원에서 목요 참선방을 개설해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고 있다.

### 은평구청 불심회 흥창사서 법회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4일 관내에 위치한 흥창사로 사찰 순례 법회를 다녀왔다. 이 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법회에는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설법을 대신해 금강경을 강의했다.

### 클릭! 새 홈 페이지

■한우스님(http://www.buddhapia.net)-남지장사 주지 한우스님 소개 및 남지장사, 청련암, 백련암 안내가 들어있다. 한우스님과 함께하는 수심결 강의와 묻고 답하기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세계화두선선양회(http://www.whatiszen.com)-화두선에 대한 홈페이지. 이뭣고 참구법, 선의 요약서, 화두란 무엇인가, 안티선 페이지 등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공한다.

■봉인사(http://soback.kornet21.net/~bonginsa)-봉인사 소개,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여래선 수련회 안내도 있다.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교육 일정 및 방법, 매달 발행되는 한길법화도 볼 수 있다.

■보현불교용품(http://bohyun.hanaronews.co.kr)-석운 & 달마도 전문취급사. 회사소개 및 불교용품, 핸드폰줄, 열쇠고리, 옥전, 표구 등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성불원(http://www.sungbul.or.kr)-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성불원 홈페이지. 원장인 현각스님 소개부터 성불원 소개, 법회 안내 등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다.

■약사사(http://www.yaksasa.com)-영문판, 일문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경주 건천에 위치한 약사사 소개 및 약사여래불과 달마대사에 대한 설명, 달마도 안내 등이 있다.

■한길법당(http://ekayana.oo.co.kr)-한길법당 운영 취지에서부터 법회안내, 교리해설, 상식 등의 코너를 제공한다.

■성불사-영산불교 학생회(http://cafe.daum.net/sungbul1)-6월11일 개설. 성불사 학생회의 모임 장소, 성불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여행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http://www.freechal.com/LoveBuddha)-6월12일 개설. 여행을 통해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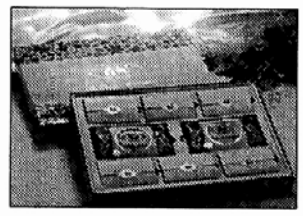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사 설

# 경주 남산과 봉정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인줄 알면서도 행동을 한다면 이는 몰라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르는 것 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

첫째는 경주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즈음에 느껴지는 부끄러움이다. 지난 6월29일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경주남산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본회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다. 우리가 소원했던 문화유산 등재인데 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는가가 문제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추천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명백하다. 문화유산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문화유산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나 보존 관리하는 행태의 수준이 부끄럽다는 뜻이다. 경주 남산을 둘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선 사설분묘들, 걸맞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들, 훼손된 유적들, 놀이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 등 이루 다 지적하기가 힘들다. 문화유산으로 세계인이 공유할 가치있는 남산이라면 이를 수준 높게 긍지를 갖고 소중히 보존관리할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11월27일 열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지정될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라도 아껴 의식을 높이고 문화유산답게 아끼는 행동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부끄러운 일은 봉정암 사건이다. 봉정암은 설악산 백담사의 말사로 천연보호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암자이다. 이런 암자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채 헬기착륙장을 만든다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이다.

조사에 따르면 천연보호구역내 192.97㎡나 되는 넓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3년도에 요사채를 지으면서도 허가 면적을 어기고 불법건축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솔선수범해야 할 봉정암 관계자가 알고도 저지르는 일이라면 그게 더욱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유산을 지킬 부끄럽지 않은 너와 내가 되자.

# 사형제 폐지 생명운동

인간이 무슨 명목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미물의 생명도 귀중한 것이라면 동류인 인간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도라는,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살인이 여전히 용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한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우리는 그 근원적 의미를 되물어야 한다. 법에 의한 살인은 과연 살인이 아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법에 의해 인정하고서, 그것을 통해 살인을 비롯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살인을 비롯한 죄를 막고 또 징계하기 위하여 살인이라는 방편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가? 방편이라는 것이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도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살인은 안된다는 것이 지상의 명제로 자리잡고, 법에서도 그것이 가장 큰 원칙으로 자리할 때,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도덕원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일반의 논리로 말해도 이러하다면,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하는 불교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문제삼고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했고, 폐지 운동의 선봉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 사형제폐지 운동본부'와 원불교 교단 등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불교가 그 진면목을 발휘할 분야에 제대로 발을 내밀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좀 뒤늦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에 바탕한다면,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불교가 이 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생명의 참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어두운 그늘이 없는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일이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 주장이 부정적 측면의 제거라면 그를 밑받침하는 적극적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에 불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계기로 이러한 두 측면의 사회운동이 불교계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 신문 홈페이지 독자란 기독교인 선교 '몸살'

지난 주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서의 일이다. 독자 의견란을 살펴보니 수십건의 의견이 올라 와 있었다. 주말이어서인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선교 목적의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는 불교를 은연중 또는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글들도 있었다.

독자 의견란은 누구나 공유하고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런 곳에 선교를 목적으로 한 글로 도배질하고 그러다 못해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음허하는 글을 올린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훼불 방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붓다뉴스 닷 컴 ID : 또다른분야〉

## "여인숙인줄 아느냐" 봉정암 기도비 강요

지난 6월 봉정암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도를 접수시키기 위해 그곳 보살님에게 3만원을 드렸다. 그런데 그 보살 왈(曰) '이것도 돈이냐' 면서 접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기도하는데 돈을 얼마 내야하는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보살은 못마땅한 듯 2호실 방을 배정해 주었다.

봉정암 보살의 불손한 태도는 나에게 뿐만이 아니었다. 기도비로 1만원씩을 낸 두명의 보살님과 처사 한분에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들어냈는데 자못 나를 분노케 했다.

그분들에게 그 보살은 "여기가 무슨 여인숙인 줄 아느냐 한 사람당 만원이 뭐냐"고 소리치는 것이다.

봉정암은 누구를 위한 절인가. 돈없는 불자들은 절에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것인지 불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불교가 과연 타락하고 만 것인지 경악스럽다. 물론 한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시켜 봐서는 안되겠지만 씁쓸한 기분은 쉬 떨쳐 버릴 수 없다.

〈붓다뉴스 닷 컴 ID:김혜선 〉

## 너도나도 무질서하게 법당안 초·향 공양

우리 불자들의 기복적인 믿음은 오랜 세월동안 잠재되어 왔음인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법회때마다 보고 느끼는 일이지만 참석하는 불자들 중 대다수가 내가 꼭 부처님 전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야만 내게 복이 온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 전에 이미 촛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처럼 그 촛불을 꺼 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초에 불을 붙여 촛대에 꽂고, 향을 부처님이 모셔진 상단, 신중단인 중단, 영단인 하단에 돌아가면서 피운다. 그리고 불단 바로 밑에서 삼배를 올린다. 그렇다보니 향을 피우려는 불자들끼리 부딪히기 일쑤고, 법당 안은 혼잡스럽다.

내 손으로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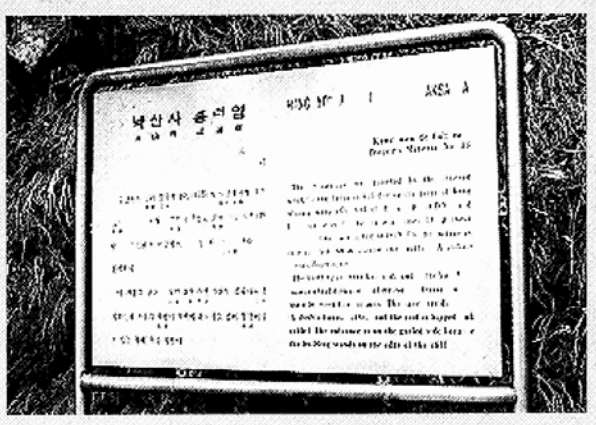
김갑숙〈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홍보부족 제역할 못해

유흥지대로 전락해 버린 남한산성에는 '만해기념관'이 있다.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굳세게 살다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만해기념관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계 언론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한섭〈성남시 수성구 복정동〉



**특사진** **마치 폐사지처럼…** 사찰 입구엔 그 사찰의 유래와 규모등을 설명해 놓은 사찰 안내판이 있다. 그러나 글씨가 반쯤 떨어져 문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낙산사 홍련암의 안내판은 없느니만 못하다. 나도 그랬지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많은 참배객들은 사찰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찰안내판을 먼저 대하고는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는 표정이다. 〈이창식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 안·타·까·움

## 사주관상가로 전락한 스님

"O 스님, 서울과 일본에서 기적을 보여준 O 스님! LA에 오셨다. 문하생 모집. 운명감정, 사주팔자, 이름상호, 수상관상, 예약 상담 -OO철학미래연구원-"

지난달 1일 LA교차로 광고지에 실린 광고다.

이 광고는 한 가운데에 참선하고 계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어 낯을 뜨겁게 한다. 사주 관상쟁이로 전락해 버린 스님이라는 이름 아래 초라한 부처님의 모습.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부처님은 "수행자는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제자는 아트르바베다의 주문이나, 해몽, 관상, 점을 쳐서는 안된다〈숫타니파타〉"고 말씀하셨다. 오직 바른 생각, 바른 행위, 바른 생활태도를 가르치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부 스님들의 일이지만 스님들은 사주 관상쟁이를 자처하고 나선다. 그리고는 그럴 듯하게 변명을 한다. "중생이 원하는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편인데…"라고. 또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 즉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미혹한 중생이 원한다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이 과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일까?

성철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스님은 "중이 밥 못 먹을까봐 걱정 하는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오히려 넘칠 정도로 스님들을 봉양하지 않는가.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를 팔아 돈을 벌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스님의 본분이 아니다"고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승가교육이 급선무다. 몇 십년 전 서당식 강원 교육을 고수하는 작금의 승가대학의 교육으로는 훌륭한 포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이 필요하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배운 것,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포교를 효과적으로 하겠는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많은 전도사를 양성해 전세계에 파견하고 있다. 옛날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왔지만 지금은 반대로 열기가 식은 서구 기독교를 대신해 한국 기독교가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스님들이(일부지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직업적인 사주관상가가 되어 돈벌이 광고나 내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사부대중이 합심하여 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해공법사〈미국 샌디에고〉

## 목탁소리 서랍속 불교대 발전보고서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현각)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외면당하고 있다. 96년 학부로 전환하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불교대의 발전 방안이 책상서랍에 방치되고 있는 것.

그 동안 '전과' '편입축소' 등으로 불교학부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학부 강좌가 폐강되는 등의 불교대 현안에 대해 교계는, '특단의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3월 2일 동국대 자체적으로 구성된 발전위의 활동에 관심을 집중했다.

불교대 소속 14명의 교수들이 3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만든 보고서에는 불교대를 '특성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 △전과제도 △교수확보 △취업문제 등 불교대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마련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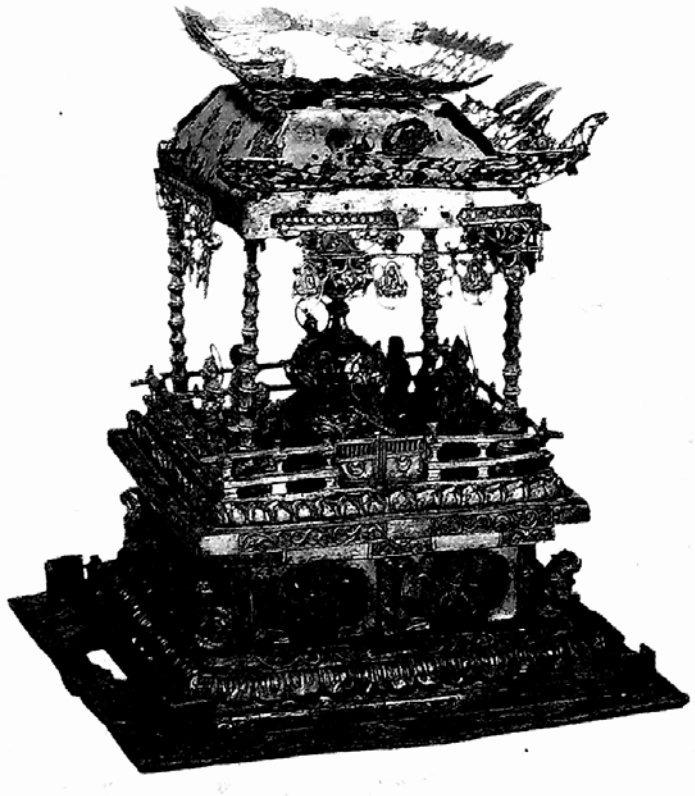
그런데 정작 발전위가 지난 5월 18일 연구보고서를 기획인사처에 전달했지만, 학교 당국은 지금까지도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작업이나 세부계획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발전위가 재단이나 학교당국에 이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불교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위급한 시기에, 연구보고서를 대하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현각 스님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제는 행정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불교대 교수들이 마련한 연구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해 위기에 처해 있는 불교대학을 살리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시간적 촉박함도 있는 만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작업을 계속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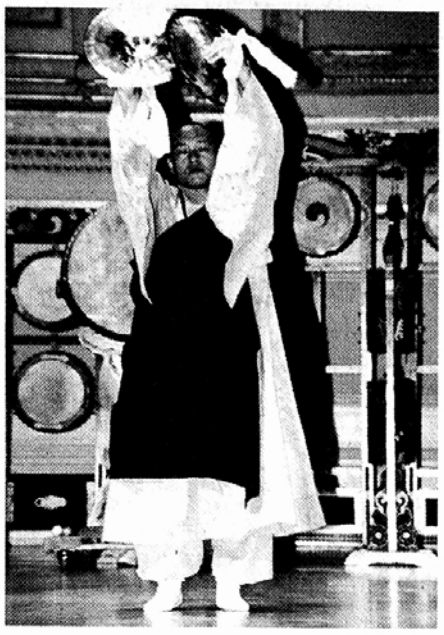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5)384-0010, 팩스 055)384-0030 (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법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6월 30일 카네기홀에서 열린 영산재 보존회 공연은 재미교포와 현지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 영산재 카네기홀 공연 '갈채'

##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

세계 음악인이라면 꼭 한번 서보기를 갈망하는 무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불교전통 영산재가 처음으로 선을 보여 재미교포와 현지인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6월 30일 밤 11시 미국 뉴욕 카네기 메인홀. 2600석 규모의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과 노력에 존경을 금할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원장 인남순)이 새 천년을 맞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이번 공연은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이라는 대주제 아래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시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처용무 이수자 인남순씨의 처용무 공연도 펼쳐졌다. 또 우리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불자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의 우리 옷도 선보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범패(음악), 장엄(미술), 작법(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날 공연은 영산재 전수교육 보조자 일운스님과 이수자 능화스님 등 11명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거불을 시작으로 사다라니 바라춤과 사방요신 나비춤, 법고춤, 요잡 등 화려하면서도 엄숙을 잃지 않은 춤사위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려퍼지는 범패연주로 극적인 감동을 더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날 공연에 이어 1일과 2일에는 뉴욕 전등사에서 미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한 특별공연도 펼쳐, 멀리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교포들에게 우리문화의 풍요로움을 한아름씩 안겨줬다. 특히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뉴욕한인회 교포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산 교육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산재 이수자 능화스님은 "해외에서 영산재를 공연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보이는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놀란다"면서 "오는 10월 경에도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스님과 제자들이 미국내 4개 대학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해외공연시 교포들을 위한 단기 전통문화교실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전화카드에 새긴 '아름다운 금강산'

하늘과 맞닿은 천봉만학의 자태로 미술·문학 작품의 주제가 되어온 금강산. 그 아름다움을 이제 공중전화카드로 만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은 최근 금강산을 소재로 한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98년부터 (주)한국통신카드의 협조를 받아 '한국의 미'를 주제로 박물관 소장유물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해 왔다.

이번에 발행된 전화카드는 겸재 정선의 '정양사도(正陽寺圖)'를 비롯해 '서산대사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청화백자철채산형향로' 등 금강산을 소재로 한 4종 350만장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작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해 호평을 받았던 금강산 특별전 '아름다운 금강산'에 전시한 200여 작품 가운데 엄선한 것들이다. 각 카드마다 이들 문화재의 제목과 크기, 시대 등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 있다.

박물관 홍보담당 홍선옥씨는 "휴대 전화기의 영향으로 공중전화 사용자가 줄었지만 '한국의 미' 시리즈를 수집하는 사람이 많아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 학춤수행 20년 자료집 펴냈다

## 백성스님 '울산학춤연구'

"우리 전통 춤의 발디딤새도 불교무용의 영향을 받았고, 학춤도 원래 절에서 동자승이 추던 춤에서 유래된 거지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학춤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백성 스님(울산학춤보존회장)이 최근 〈울산학춤연구〉(울산학춤보존회)를 펴냈다.

할아버지 김두식, 아버지 김덕명 씨에 이어 3대로 이어지는 양산사찰학춤의 전승가문에서 태어난 스님은 8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으며, 학춤연구와 전승에 매진해 왔다.

"한국 전통학춤은 불교예술에서 발원되어, 민속무와 궁중무의 학춤으로 전개됐다"는 스님은 "한국인의 눈과 마음이 그려낼 수 있는 삼라만상의 형상을 학의 움직임에서 포착하고, 불교적 가르침을 인간의 몸짓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학춤"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 스님은 울산학춤의 107가지 동작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일반인들도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으로 양산사찰학춤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실었다.

이은자 기자



◇울산학춤 동작을 연습중인 백성스님.





◇전북불교문우회는 산사시화전과 시낭송회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국모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만해스님 생애와 시문학 조명

## 전북불교문우회 '다르마' 3호 펴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수행하며, 삶과 창작활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불교문우회(회장 주봉구)가 문집 〈다르마〉 제3호를 펴냈다.

전북불교문우회는 시, 소설, 수필, 평론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활동중인 기성 문인 37명을 중심으로 지난 96년 11월 결성됐다. 그동안 년 4회 계절모임을 갖고, 창작의 어려움과 불자로서의 신행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만해스님의 생애와 시문학'을 조명했다. 스님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을 통해본 선(禪)의 세계와 그밖의 대표 작품을 통해 시어로 표현된 스님의 사상과 숨은 뜻을 새로운 측면에서 해석했다. 특집과 더불어 '목어' '차를 달이며' 등 회원들의 시와 수필, 단편소설 등 70여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불교문우회 김현조 사무국장은 "산사 시화전과 시 낭송회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교문학을 불자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한편 전국적 모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 문·화·단·신

### 화폭에 담은 '불교,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현대를 오가며 불교적 심미세계를 화폭에 담아 온 화가 한승구씨가 제5회 개인전을 22일~26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제2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한 '석가모니 영산회상도', '약사후불도' 등 전통 불화와 정확한 묘사로 제작한 영정 그림, 석굴암 제자상을 흙판에 그린 '신라의 향기' 연작, '만행' '변혁'과 같은 컴퓨터 합성작품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경지를 모색하고 있다. (051)500-5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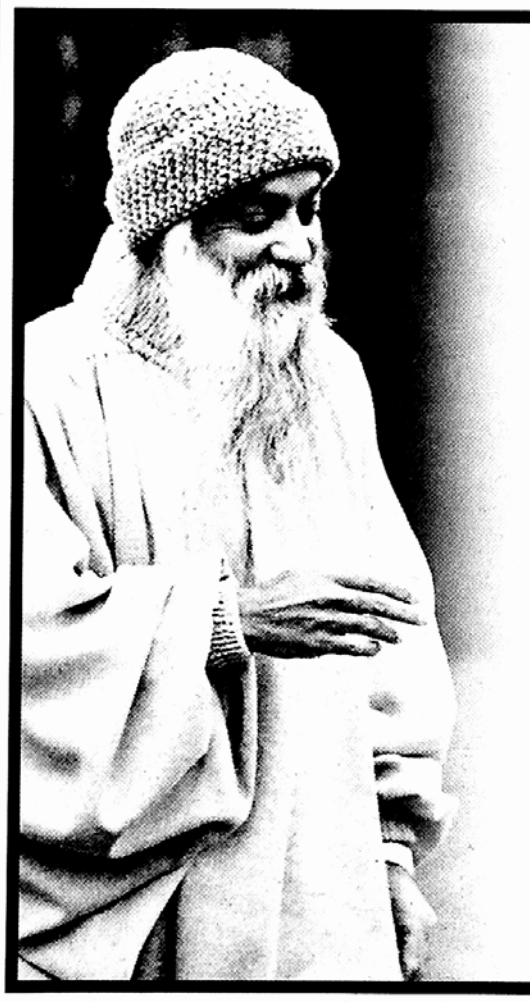
◇한승구作 '만행'

###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전

우리 민족 원형의 생명력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전이 22일~9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신의 다양한 모습', '매개자', '주술과 생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한민족의 기층생활에서 강한 생명력을 발휘해 온 신화와 주술의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게 된다. (02)580-1300

### 백남준 작품 1백여점 볼 기회

지난 봄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개관이래 최대 관람인파를 불러모아 화제가 된 바 있는 '백남준의 세계전'이 21일~10월 29일 로댕갤러리와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레이저 작품, 비디오설치 및 조각, 프로젝션 등 100여점의 출품작이 동시 전시된다.(031)320-1801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산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 지금 바로 이곳서 행복을 본다

## '깨어있는 삶으로 여행'



일상의 모든행동
의식하는 습관
마음의 평화 얻어

고(苦)로부터 벗어남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며 나름의 행복을 갈구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가.

최근 잇따라 출간된 두 권의 명상서는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찾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신 내면의 생각(번뇌)을 분명히 알면서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해 주는 책들이다. 하나는 위빠싸나 수행의 의미와 실제적인 수행방법을 수록한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문화사랑, 값 5천원)이고, 다른 하나는 5박 6일의 명상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일어난 의식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5박6일 명상 체험기〉(불광, 값 8천5백원)이다.

## '5박 6일 명상체험기'



관법·명상통해
참나 찾는 과정
사실적 서술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은 명상 훈련법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죠셉 골드스타인의 〈Insight of Experience〉 등 그가 저술한 서적에서 핵심 부분들을 가려 뽑아 정리한 '명상 훈련법'이다. 하지만 단순한 방법론의 나열은 아니다. 글쓴이의 일관된 논점은 생활 속에서 한 순간 한 순간을 깊이 느끼고 음미함으로써 전체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을 처음부터 의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호흡의 움직임, 몸 동작 이전의 의지, 감각의 연쇄 작용 등을 느끼는 것이 그 주요 방법들이다. 관법 명상의 진수만을 간추려 엮은 이 책은, '깨어있는 삶'을 지향하는 명상 훈련지침서라 할 수 있겠다.

〈5박 6일 명상 체험기〉는 지난 99년 명상아카데미의 관법 명상 입문 및 심화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명상 체험기이다. 현직 중학교 교사이며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쪽지 '만남과 열림'을 펴내고 있는 김남선 교사가 5박 6일 과정의 명상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의식의 변화들을 기록한 것으로 참나(眞我)를 찾아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흔치 않은 명상 체험기인 이 책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면서 지우고 비우고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까지 '참 자기가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과정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이 책은, 내용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 또한 쉽고 편안하다.

한편 〈깨어있는 삶으로의 여행〉은 명상의 전반적 의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 명상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을 간결한 문장으로 담고 있다.

이렇듯 두 책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내용 전개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 메시지에서는 합일을 보인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행복을 보라"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 7월에 나온 불교계 잡지 '브리핑'



▲계간 〈불교평론〉 여름호는 '불교와 페미니즘',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불교와 페미니즘에서는 '왜 불교와 페미니즘을 말해야 하는가(안옥선)', '불교 페미니즘의 이상과 현실(하정남)', '불교 페미니즘의 회복을 위해(이창숙)', '한국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민성효)' 등 여성학자의 글을 실었고,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한국불교는 회통불교인가(심재룡)',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김종만)', '조계종 법통설의 형성 과정과 문제점(박해당)' 등 한국 불교고유의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밖에도 〈불교평론〉은 쟁점으로 '〈육조단경〉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루었고 '현대불교미술의 나아갈 길', '불교정화운동 연구' 등 3편의 논단과 해외불교체험 '100일 동안 경험한 미얀마 불교' 등도 싣고 있다. 값 1만원.



▲〈불교와 문화〉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시대의 육바라밀-인욕'이 눈길을 끈다. '경전을 통해 본 인욕바라밀의 실천'에서부터 '미얀마 비파사나 수행자가 들려주는 인욕이야기', '왜 인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통해 디지털시대에서 인욕의 의미를 찾고 있다. 또 중국 속의 한국불적-호남·강서성의 한국관련 선종사찰 답사,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신라신 스사노오미코토의 발자취 등도 읽어 볼만하다. 이밖에도 아미타신앙이란 무엇인가(보광 스님), 불교에서 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강건기), 불교미술 연구의 선각자 고유섭 등 불교신행과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글도 실려 있다. 값 7천원.



▲월간 〈불광〉은 특집 '불교의 인간관'을 마련, 현각 스님의 '선과 인간관'과 장휘옥 교수의 '정토교의 인간관'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또 불교와 21세기를 조명한 '21세기의 정신과학은 불교에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가(김진성)', 특별법석(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불교의 수행법(관법명상 10), 교학강좌(회의론의 극복과 12처설의 가르침), 주제별로 가려 뽑은 경전 말씀, 설화가 깃든 산사 기행 등 신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값 2천5백원.



▲월간 〈여성불교〉는 '참나와 만나는 여름휴가'란 주제로 사찰 수련회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올 여름 사찰 수련회의 일정을 도표로 정리하는 한편 초심자와 일반대중들을 위한 수련회, 수련회 참가기, 이웃 종교의 수련회 등으로 나눠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여성이 만나는 세상, 여성불교가 만난 모범의 현장, 불교사의 위대한 여인들 등의 코너는 여성불자들의 신행사례를 담고 있다. 값 2천원.



## '이이화의 못다한 한국사 이야기'

#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역사는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일관된 역사의식을 토대로 한국통사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역사학자 이이화 씨가 역사 에세이집을 내놓았다.

〈이이화의 못다한 한국사 이야기〉(푸른역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감춰졌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군숭배는 민족 의례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어 올린 두 가지 뜻' '미군정 3년 하지중장 오판과 실수'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31개 주제에 글쓴이 특유의 해석이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눈뜸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인의 정신에 관련된 주제들, 새롭게 평가되어야할 역사적 인물들, 나아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역사적 왜곡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역사란 결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정사를 토대로 일화, 비화, 민담을 끌어들여 일반적인 역사책의 딱딱한 문투와 고지식한 사실 나열에서 저만큼 벗어난다.

글쓴이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장은 역사의 현재성이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 사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값 7천9백원.

## "암자는 편안한 어머니 품"

### 정찬주 '암자가 들려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암자로 가는 길〉과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에 이어 세 번째 암자이야기 책 〈암자가 들려준 이야기〉(열림원)를 펴냈다.

글쓴이는 "암자란 수행자들이 머물다 가는 거처이자 구도 정신의 본향 같은 곳"이며 "암자는 나를 맞아 편하게 하는 어머니 같은 곳이자, 흐트러진 나를 추스르게 하는 침묵의 자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암자를 2년 8개월에 걸쳐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에 동화 형식을 빌린 네 편의 산문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 〈암자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밥 한 술, 과일 한 조각도 산새나 산짐승을 위해 나누어 먹는 수행자들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까마귀들의 이야기 '설악산 까마귀', 글을 가르쳐준 처사에게 우물에 뜬 달을 떠서 선물하겠다는 동자승의 이야기 '달은 어디로 갔는가', 게으르고 잠이 많으며 여자와 놀기 좋아한 한 스님이 등에 커다란 나무가 박힌 물고기로 환생해 살아간다는 '목어 이야기' 등으로 채워진 이 책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욕심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구도자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게 한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 노장과 선종 '밀접한 관계'

### '선과 노장' 번역 출간



노장(老莊)사상과 선(禪)은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부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선종이라는 형태로 중국적 변용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중국불교의 선과 노장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밝힌 학술서 〈선과 노장〉(운주사)이 우리말로 출간됐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부터 후기 선종에 이르기까지 선과 노장의 상호관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선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장사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융합했는가, 그리하여 어떤 모습으로 전환되었는가 등이 바로 그것. 이를 위해 쉬샤오위에 교수(중국 남경대학 철학과)는 모두 5장으로 나눠 불교와 도교의 기본입장과 핵심사상을 고찰하고 있다.

'노장사상과 선학원류', '노장 본체의 도와 불선 본체의 공', '노장의 천인지학과 선종의 심정지학',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노장의 천인합일의 도경과 후기 선종의 아불일체의 선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불교의 본질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폭넓게 노장사상의 장점을 흡수해 중국선학의 사상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피게 하는 책이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 벽화로 본 고구려의 종교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고구려 벽화를 10년 넘게 연구해 온 전호태(울산대 사학과) 교수가 펴낸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는 벽화를 통해 고구려인의 삶과 사유를 복원한 책이다.

글쓴이는 우선 고구려 벽화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무용총, 삼실총, 쌍영총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고구려의 정신과 문화의 원형을 보게 한다.

이 책의 큰 특징은 고구려인들의 삶의 모습을 꼼꼼하게 복원해낸 점이다. 안악고분벽화(황해남도 안악군)를 통해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을 추적하고, 무용총벽화(중국 지안)에서는 연꽃이 벽화의 주제가 돼 중심부에 있음을 밝혀낸다. 이외에도 고구려인들은 밝고 단순한 색상의 점무늬 옷을 즐겨 입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의 기하학 무늬 옷을 선호했던 사실, 귀족들은 주로 노란 가죽신을 신었던 사실 등을 밝혀낸 점은, 이 책이 이룬 성과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연구 주제나 대상을 좁힐수록 그 결과는 오히려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값 2만9천원.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
| 1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2 | 전통사찰음식 | 적 문 | 우 리 |
| 3 | 화두를 놓고 염불하세 | 인 광 | 불 광 |
| 4 | 법구경(작은경전1) | 지 현 | 민 족 사 |
| 5 | 마하르쉬의 복음 | 대 성 | 탐 구 사 |
| 6 | 영가천도 | 우 용 | 효 림 |
| 7 | 산승일기 | 지 묵 | 우 리 |
| 8 |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 달라이 라마 | 문 이 당 |
| 9 | 민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현 각 | 열 림 원 |
| 10 |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 일 타 | 불교시대사 |

도서 안내:(02)737-0695

傳統風水地理 月 월 桂 계 冠 관

이 시대의 마지막 道學者(도학자) 巨乙山(거을산) 陳相伯(진상백) 先生(선생)의
전통풍수지리 드디어 출간!
대구 KBS비, 바람, 터 특별출연
주간 매일 신문 전통풍수지리 연재
風水學(풍수학)에 뿌리를 담아 五天年(오천년) 역사를 두고 온 황제문이 드디어 지상에 탄생!



道學者 巨乙山 陳相伯 先生

◆ 고준한계 말하는 책 ◆
· 라즈니쉬의 眼으로 보는 눈
신국판/정가 9,000원
· 절에 가니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신국판/정가 8,000원

風水學(풍수학)으로서 元色(원색)을 담은 月桂冠(월계관)
책자에 대한 내용으로는 知識社會(지식사회)에 대한
知識(지식)속에서 知識(지식)에 대한 뿌리에서 知識(지식)에 대한 숫자로서 生活(생활)에 대한 뿌리에서 生活(생활)에 대한 숫자를 두고서 知識(지식)에 대한
秩序(질서)와 知識(지식)에 대한 格式을 바로잡는데
목적을 두게 된 이 책자에 대한 내용에 두고 있습니다.
지식일선에서 생활지식을 계도하는 風水地理學(풍수지리학)
民俗學(민속학)에 대한 學者(학자) 生物工學學者(생물공학학자)
成均館(성균관) 儒林(유림)에 의한 典禮的(전례적)인
典敎(전교)에 대한 儒學者(유학자)
그리고 많은 분들의 구독을 선호합니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화제의 신간



양장본/정가 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평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0년 7·8월호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❷
- 원교 이광사가 쓴 고창 선운사 요사의 편액 '정와(靜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불교특강 - 불교에서 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불교의 인간 이해는 『화엄경』의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③ 인욕(忍辱)
참는 것만을 인욕(忍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수행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인욕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전한다.
- 경전을 통해 본 인욕바라밀의 실천
- 미얀마 비파사나 수행자가 들려주는 인욕이야기
- 명상아카데미 혜봉 원장의 인욕지도 체험담과 명상프로그램
-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왜 인욕해야 하는가'

컬러화보 ①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람의 숨결 - 부산 금정산 범어사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화엄의 도량 구례 화엄사의 도량 변천사를 사진으로 비교해 본다.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비파사나 불교로 떠나는 명상여행

포커스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불고 있는 선불교의 바람을 책을 통해 소개한다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일본인들이 제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악왕자(惡王子)'로 부르고 있는 신라신 스사노오노미코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일본 속에 뿌리내린 신라불교와 문화를 만난다

중국 속의 한국불적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 강서·호남성의 선종관련 한국사찰 답사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③ 아미타신앙편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문화/예술편)
- 불교미술의 선각자 우현 고유섭 선생
- 불교와 민속무용의 어머니 벽사 한영숙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불교를 통해 경영학 연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유필화 교수

고전산책
선사들의 에피소드를 엮은 『소선록(笑禪錄)』 읽기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불교학 정체 이유는 뭔가

## 선학회 월례발표회등서 제기

## 연구방법론 개발 등한시
## 타학문과 연계 폐쇄적
## 불교안에서만 해법 찾기

현대 철학계를 대표하는 라캉, 데리다, 들뢰즈 등의 사상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찾는 연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불교학계만은 이러한 경향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연구영역에 안주하고 있다.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 불교를 탐구하는 이 같은 연구 경향에 대해 불교학계는 학술적 '평가'나 '반론'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원(울산대) 교수는 "불교학계는 다른 학계와 학문적 교류의 통로를 만들어 놓지 못해 폐쇄적이었고, 그 결과 끊임없는 새로운 연구방법론 도입에 무관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불교를 지나치게 불교 안에서만 보려는 불교학계의 시각이, 들뢰즈나 라캉 등 현대 철학자에게서 불교적 사유관을 찾는 연구와 토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국선학회 6월 월례발표회에서 장시기(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원효와 들뢰즈-가타리의 만남'에 대해 일부 불교학자들은, 원효와 들뢰즈의 사상을 비교하는 철학적 토론이 아닌 원효 스님의 우위를 주장하며 반박하는 등 묘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불교학자들은 "'깨달음의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원효 스님의 불각(不覺)과 들뢰즈의 '기관없는 몸'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장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했다. 그래서 '기관없는 몸'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이해하기에 앞서 '불각'의 뜻만을 설명하는데 열중하다 보니 서걱거리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기관없는 몸'이란 현실의 모든 것을 나누고 가르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 체계를 뜻한다.

이에 대해 혜원(동국대 교수) 스님은 "불교학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접 학문의 연구성과도 십분 활용해야 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활동도 필요하다"며 "불교학계가 주도적으로 현대철학의 새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해야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대 사상계의 화두에 뛰어들 수 없는 원인을 불교학계 내에서 찾았다.

오진탁(한림대) 교수 역시 "한국철학회, 한국동양철학회 등 학계 일반의 추세와 거리를 둔 연구 풍토는 필연적으로 시대에 뒤진 학풍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학계는 더 이상 '불교계'에 갇혀만 있어서는 안되고, 내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외부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학의 '공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불교학의 요람인 동국대에서 학제간 교류에 관심을 둔다면, 불교와 인접 학문을 비교·연구하는 불교학자들이 당연히 늘어나고, 이들의 연구 성과는 불교학계 이외 학계의 발표회장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도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고,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상이기에 그 시기 사회사나 사상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이고, 다른 학계의 연구 성과와 문제 의식을 불교학의 문제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앞으로의 불교학계는 현대 사상계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익산시 미륵사지 복원 추진

## 예산 2억6천만원 확보…학술조사 시작

백제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미륵사 복원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총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월 27일 미륵사터 보존과학발굴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들어갔다.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맡게 될 이번 학술조사에서는 미륵사 보존·복원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함께 미륵사지와 관련한 사료를 바탕으로 미륵사 복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익산시는 내년 4월 학술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 미륵사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륵사가 복원되면 고대 백제 불교문화의 위용을 살필 수 있는 고건축 교육장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전문가들은 "정확한 고증없이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귀중한 유적지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 경북도 문화재 지정

경북도는 6월 2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의 경우 18세기 불화 양식이 잘 반영돼 있어 한국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역시 8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경북지역의 불교조각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는 1792년(정조 16년)에 제작된 것으로 가로 218.5cm, 세로 225cm의 비단 바탕에 삼단으로 그림이 나누어져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감로왕도와는



◇은해사 감로왕도.

달리 중앙부에 음식을 올리는 의식을 생략하고 2구의 아귀를 특히 강조했는데, 그 주위에 지옥의 고통스런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만장사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높이 222cm, 불신 112cm, 무릎폭 86cm 규모로 옷매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대좌에는 화려한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다.

권형진 기자

# 로마자 표기법
## 16년만에 개정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16년만에 바뀌었다. 문화관광부는 4일 특수부호인 반달표(˘)와 어깻점(')을 없애고, 모음앞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ㅈ'의 로마자 표기법을 g, d, b, j로 통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대로 적는 현행 표기법의 틀을 지키되 최대 문제로 지적돼 온 특수문자의 폐기, 우리 발음현실을 반영한 초성 자음의 유성음 표기 방식 채택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ㄱ, ㄷ, ㅂ, ㅈ'은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유성음 'g, d, b, j'로 표기하게 된다. 또 국어 로마자 표기의 가장 골칫덩이였던 모음 'ㅓ'와 'ㅡ'의 표기방식도 특수부호가 사라짐에 따라 eo와 eu로 바뀐다. 자음 'ㅋ, ㅌ, ㅍ, ㅊ'도 k', t', p', ch'에서 k, t, p, ch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새 표기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불교문화사전〉 편찬을 통해 '불교용어 영역 규정'을 추진중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매큔-라이샤워 방식을 기본 표기법으로 사전 편찬작업을 진행해왔다. 미국인의 발음에 근거한 이 방식에서는 'ㅓ, ㅜ, ㅡ'를 'o, u, u'로 표기해 개정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교관련 학술용어와 문화재 표기에 혼란이 예상된다. 권형진 기자

# "선종 공부론 유연성 상실
# 佛說의 본뜻 저버려"

## 김미영 박사 주장



"선종의 공부론은 교종과의 차별성에 집착한 나머지 전법(傳法)의 방법에 매몰돼, 본래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불설(佛說)의 본뜻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다"

김미영(고려대 강사) 박사가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제15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를 발표하고, 오늘날 선종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연유를 추론해 주목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선종의 공부론은 의발과 게송이라는 방편을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 즉, '진심(眞心)'을 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형식은 당시 성행했던 교종과 비교해 혁신적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공부론의 뜻은 수행에 정진하는 것으로, 공안·좌선·전법 등을 의미한다.

김 박사는 이러한 '혁신'을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드러냄'으로 보고, "진정한 사상의 본질을 누가 어느 계통으로 전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기존의 사상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정통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신회 스님이 〈단경〉의 편찬과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법통의 계보를 내세운 것도 '교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물려주고 마땅히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법통상속(공부론)이 부처님이래 이어져 왔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선종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다.

선종은 중국화된 불교로서 그 성격이나 형식면에서 인도불교와는 다르다. 따라서 선종계 스님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계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선종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된 법(法)을 강조하기 위해 법통설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당시 선종은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전통의 가르침을 변형시킨 공부론의 형식을 만들어 낸 것"에 주목하고, "오늘날 선종에 가해지는 '원본사상으로 소급해야 한다' 등의 비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결론에서 김 박사는 "특정한 방법론을 절대시하여 자신을 그 전통 속에 고착시킨다면 새로운 전통의 탄생은 요원한 것"이라며 "전통은 항상 지금의 입장에서 재구성될 때, 그 존재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상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 펜팔 홈페이지

## 성지순례와 실용영어 공부

집에 앉아 인터넷으로 세계인과 법우(法友)가 된다. 꿈이 아니다. '불자 펜팔 홈페이지(Buddhist Penpal Homepage)'를 클릭해 보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외국인 불자들과 영어로 의사를 소통, 살아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불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으로 외국인 불자를 사귀고 성지 순례도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펜팔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메뉴에서는 신상 프로필과 함께 e메일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불자를 선택, e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펜팔을 시작할 수 있다. '리스트'에는 국경을 초월한 불자 프로필만 모두 30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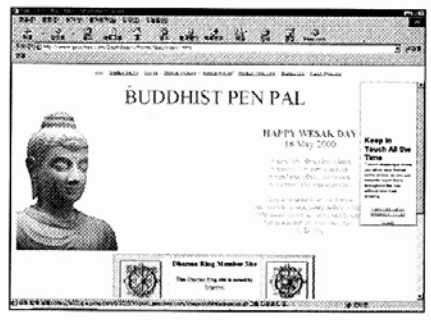
여기에는 "경전에 이 세상의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skr306@hotmail.com)는 미국 가정주부에서 "러시아에서 티베트불교 사원에 다니고 있지만, 선과 상좌부 불교에도 관심이 있다"(stabroek@mail.ru)는 러시아 교사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 얘기든지 모두 듣고 싶다"(ummra@gurlmail.com)는 캄보디아 소녀 그리고 "불교출판사에서 일하며 키운 불심을 나누고 싶다"(linlin31@hotmail.com)는 대만 출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있다. 물론 자신의 프로필 또한 '업로딩' 메뉴를 이용해 공개할 수도 있다.

사실 영어로 편지를 쓴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야후(yahoo.com)나 인포식(infoseek.com)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기-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어로 펜팔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불자 네티즌이 원하는 문장을 정확한 어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용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불자 펜팔 홈페이지'에서는 불화나 불상 등 불교미술 작품을 담은 그림 파일이 첨부된 e메일을 발송하고, 컴퓨터에 불자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유용한 부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메일 부가 서비스는 '불자 펜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20여 종의 불교미술 작품과 카드모양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e메일 주소와 메시지를 입력하면 불교미술 작품을 담은 파일이 첨부된 e메일이 발송된다. 또 이 곳에서는 불자 네티즌들에게 친근감 있는 상징물에서 성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 세이버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린 세이버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일정시간 쓰지 않을 때 모니터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보호화면으로, 지금까지 이 기능만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개성을 연출하는 영역으로 발전했다. 오종욱 기자

△http://www.geocities.com/SouthBeach/Pointe/5640/index1.html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3-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금해스님의 여 래 선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5)372-1221 / 011)564-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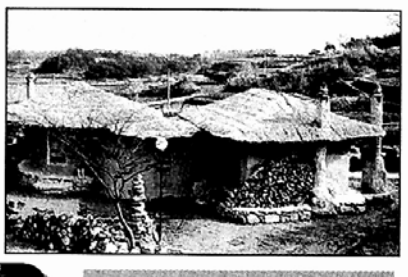
▪입 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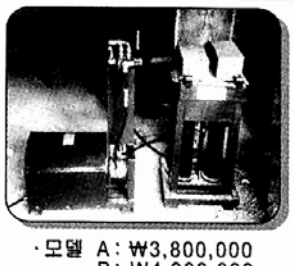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가사용 및 앤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계, 인간형성의 기본조건

##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5〉

## 팔관재계-3

## 몸·마음 욕망 절제해야 깨달음 도달

## 나쁜짓 않고 착한 일 하는게 곧 지계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나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고 법구경에서 말한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욕정도 극복할 수 없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면 먼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하여, 이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계율이라는 좋은 생활규범 속에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려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자기 자기를 규제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로 가려고 다짐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다. 오계든, 팔관재계든 결국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된다는 것인데, 항상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울다라파제라는 나라의 오백 바라문은 갠지스 강가에 있는 신령스런 연못에 제사를 지내고, 목욕하고 벌거벗은 수행을 하여 신선이 되고자 집을 떠났는데, 가던 길에 큰 늪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다.

늪 가까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바라문들은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그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바라문들은 '배고프고 목이 타는데 재앙까지 겹쳐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소리치며 울었다.

그때 나무 신이 바라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희들은 신령스런 연못으로 가 신선이 되고자 했는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무 신은 손을 뻗어 갖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바라문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해주었다. 남은 음식은 길 떠나는 데 양식으로 쓰기에 넉넉했다. 바라문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에 앞서 나무 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토록 늠름하십니까?"

"나는 지난 생에 사위성에 살았소. 그때 '수달'이라고 하는 대신이 어느날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려고 시장에 나가 우유죽을 샀지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우유죽을 들고 가게 되었소.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정사에 이르자, 수달대신은 나에게 우유죽을 나누어 공양 올리도록 했고, 공양이 끝난 뒤에는 설거지를 시켰소. 나는 자리를 깨끗이 정리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 시간은 가슴 벅찬 환희였고, 내 기쁜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었지요. 설법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팔관재계'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를 지키려고 저녁밥을 먹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는 왜 저녁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팔관재계 받은 일을 말했다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며 세상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부처님의 법을 왜 받아들이며, 음식을 먹지 않아 몸이 상하면 어떻게 죽겠느냐고 했소. 할 수 없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길로 목숨이 다해 나는 나무 신이 되었소. 어리석은 아내 때문에 팔관재계를 깨트려 지은 악업을 다 씻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러나 내 손에서 많은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우유죽을 들어다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 때문이지요. 그때 만약 팔관재계를 온전히 지켰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나무 신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을 것이오."

말을 마친 나무 신은 오백 바라문들을 위해 게송을 지어 노래했다.

신을 찾아 헤매는 일이여 / 만나는 것은 재앙뿐이고, / 커져가는 재앙의 큰 가지여, / 그 괴로움 벗어나는 길은 / 오직 팔관재계 지니는 데 있다네.

계율을 '별해탈(別解脫)'이라고도 하듯, 계는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갚음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계를 지키려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 환경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습관이나 기질, 성향 등은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습관·기질·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여러 가지 규범을 불교에서는 '계'라고 한다. 흔히 인간의 기질이나 성향은 교육과 사회와 타고난 천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인간 형성의 모습이므로, 계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인간 형성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 "우리는 주인이면서 종 서로 돕고 존경해야죠"

## 법회중계

대구 평화통일기원정사

〈2000년 7월 2일〉



법륭스님

〈평화통일 기원정사주지〉

## 산천초목도 우리의 분신 인간 탐욕·무지때문에 생태계 조화 깨지 않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만상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산천 초목과 미물 중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의 분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성립을 도와주는 반려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인 동시에 반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번창과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중중무진이라는 표현처럼 상호 의존적인 연기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다 보니까 그물의 한쪽을 흔들면 그물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상호 연기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나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부처이고 부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중심이면서 반려자이며, 주체이면서 주변인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주인이지만 친구에게는 주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쪽만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쪽의 세계밖에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처인 것이지요. 모두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존재이며, 나만 주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연기론 적인 세계관이라 합니다. 전부가 얽혀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항상 공존의 원리로 채워야 합니다. 자연과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덜 먹고 덜 쓰고 살아야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곧 나의 원초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이므로 모두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모두가 중심인 동시에 모두가 다 주변인이며, 더불어 존재한다는 세계관, 이것이 불자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와 같은 법칙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깨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조화와 평형의 세계인 이 화엄의 세계를 마구잡이로 해치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탐착과 탐욕 때문에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깨고 있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은 깨침입니다. 깨치지 않은 한 자기가 지은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쳐야 합니다.

부처와 보살은 한 몸 가운데, 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상즉상입' 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범부중생이면서 보살이어야 합니다. 보살과 부처는 먼 사이가 아니라 내 한 생각 바꾸면 보살과 부처가 됩니다.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면 중생들을 압제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이는 부처님 잘못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잘못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눈으로 사물을 보아야 보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선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서로가 서로의 반려가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자 종인 관계로 돌아갑니다. 우린 부처인 동시에 보살이고, 주인인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연기의 사상에 투철한 불자가 됩시다. 이러한 관점이 참다운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불안한 미래' …불교서 희망찾아

## 세계의 불교학 〈25〉 네덜란드

## 1890년 대학·지식인층 불교 수용

## 불교 관련 학술서 출판·번역 활발

네덜란드에 불교가 전해진 때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약 100여 년 전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인층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철학의 한 분야로써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네덜란드 불교의 시작이다.

1940년대 초까지는 기독교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서 불교학이나 인도학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었지만, 2차세계 대전을 겪으며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낀 네덜란드인들은 현실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네덜란드 인구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등을 모두 합해 봐야 아주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네덜란드불교연합(De Boeddhistische Unie Nederland · 1973년 설립)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의 네덜란드 불교 상황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불교연합은 현재 7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12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순수 네덜란드인이고, 평균 6천여 명의 불자들이 매주 본부와 각 지부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을 만큼, 네덜란드에서의 불교가 꾸준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종교학자 뷔올드 즈다네 박사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사회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실업,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불교적 처방, 즉 참선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한다.

불교연합이 창립되던 70년대 초에는 구 베트남 정권이 몰락하면서 아시아계 난민(대개 불교신자)들이 네덜란드에 대거 유입했던 시기인데, 이런 과정에서 네덜란드에서 다양한 불교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일어났다. 특히 티베트·태국·일본 등으로부터 스님이나 법사들이 들어와 대학과 불교단체에서 직접 법문을 시작하면서, 불교는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연구 중심에서 일반인들의 신행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불교단체가 바로 네덜란드불교연합이다. 처음엔 엉성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1978년 단체로 등록하고 1990년 불교 단체와 조직을 통합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불교단체와 불교관련 출판사·연구기관 등을 총 망라한 유럽불교 안내서인 '유럽불교도연합 명부(EBU-Directory)'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발간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네덜란드 불자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5년 전부터는 방송에서 매일 15분씩 불교방송을 하고 있어 네덜란드 불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면서 일반인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는 또 장례 문화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와 네덜란드에서의 화장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등 불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아직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험, 즉 대학 입학시험에서 종교학과목으로 불교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라이덴(Leiden) 대학교에서는 불교학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불교연합은 〈불교의 친구들〉이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영어와 네덜란드어로 펴내고 있는 이 소식지는 네덜란드의 모든 불교 종파를 아우르고 있다. 불교 관련 출판사 역시 학술·인문 분야의 다양한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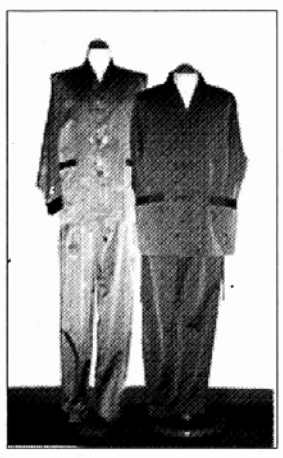
(주) 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정성과 얼이 담긴

특허상품

승복·법복 보급안내

· 전통의 고증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 자가드 제직 최신 입체공법으로 원단 생산.
· 면 60수 2합 곰마샤 폴리 에스텔 결합(통풍, 촉감 우수)
· 옴, 연꽃, 만자 문양 처리로 미적 감각이 뛰어남.
· 정전기 방지(유해 잔지파 차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 특별보급가격 | |
|---|---|
| 上,下 | 남:85,000 여:80,000 |
| 긴 조끼 | 남:45,000 여:40,000 |
|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 |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승복·법복의 대명사 "수레바퀴"
제조 공급원 : 기 원 승 복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청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55-9889/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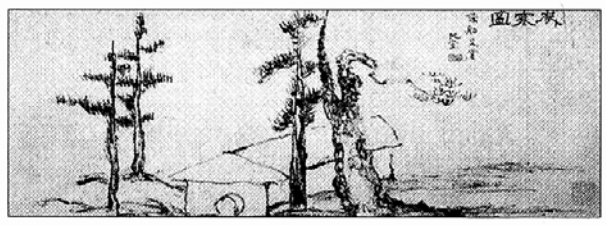
추·사·법·서·선·집 ·전7권

드디어 출간!!

秋史선생 學藝術 집대성




▶서울 강남구 수도산 봉은사 (추사선생 죽기 3일전 쓴 글씨)



▶세한도

전 편
1 추사 해서첩
2 추사 서결행서
3 추사 계첩고행서
4,5 추사 예서첩 상, 하

후 편
6 추사 화집
7,8추사 서작집 상, 하(별책)
9 현사 예서 천자문

(총7권9책)

▶보급가 : ₩230,000
→ 특별보급가격 ₩200,000원

【특 징】

· 추사선생의 작품을 원로 서예가 김승호(73세)선생이 2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편집하였다.
· 전편 추사해서첩, 예서첩 상, 하 등 5권 과 후편 추사화집, 서작집등 전,후편 모두 총7권과 9책으로 1,46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어있다.
· 최초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學藝術을 집대성한 책으로써 서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추사의 고결한 정신과 서한예서를 체계화한 선생의 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필독 지침서이다

※ 전화 구입 문의시 안내 소책자 발송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615-21-0517-898 이 민 택

구입문의 : 053)982-4976/011)813-3679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추사법서 보급원

#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 한여름밤의 산사 '선율장엄'



◇승과 속, 너와 내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가 된 보탑사. 하나의 작은 우주였다.

## 진천 보탑사 음악회

### 범패…판소리…가곡
### 2천여명 흥겨운 어깨춤

"둥-둥-두둥-두둥-등등둥둥…!"

한낮의 따가운 태양빛도 차츰 꼬리를 내리고, 쉴새없이 울어대는 매미소리와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어둠을 싣고 올 무렵, 웅장한 북소리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연꼭리 보련산(寶蓮山) 깊은 골짜기를 휘감아 돌았다.

"우주 법계 만물이 푸르름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는 계절. 그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운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5일 산사음악회가 열린 보탑사에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천안 등 각지에서 모여든 2000여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저녁 모기떼와 불나방마저도 산사 음악회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보탑사 산사음악회는 지난해 성공적인 첫 공연 이후 진천군민 모두가 자랑으로 여기는 지역 문화행사가 됐다. 특히 이번 산사음악회는 진천군 태권도 공원 유치를 앞두고 이를 기원하는 산사음악회로 타이틀이 정해질 정도로 관심과 기대가 컸다.

동희스님과 제자들의 범패공연과 가수 이동원씨, 듀엣 물다섯, 테너 박현준씨의 노래,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고전음악 연주, 삼선포교원 합창단과 진천농고의 합창, 명창 신영희씨의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성악가 정률스님의 독창무대였다.

"자비하신 부처님이 빛으로 내리시네…마음은 먹물 들이고…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맑고 고운 소프라노의 음색이 깊어가는 여름밤의 어둠을 가르자 "와!…앵콜, 앵콜…" 우레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곧바로 앵콜송으로 이어지자, 스님 성악가가 부르는 이색적인 '신아리랑'은 참석자 모두를 연주자로 만들어 주었다.

대전에서 두 아들과 함께 온 불자 정혜숙씨는 "온가족이 함께 부처님께 경배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지난해에 이어 또 찾아왔다"면서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분위기를 전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밤 11시, 마지막으로 진행된 하인스님들의 수화노래공연.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뿐 아니라, 눈뜨고 귀열리었어도 번뇌와 미혹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소리없는 가르침을 전하며 보탑사 산사음악회가 끝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산사음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저마다 개성이 다른 불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산사음악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속초 신흥사가 지난해 10월 99관광엑스포와 연계해 산사음악회 형식으로 김영동의 바람소리공연을 가졌으며, 감체 금산사도 지난해 10월 개산 14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남양주 백천사도 지난해 9월 김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 및 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여는 등 사찰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불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진천 보탑사를 비롯 서울 진관사가 98년부터 매년 가을 산사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신도들의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서울 길상사도 99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즈음해 결식아동과 함께 하는 길상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다. 5월 미륵불 봉안 기념 산사음악회를 연 경기도 양평 갈월사도 양평군민을 비롯 불자들에게 미륵불 참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으로 있는 등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동희스님과 제자들의 범패공연.


◇앵콜송 '신아리랑'을 열창하는 성악가 정률스님.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 음악회 연 보탑사 주지 지광스님



"여러분, 내년에는 철야음악회를 열어 봅시다!"

무대에 오른 주지 지광스님은 멋드러진 인사말로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처음 음악회를 연 이후 "스님, 올해 산사음악회는 언제쯤 하나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묻는 불자들과 지역민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사음악회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스님은 음악회 시작 직전까지 감마른 체구에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음악회 준비하랴 찾아오는 손님들 저녁식사 챙기랴 분주한 모습이었다. 사회를 맡은 이제진씨는 그런 스님을 "마음의 일주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보탑사 산사음악회를 진천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불자뿐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지는 산사를 찾아 부처님과 인연 맺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팔순을 넘긴 수경사 청오스님(맨 오른쪽)과 칠보사 석주스님(오른쪽 두번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연자들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 (맥반석, 옥 물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행복함! 바로 그 침대
특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3 유해전자파, 수액파괴, 핀드기 공포에서 완전 해방
4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5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클릭
▶검색어 (돌황토침대)
실용신안 등록 (제0188136)
상표등록출원(제20-3104)
"요람침대" (기존침대에 얹어 그대로 사용 보료로도 사용가능)
자매품 원적외선 BIO돌침대
자매품 게르마늄 돌침대
氣 리빙스톤
본사 · A/S : 02)424-9427, 2203-7821

## 다시 푸는 경서

### 달마 관심론(觀心論) ⑥

常修戒對貪毒 誓斷一切惡故
상수계대탐독 서단일체악고
常修定對瞋毒 誓修一切善故
상수정대진독 서수일체선고
常修慧對痴毒 誓度一切衆生故
상수혜대치독 서도일체중생고
由持如是 戒定慧等三種淨法故
유지여시 계정혜등삼종정법고
超彼三毒惡業 成佛道也
초피삼독악업 성불도야
以能除三毒 卽諸惡消滅故
이능제삼독 즉제악소멸고
名之爲斷 以能持 三聚淨戒
명지위단 이능지 삼취정계
卽諸善具足故 名之爲修
즉제선구족고 명지위수
以能斷惡修善則萬行成就
이능단악수선즉만행성취
自他俱利 普濟群生故 名之爲度
자타구리 보제군생고 명지위도
故知所修戒行 不離於心
고지소수계행 불리어심

항상 계행을 닦은 것은 탐욕의 독을 제거하여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한 때문이며, 선정(禪定)을 닦은 것은 성냄의 독을 제거하여 모든 선 닦기를 서원한 때문이요, 항상 지혜를 닦은 것은 모든 어리석은 독을 제거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정·혜의 세 가지 청정한 법을 지킴으로써 삼독의 악업을 벗어나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삼독을 끊으면 모든 악이 소멸되기 때문에 '끊는다' 한 것이며, 삼취정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갖추어지므로 '닦는다' 한 것이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모든 수행이 성취되어 자타가 이롭게 되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제도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행을 닦는 것도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三聚淨戒 自能成就
삼취정계 자능성취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도 청정해진다. 그래서 경에도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중생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아진다' 하였고, 또 '불토(佛土)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 하였다. 그러니 세 가지의 독한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삼취정계는 절로 성취되는 것이다."

若自心淨 一切衆生
약자정심 일체중생
皆悉淸淨 故經云
개실청정 고경운
心垢卽衆生垢 心淨卽衆生淨
심구즉중생구 심정즉중생정
又云 欲淨佛土 先淨其心
우운 욕정불토 선정기심
隨其心淨則佛土淨
수기심정즉불토정
若能制得三種毒心
약능제득삼종독심
常修戒對貪毒 誓斷一切惡故
상수계대탐독 서단일체악고
常修定對瞋毒 誓修一切善故
상수정대진독 서수일체선고
常修慧對痴毒 誓度一切衆生故
상수혜대치독 서도일체중생고
由持如是 戒定慧等三種淨法故
유지여시 계정혜등삼종정법고
超彼三毒惡業 成佛道也
초피삼독악업 성불도야
以能除三毒 卽諸惡消滅故
이능제삼독 즉제악소멸고
名之爲斷 以能持 三聚淨戒
명지위단 이능지 삼취정계
卽諸善具足故 名之爲修
즉제선구족고 명지위수
以能斷惡修善則萬行成就
이능단악수선즉만행성취
自他俱利 普濟群生故 名之爲度
자타구리 보제군생고 명지위도
故知所修戒行 不離於心
고지소수계행 불리어심
三聚淨戒 自能成就
삼취정계 자능성취

## 계·정·혜 청정한 법 지켜
## 삼독 벗어나 불도 이루어야

又問曰 如經所說
우문왈 여경소설
六波羅密者 亦名六度
육바라밀자 역명육도
所謂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
소위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今言六根淸淨 名爲六波羅密者
금언육근청정 명위육바라밀자
若爲通會 又度者 其義云何
약회통회 우도자 기의운하
答曰欲修六度 當淨六根
답왈욕수육도 당정육근
欲淨六根 先降六賊 能捨眼賊
욕정육근 선항육적 능사안적
離諸色境 心無固吝 名爲布施
이제색경 심무고인 명위보시
能禁耳賊 於彼聲塵 不令縱逸
능금이적 어피성진 불령종일
名爲持戒 能伏鼻賊 等諸香臭
명위지계 능복비적 등제향취
自在調柔 名爲忍辱
자재조유 명위인욕
자재조유 명위인욕

또 물었다. "경전에 말씀한 육바라밀은 육도(六度)로서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근이 청정한 것이 육바라밀이라 한 뜻을 알려주시고 또 도(度)란 무슨 뜻입니까."

대답했다. "육도를 수행하려면 육근을 맑게 해야 하고, 육근을 맑게 하려면 먼저 여섯 가지 유혹(六賊)을 내쳐야 한다. 눈의 유혹을 버리면 물질의 애착을 떠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지는데 이를 보시라 한다. 귀의 유혹을 막아 헛된 소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지계라 하고, 코의 유혹을 항복시키면 모든 냄새 따위에 분별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인욕이라 하며…

김원각〈시인·역경위원〉

# 큰 스님과의 대화

## 대정스님

범어사 선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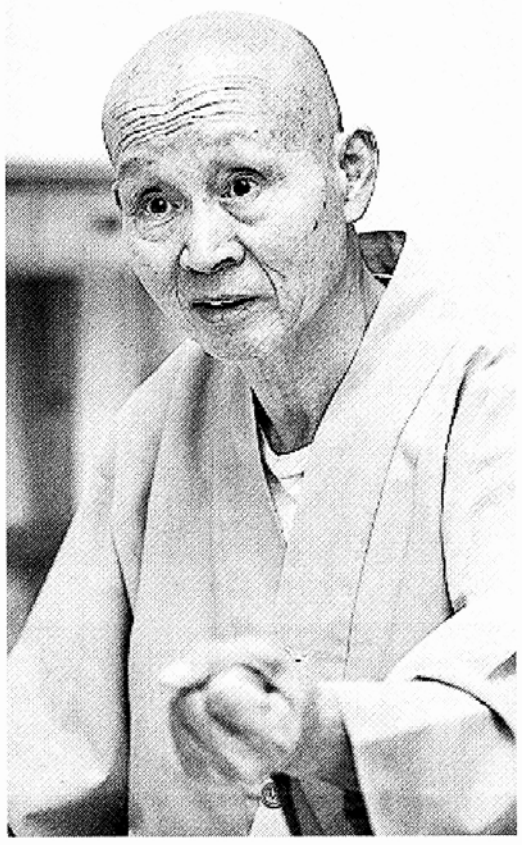
세상만물이 소리 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질푸른 녹음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속에서 보인다.

금정산 자락의 푸르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날, 쉴 휴(休)자가 두 번 겹친 휴휴정사에서 오히려 쉼 없이 수행에 전념하고 계시는 대정 스님을 뵈었다.

출가의 길에 들어선 그날부터 해제, 결제 따로 없이 불철주야 참선이 매진중인 스님께 화두(話頭)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었다. 화두는 무엇이고, 왜 화두를 공부해야 하는지, 올바른 참선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일러 주셨다.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만 웃음으로 답하겠다'는 게송을 읊어주신 스님은 "부처님 말씀이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방문이라면 선은 그 병에 직접 작용하는 약리 작용이므로 참선을 통해 모든 병을 한꺼번에 고쳐 버리라"고 당부했다.

# "우주인생의 의심 자체가 화두"



- 1931년 대구 生
- 46년 전북 금산사로 출가
- 59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범어사 등 선원과 모악산 지리산 등서 토굴수행 정진
- 범어사 선원장 역임
- 89년 이후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수행 정진 중

—선방의 용어인 '화두'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남북통일, 환경문제, 인간성 회복 등,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흔히 화두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를 나타내는 말인 동시에 몹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지요. 불가에서 화두의 본뜻은 무엇인지요?

▲화두는 우리 모두가 똑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화두를 다른 말로 하면 탐구심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공부는 탐구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두는 바로 의심이지요. 의심 자체가 바로 탐구심인데 같은 탐구심이라도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을 통하면 철학이나 학설, 학문이 되고 그것을 넘어선 순수한 의심이 화두입니다. 그 순수한 의심은 참본성을 밝혀 줍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것 자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화두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본래 있는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참모습을 보는 견성이며 견성하면 자연적으로 성불로 이어집니다. 화두는 단순하게 한마디이지만 그 이상 가는 법문입니다.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입니다.

—'무' '이뭣고' '뜰앞의 잣나무' 등 잘 알려진 화두 외에도 1천7백 공안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1천7백 공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팔만 사천이나 그 뜻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즉 법은 도의 원리를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교이고 도의 원리를 살리는 데는 선이 필요합니다. 선은 원래 말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말없이 연꽃을 들어 보이시고 마하가섭이 미소로 답한 경지를 대선지,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에는 천칠백 공안이 있으며 천 칠백 공안은 천 칠백 조사가 우리의 영원한 앞길을 위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공안의 뜻은 너무나 공정하여 삿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안이 천 칠백 가지라고 해도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이 하나이듯 내용은 하나입니다. 팔만 사천 법문이 달마의 직지인심(直持人心)을 벗어날 수 없듯이 천 칠백 공안은 육조가 말한 '시심마'를 벗어나지 않아요. 시심마는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지 못함을 의심하는 것에 1천7백개 공안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어요.

—만물의 주체인 나를 깨쳐 알 수 있도록 바른 참선법과 화두 참구법을 일러 주십시오.

▲화두는 의심이고 의심은 마음이니 마음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참선하는 데에도 때와 장소가 별도로 없겠죠. 그러나 중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도 냄새 맡고 느끼고 아는 습기(習氣), 즉 번뇌망상이 꽉 차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어떤 공간이나 선방, 법회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을 찾아 우선 대웅전 부처님처럼 앉아 보십시오.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게 앉아 이제 화두, 즉 큰 의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화두는 근본을 가지고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이나 말로서는 안됩니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조주 스님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분명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의 법을 받은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알지 못함이 바로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함에 아는 것이 오면 의심이 안됩니다. 의심은 의심으로 풀어야지 아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상식이나 지식으로 변할 뿐 참된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의심을 의심으로 풀지 않고 아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조금만 벌어지면 점점 갈수록 벌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활구, 사구는 바로 이러한 차이를 말합니다. 활구는 마음의 안정, 선정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깨끗해져서 맑고 고요한 가운데서 의심만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물이 썩고 더러우면 고기가 못사는 것과 같이 의심 또한 마찬가지며 이를 사구라 합니다. 화두를 바로 하면 계,정,혜 삼학이 갖추어져서 활구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익힌 습기가 있어 화두일념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익힌 습기가 자꾸 스러지고 바뀌게 됩니다. 중생의 마음이 스러지고 불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면서 의심이 곧 의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두일념이 즉 한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화두일념 이 하나마저 사라지면 확철개오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우주와 인생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주인생의 의심 자체가 화두입니다. 우주와 인생에 대한 의심으로 선을 해서 도를 성취했고 그것을 통해 부처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수행하여 깨닫고자 발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간절한 신심으로 공부를 시작하지만 망상, 졸음, 상기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중생들은 미혹으로 인해 갈등, 욕구가 생기고 여기서 탐진치가 나오게 됩니다. 탐심에서 진심이 나와 마구 훔치고 죽이고 마구 범하고 속이게 되며 이것이 근본원인이 되어 인과응보의 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탐진치가 바로 중생의 문제입니다. 특히 화두 공부하는 이에게 오기 쉬운 장애로 상기(上氣)가 있는데 상기 또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억지로 몰아 붙이니까 화가 치밀어서 머리가 아픈 것이니 마음에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속성으로 하려고 하니 몸은 한계는 있는데 마음만 몰아 붙이지 말고 한계가 오면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서서히 해 나가십시오.

탐진치를 없애는 가장 첫걸음은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는 인간의 양심입


생식은 사람의 체질을 건강하게 도와주며 몸의 균형과 다이어트식 자연 식사법입니다! 건강한 생식 다이어트 생식

희소식 아침식사 준비 끝!

아직도 주부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인스턴트가 아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수마을 생식은 화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6배, 먹기좋고 맛있는 아침식사가 되실겁니다.

21세기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사혁명이 필요하며 그 방법론적인 대안으로서 생식을 제시한다.

다이어트와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께!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요.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를 하세요.
꼭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주세요.


식품공학박사 유 태 종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역임
· 독일 미인츠대학 교환교수 역임
· 식생활개선 국민운동본부 부회장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역임
공업 진흥청 KS위원
前 建陽大學校 敎授
前 食文化硏究院 院長

생식이란? 인간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 또는 왕성한 활동력은 생명력에서 얻어지는데 생명력을 얻으려면 생명력이 있는 식물을 먹어야 한다. 생식이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한가지만 지적해 보면, 우리의 몸에도 있으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로도 사용하기 위함이다.
생식은 옛날부터 도인, 선승(禪僧)등이 즐겨하던 식사방법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에서는 대부분 생식을 생활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혼자와 같은 장수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생과일과 과일채앗을 즐겨 먹고 있으며 씨를 맺는 식물을 생식할 경우 장수하는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리산 청학동과 같은 장수마을도 생곡물, 생야채 등으로 주식을 삼는것을 볼 수 있다.

건강을 꿈꾸세요~ 아침엔 생식이 있으니깐요!
건강한 아침 장수마을 생식으로 살아있는 기(氣)를 그대로- 활기찬 건강!

장수마을 생식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윤택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제품은 순수 국내산 곡물이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남여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안전하고, 정확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요령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 동물성고기와 지방, 소금은 가급적 줄인다.
▶ 저장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되도록 피한다.
▶ 검게 탄 음식은 먹지 안는다.
▶ 영양을 균형있게 맞추어 식생활을 한다.

언론보도
◆생식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일간스포츠 '96년 11월 7일
◆생곡류를 이용한 다이어트방식이 세계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목! ——→ 중앙일보 '97년 5월 10일
◆사람을 생명~ 생식의 모든것 ——→ 일간한맘과 건강 '97년 9월호
◆나의 생식이 다이어트 성공... ——→ 라벨르 '99년 1월호
◆21세기 생식 다이어트법 ——→ 여성중앙 '99년 1월호
◆생식을 했더니 미용에... ——→ Queen '98년 1월호

장수마을 자연생식은!
현미, 보리, 알파미분, 알파현미, 미강, 옥분, 율무, 수수, 차조, 검은콩, 흰콩, 참깨, 검정깨, 볶은팥, 케일, 고구마, 양배추, 다시마, 당근, 사과, 포도, 쑥, 솔잎, 표고버섯, 김, 유산균, 맥주효소, 올리고당, 죽염, 화분등 30여종의 자연식품

생식 다이어트에 건강이 보인다.
• 살을 빼기위해 굶어야 하는 고통이 없다.
• 몸속을 깨끗이 비워주는데 도와준다.
• 먹고 싶은 욕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 생식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있다.
• 체질개선에 생식이 좋다.
• 먹기 편안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장수마을 생식의 특징
• 생식은 화식보다 인체내의 에너지 효율이 6배나 높아 소식(少食)으로도 왕성한 생활이 가능하다.
• 생식인은 1일 필요 칼로리의 1/3만 섭취해도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다.
• 과식으로 인한 비만의 걱정이 없고 안전하다.
• 식이요법이 필요하신분에게 좋다.
• 먹기도 좋고 맛도좋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 아침식사를 못하는 바쁜 직장인의 건강한 먹거리.

최근 생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식(火食)보다는 살아있는 음식을 찾는 생식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 나오는 약식이동원이라는 말처럼 음식은 바로 질병의 치료하는 약의 개념이며 대체의학의 하나인 식이요법은 이에 근거한 개선방법입니다. 생식을 통한 체질개선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현대인의 만성피로회복
· 각종 통증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 피로를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하여 해소해 줍니다.
·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비타민A,B,C,D,철분,칼륨,칼슘,망간,마그네슘,구연산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유태종 장수마을 생식 출시기념 특별홍보가

1개월분
▶30g × 30포
▶출시기념 특별홍보가(사은가)
☞ ₩80,000원(일시불)
▶분납가 : ₩29,600 × 3개월 (89,000원)

2개월분
▶30g × 60포+10포
▶출시기념 특별홍보가(사은가)
☞ ₩159,000원(일시불)
▶분납가 : ₩35,600 × 5개월 (178,000원)

특별보너스 2개월분을 주문시 10일분(10포)을 무료로 더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처 : 080-565-8989 〈상담전화는 전국 무료 전화〉
♥ 24시간 연중무휴 ♥ 지금 상담하세요. ♥

찬스! 단! 특별 보급가로 할인해 드리는 것은 홍보기간에만 한하며, 드셔보시고 효과에 만족하시면 주변에 선전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 “화두는 의심이고 의심은 마음이니 때와 장소 따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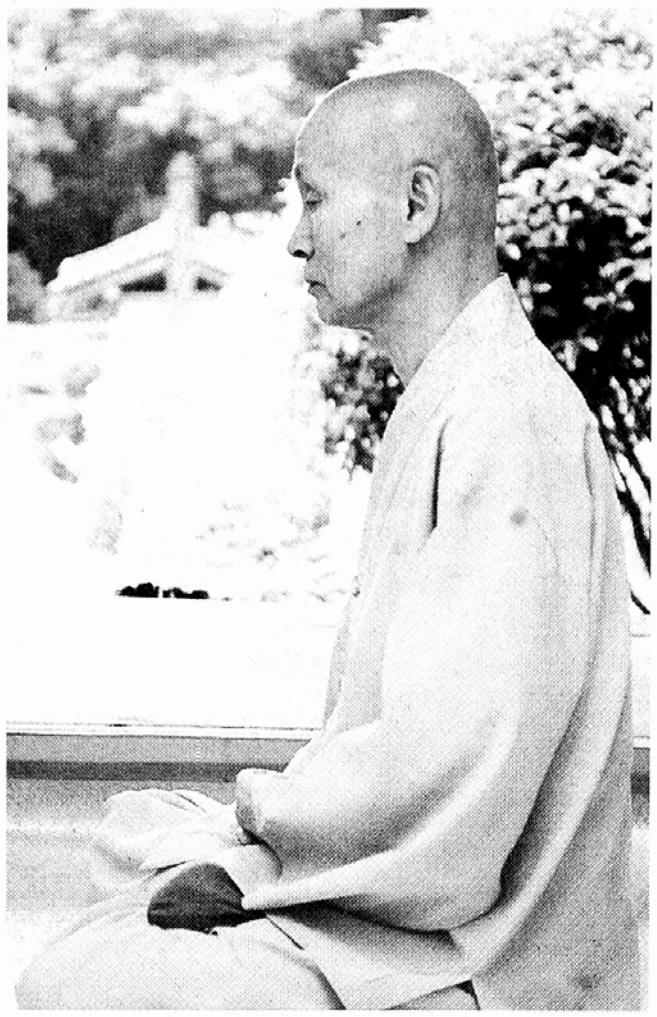
니다. 양심이 없으면 본심이 안 나옵니다. 본심이 바로 선, 화두입니다. 본심에서는 덕이 나오며 덕이 있어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만이 큰 도가 나오지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도는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공부는 참된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니 평소 양심을 살려 생활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실천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의 장애를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참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지켜 참된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기본부터 착실하게 다져 가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허운 화상께서도 도를 이루는 선결요건으로 계를 엄히 지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면 되겠습니까?

▲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양심을 살려나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회의 모든 법도 그러하고 도덕도 모두 양심을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종교의 근본도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밝으니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편하니 안정이 되고 착하지 않으면 어둡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살도록 양심을 살려주는 것이 계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근본 질서가 안 잡히게 됩니다. 계는 사무량심(四無量心)에 다 속해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한없는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는 네 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자무량심(慈無量心)은 한량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비무량심(悲無量心)은 남의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喜無量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희열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이며 사무량심(捨無量心)은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미워하는 자와 좋아하는 자의 구별을 두지않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무량심은 요즘말로 말하면 사랑 이해 협조 양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 수련회가 열리고 참가 열기도 대단합니다. 여름 한철, 속진을 떠나 수행에 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모두 글씨를 배웠을 게요. 그 글씨 하나 배우는데도 처음부터 잘되지 않아요.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학문제도 처음에는 안 풀리다가 꾸준히 풀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 풀이법을 알게 되고 다른 문제도 풀게 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처음 공부에 임하는 이들은 자신 속에 깊이 감추어진 보석을 캐내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 앉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던 몸을 가만히 앉혀 놓으니 뜻대로 잘 되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저것 하고 싶었던 마음, 여태껏 지어왔던 습기 등 일체를 내려놓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화두에 앞서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차린 후에 참선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지금 사찰에서 하고 있는 예불, 기도, 독경, 참회 이러한 것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불은 공경, 하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참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는 죄를 없애주며 기도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염불은 부처를 생각하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인데, 부처님은 나의 마음과 같으므로 내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불, 기도, 염불,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대웅전 부처님처럼 떡 앉으면 절로 의심이 들고 마음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워 내면 화두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차츰 묘리가 터득 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련회 기간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다 보면 단시일 내에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간동안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계를 잘 지키고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심어두었던 씨앗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것 자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화두를 함으로써 본래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대정스님.

## “공부하세요…한결같이 꾸준히”

## “양심대로 살게하는 것이 지계”

—깨달음이나 수행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보거나 생활과는 동떨어진 신비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음은 출가 수행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깨달음에 승과 속의 구별이 있는지요?

▲부처님 법을 멀리 현실 밖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현실 밖의 일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 일상을 벗어나 법이 있지 않으며 중생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속인도 올바른 참선하면 성불하는 것이고 중도 아무리 출가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와 상관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님이 되었으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쓰고 정신을 맑혀서 뜻을 살리지 못하면 속인과 다른 것은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고 동물과 다른 것은 네발로 걷고 두발로 걷는 것의 차이밖에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탐진치로 가득차 있으면서 머리만 깎은 스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뜻을 살려서 부처님 법을 이어야 올바른 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통일, 환경오염 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화두는 무엇이며 그 국가적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고 남과 북의 외형상의 통일로만 이해해서는 안돼요.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남북, 동서, 개인 각각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화합은 나를 내세우거나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심, 공경, 평등의 마음에서 화합은 절로 나옵니다. 서로가 믿고 가능하면 아집을 타파하고 오직 사랑, 이해, 양보하는 사무량심을 살려내야 하지요. 동서화합, 남북통일, 세계평화 등 멀게만 보이는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께 찾아와 화두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스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주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고등 교육으로 아는 게 많아서 진실한 의심이 잘 안되요. 알음알이가 끼어 들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 우선 내가 누구인지 그 의심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르고 살아온 나를 밝혀 알기 위한 것이 바로 화두 입니다. 내가 뭐꼬 하고 간절하고 간절하게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우주 인생의 진리가 모두 한꺼번에 해결되니까요.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 ■모모 스님

법명 밝히기를 꺼려하여 그냥 ‘모모(某某) 스님이라고 해둔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다. 나는 모모 스님의 언행을 통해서 그를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간혹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도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마음 속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님을 처음 뵌 것은 내가 해인사 율원에 몸을 담은 시절이었고, 스님은 선원장을 맡고 계셨다. 인간적이라는 게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나는 그런 스님이 좋았다.

“지묵 스님, 〈전등록〉에 이런 말씀은 … 내 가방 끈이 짧아서 잘 몰라요. 하하하”

모른다고 쉽게 말씀하신다. 어른 티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백련암 방장 스님을 뵙고 대화한 내용을 들려주는 등 늘 솔직한 말을 해주셨다. 참선공부에 관해서도 스님이 아는 건 대체로 드문드문 들려주셨다. 문답한 내용이 지금이야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실감이 나서 두 귀가 쫑긋 섰다고 느낄 정도로 열심히 들었다.

### 인간적이고 공부 열심
###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덕

한번은 선방에서 산행을 가는 날이었다. 결제 후 한달 보름이 지난 날로 반 살림 날이면 으레히 가고, 7일 용맹정진 후에도 꼭 산행을 한다. 이때 일이 터졌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일처리에서 선원장스님이

“안 된다면 안 돼!”

하고 강하게 반대하셨다. 완강하게 말을 꺼내면 일단 밀어붙이시는데 그게 참 묘하다. 다른 스님이 밀어붙였다가는 소동이 날 일인데도 선원장스님의 말에는 모두 쥐 죽은 듯이 잠잠해진다. 주변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게 끌고 가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그래도 이런 완강한 주장이 한철 90일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다.

모모 스님의 주위에는 좌우보처(左右補處)로 든든한 스님들이 턱 버티고 있다. 삼국지에서 유비 덕인(德人) 곁의 관우 장비 같은 중량급 장수가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게 다 통솔력이고 덕화(德化)가 아닌가 한다. 스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랬지만 그 이후로는 한번도 뵐 수가 없었다.

모모 스님은 내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여서 신뢰가 간다. 몸이 아픈 기색이 보이면 약으로 산해진미 공양을 시켜주신다. 아아, 그런 형 같으신 스님이 쉽질 않는데… 후배 앞에서 당신의 약점을 내보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선원 방함록의 최초 참간이랄까 출발은 모모 스님이 주축이 된 걸로 안다. 총무원이 주관해서 발행해 오던 결제 방함록은 그때부터 해인총림 선원으로 그 발행처가 옮겨졌다. 당시 소란스런 총무원을 싫어해서 결제 수좌 만의 방함록이 독립되어 나오게 된 것이다.

또 한번 모모 스님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소란스런 총무원이 넘어지고 수좌 만의 가풍을 살린다고 해서 총무원장, 그 이하 요직 부장을 조계사 주지를 포함해서 선방 스님들이 소임을 산 때가 있었다. 모모 스님도 총무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여름에 물에 헤엄치러 들어갔다가 빠져서 입적한 휴암 스님은 그 때 조계사 주지 겸 재무부장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오래가지 않았다.

“총무원에서 일하시는 스님네가 정말 존경스럽다.”

하야(下野)의 변(辯)치고는 의외였다. 법문 중의 이사불이(理事不二) 세계는 공염불(空念佛)인가. 누구나 현상계에서는 역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총무원 스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선방에서는 총무원을 우습게 여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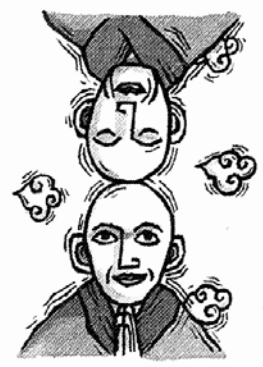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총무원이 썩어 빠졌어!”

“사판승은 무엇을 하는 작자들이야!”

때로는 지대방 안에서 이렇게 입방아를 찧는다. 그러나 정작 맡아서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모모 스님 역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理事)는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들구나.”

행정 능력은 기초부터 다져진 이가 아니면 안 된다. 평생 수좌로 참선만 하고 지낸 이에게 총무원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대충대충 업무를 보게 된다. 공부인은 공부만이 능사(能事)이다.

모모 스님은 역시 요지부동한 자세가 기억에 남는다.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 등 모두가 위엄이 있다. 공양을 할 때에는 시선이 밥 하나에만 집중된다. 목석 같다.

나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큰방 발우 공양 시간에 모모 스님이 늘 머리에 떠오른다. 인상이 깊은 탓일 게다.

숲 속에 들어서도 모모 스님의 향기가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 모모 스님의 훌륭한 인품은 늘 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랐다. 하여튼 모모 스님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덕(禪德)중 한 분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렌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액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



◇개울에 의해 남원과 북원 영역으로 나뉘어졌음에도 서로 공간적으로 연속된 절묘한 구성을 갖고 있는 마곡사.

# 끊김과 이음의 조화미 압권

## 마곡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30

'봄 마곡, 가을 갑사'라는 말이 있다. 공주에 있는 마곡사의 화려한 경관을 칭송하는 말이다. 약간은 처연하여 가을 분위기에 잘맞는 갑사와는 달리, 마곡사의 건축과 경관은 자유분방한 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가람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개울이다. 개울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별도의 두 개의 가람이 자리 잡았다. 이런 모습은 대구 동화사나 의성 고운사와 같이 큰 사찰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마곡사 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람의 배치방법은 다른 어떤 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곡사 만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다.

개울의 남쪽에는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가람이, 북쪽으로는 대광보전 중심의 별도 가람이 경영되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북쪽 가람의 영역은 개울의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영산전 영역의 일부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산전 영역 앞에 있는 해탈문과 천왕문은 북쪽 가람에 속하는 전각들이고, 이 문들은 개울을 건너 북쪽 가람의 중심과 관계를 맺는다. 개울에 의해 분리되었으면서도 공간적으로는 연속된 절묘한 구성인 것이다.

마곡사의 정확한 창건 년대는 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람의 면모를 갖춘 것은 신라말 보조선사 체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크게 중창됐다니, 현재와 같은 2원 체제는 지눌의 중창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조 체징의 초창 때에는 지금의 남쪽 가람인 영산전 일곽(남원)만 조성되었다. 남원이 먼저 조성됐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원은 4동의 건물이 기하학적으로 짜임새있게 갖추어진데 비해, 북쪽 가람(북원)은 계속 확장된 흔적이 역력하다. 북원으로 가려면 북원의 뒷통수를 보며 길게 돌아 들어가야 하는 비효율적 어프로치다. 남원이 먼저 자리잡았고, 거기에 맞추어진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였다.

북원의 입구인 해탈문의 위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탈문은 영산전으로 이르는 진입구를 바로 지난 곳에 자리잡았고, 영산전 방향과는 직각으로 놓여져 북원을 향하고 있다. 기존 영역의 진입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새 진입로를 시작해야 하는 경계점에 해탈문이 위치한 것이다.

### 개울 지나는 불리한 지형 입체적 설계로 단절 극복

무엇보다도 남원은 가람 배치에 안정된 지형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라말 중수의 대가 도선대사는 마곡사의 터를 이렇게 말했다 한다. "삼재가 감히 들지 못하는 곳이며, 유구와 마곡 두 냇물 사이의 터는 능히 천명의 목숨을 구할만 하다." 그 두 개울 사이의 터가 바로 영산전이 자리잡은 남원이다. 안산과 주산을 잇는 자연축과 영산전의 건축축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연축과 건축축이 일치한다는 것은 지형체계가 교과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원의 건축축은 자연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진입로는 자연축 - 대웅보전의 뒷산의 방향 - 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자연축을 따라 가람을 배치할 수 없었다. 전체 대지의 동남쪽 귀퉁이에서 진입해야 함 형편이지만 주산은 서북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원을 계획한 건축가는 지형의 약점을 오히려 기막힌 계획요소로 활용했다. 어차피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진입로를 적극 활용해 매우 입체적인 경관을 얻을 수 있었다.

다리를 건너 북원에 이르면, 5층탑과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은 정확한 일직선상에 놓인 것 같이 보인다. 이 장면에서는 치우친 진입로나, 서쪽으로 밀려들어간 건물들의 축선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개울 건너편 국사당이 있는 언덕에서는 전혀 다른 경관이 구성된다. 모든 건물이 가장 뒤의 대웅보전을 위해 길을 열어둔 듯한 모습을 대할 수 있다.

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두 가람이 만들어졌는가의 해답은 간단하다. 확장할 공지가 북원지역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북원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지였다. 기존 영역과는 개울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지형의 체계도 건축에 그리 유리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진입로와는 반대의 방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였다. 그러나 해탈문과 천왕문을 남원 지역에 세운다는 아이디어와 진입축과 지형축을 시각적인 장면으로 결합한 탁월한 솜씨로 인해 매우 입체화된 가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주어진 조건이 어려울수록 명건축이 탄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문제가 까다로우면 그것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와 실험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마곡사는 지형의 불리함을 오히려 창의적인 건축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위대한 건축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 "수행력 길러야 사회운동 발전"

재가연대등 불교단체 공동워크숍

불교 NGO 免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유정길 국장



◇윤남진 실장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등 불교단체들은 공동으로 8~9일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불교단체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국제화, 지역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불교단체의 내적 상황을 진단하고 활동방향을 토론하며, 종단의 종책방침과 지원방향을 정리해 보는 내적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변화하는 대외적 상황에 불교단체와 종단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 가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NGO조직의 자기 진단법(송혁관 KHIN컨설팅 소장),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전략(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불교단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목적도 포함됐다.

강의와 포럼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NGO활동의 변화된 환경과 종교NGO의 역할과 책임'이란 발제문을 통해 "한국불교사회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행의 힘과 사회운동의 힘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면서, "불교NGO 종사자들은 '나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보살 정신으로 인류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생명운동으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사회개조와 자기개조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운동"이라고 전제하고, "오늘날 이윤추구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종교밖에 없기에 종교NGO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영적인 경건과 탐욕에 대해 절제, 선택한 가난, 주체적인 청빈, 그리고 천박한 유물주의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운동의 과제는, 그것이 그대로 종교성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사회운동에서 운동성과 종교성은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종교적 수행과 경건, 절제와 신앙심이 환경위기시대에 윤리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문제등 종교NGO 역할 막중 종단서 시민사회단체 육성 필요

이어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기성교단과 자생적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재 기성교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상호발전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실장은 이를 위해 (가칭)'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불교시민사회교육 지원법'을 종단에서 제정할 것과,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불교단체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실장은 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으로 다음 6가지를 제안했다.

①사회분야 정책결정 단위인 (가칭)불교시민사회교육위원회의 설치 ②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명'(작업과제)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의 등록 접수 ③종단의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시민사회교육 지원 ④불교시민사회단체 전문활동가들에 대한 종립학교 교육비 혜택 등 전문화교육비 준비 지원 ⑤(가칭)시민사회기금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기금 출연자에 대한 종단적 의무(분담금 등) 감면 혜택 ⑥유휴토지와 건물에 대해 시민사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무료 혹은 실비로 입대할 것 등이 그것이다.

한편 송혁관 KHIN컨설팅 소장은 강의를 통해 21세기 풀뿌리 시민활동가상을 "공익지향의 네트워킹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헌신적 시민사업가"라고 정의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실직노숙자들이 실상사 앞 개울에서 '천연 염색' 실습을 하고 있다.

## "불심으로 재활 꿈 다졌어요"

### 아침을 여는집 노숙자 귀농체험 알선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 산하 아침을여는집은 3~6일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실직노숙자 16명을 대상으로 흙과 공기와의 교감을 통해 재활의 의지를 다지는 귀농체험을 실시했다.

실직노숙자들은 3일 오후7시 입재식을 가진 후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귀농전문학교장)의 '생명살림의 장으로서의 실상사' 강의를 듣고 3박4일동안 노작, 체육대회, 불교예절 익히기, 서로 알기, 천연염색 배우기, 지리산 댐 예정지 및 문화재 답사, 인생설계 발표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와 귀농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七日간 철야 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바 보림三願(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話目來 錄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勿 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聽者何物 若論今日事 勿忘舊時人)을 主題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앞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活句 大乘禪을 薦揚 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0년 7월 31일(월) 오후 8시부터 8월 6일(일) 오전7시까지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회 비 : 일반 7만원(1일1만원 기준)
▲연락처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교 재 : 보림삼관,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테이프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 1, 3, 5, 5-1, 16, 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앞 하차(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 산
보림회 회장 하동인 합장.

## 천 황 사 약 초 선 식

(약초농장 직접 재배함) 발명특허 13629호

1999. 8. 7. MBC고향은지금(방영) ▶박연스님





깊은산속에서 채취한 100종류의 약초와 천상두 9증9포 오랜 법제기간을 거쳐 10년에 천상약초선식을 1999. 8. 7일 MBC방송 고향은 지금에 방영된바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히트적이여서 불제자님 전화문의가 빗발쳤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천 여년의 德家선식 (원효대사약초 비법)으로 환 및 가루선식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오장육부, 일체질환, 체질개선, 간염, 간경화, 간암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사례 ◆
1. 속이 쓰리고 아프며 더부룩하며 장의청소, 변비
2. 비만, 다이어트 최고 (생리불순, 냉대하)
3. 얼굴이 예뻐져가는 약초(백지화초) 기미, 죽은깨
4.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분 천건
5. 각종암 기관지 천식, 우울증, 정서불안

◆ 허가번호 부수영위 45-1 ◆
▶약초선식(100가지) 십팔만원
▶프로로알원(로얄제리+프로폴리스) 십구만원
▶장뇌산삼(1999. 8. 7. MBC 방송 고향은 지금) · 신비의 영약 직접재배함 · 불로장생 이십오만원
▶당뇨선식 · 갈증해소, 합병증 예방 · 탁월한 효과 십구만원

우체국 601039-02-026092. 예금주 정광채
♣주문신청 : 051)723-1333 / 011)852-3357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시랑리 13-1 (천황사 약초농장)

## 선암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300년을 이어온 청정 도량 선암사에서
3박4일간의 출가수련으로 고요하고 맑은
처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바다에 한송이 연꽃피우소서

선암사 일반인 수련회 일정

| 기 간 | 연 령 | 인 원 |
|---|---|---|
| 1차 7/15 ~ 7/18 | 20~60 | 80명 |
| 2차 8/5 ~ 8/8 | 20~60 | 80명 |
| 3차 8/12 ~ 8/15 | 20~60 | 80명 |

숲속 어린이 수련학교 일정

| 기 간 | 연 령 | 인 원 |
|---|---|---|
| 7/22 ~ 7/24 | 9~13 | 100명 |

▶장 소 : 선암사 관음전
▶참가자격 : 불교신자, 무종교자
▶수련회비 : 일반4만원, 어린이 1만 5천원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지참
▶도착시간 : 오후 2시까지
▶접 수 : 3일전 접수 마감 (전화접수가능)
▶전화접수 : 051)803-7573, 803-7522
▶선 암 사 : 부산은행 : 054-12-084085-0
포 교 부 국민은행 : 116-01-0396-848(선암사)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 암 사
주지 원 타 합장

웅진코웨이에서 2000년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렌탈사업에 동참할 지부장 후보을 초빙합니다.

## 支部長후보자 (사업) 설명회

### 지부장이란?

웅진코웨이는 독립채산 성격인 지부 단위 사업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지부는 회사가 일용한 지부장에 의해 경영하고 있으며 제반사업 여건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 장 점

자본 부담이나 실패에 따른 두려움없이 자영사업의 보람과 능력만큼의 소득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98년 5월 렌탈사업 착수에 힘입어 다른 어느때보다 활기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지 부 장 임 용

일정한 과정을 걸쳐 3개월 전후하여 임용되거나 특채 또는 특전에 의해 조건없이 임용됩니다.

♣자 격 : 서울, 경기지역 거주 35세이상 59세 미만 남·녀
※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근면 성실한 사업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접수일자 : 2000년 7월 3일 ~ 7월 5일(3일간)
♣설명회일시 : 2000년 7월 4일 ~ 7월 5일 11:00
※구비서류는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면접시 작성합니다.
♣입무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불자님 우대합니다.
♣접수 및 문의 02)734-1058

WOONGJIN 웅진코웨이개발 (주)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나' 공한 줄 알고 '나' 없애는 공부해야

## 병속의 새 꺼내는 방법

**문** 병 속에 새를 넣고 길렀더니 이제 그 새가 날아갈 만큼 커져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 병의 입구는 좁고, 어떻게 그 새를 꺼낼 수 있겠는가 하는 공안(公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속의 새를 꺼낼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 사는 것이 병 속과 같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로워지면 누가 꺼내주기 이전에 스스로서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자유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병에서 새를 꺼내려고 하니 꺼내집니까, 그게? 즉 말하자면 내 자성불이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 소리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한생각에 다 거치신 겁니다. 그리고 행을 하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만났어도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실천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조그마한 일이면서도 그 일로 인해 지구의 공기막이 터지는 일도 메꿀 수가 있는 그런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조그마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병 속의 새가 점점 커지는 걸로 비유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몸뚱이가 병이라면, 병 속에 새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면 그 새는 저절로, 여러분이 커질 때는 저절로 나고 드는데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없이 나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꺼낼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죠. 선지식들이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 얘기가 다 나오고 새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마음 깊이 헤아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영혼의 존재 알고 싶습니다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대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에 속하는 것입니까? 사대에 속한다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사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만물은 환생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남아 있다가 환생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남아 있다가 환생하고, 또 죽고 환생하고 하는 일을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한다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환생하지 않을 때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두루 존재합니까. 부모가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을 참구하다가 육신은 만물 속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가 육신에 깃드는 것인지를 모르겠기에 이렇게 여쭙니다. 영혼(마음)과 육신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영가천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마음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연따라 경계가 나타나면 나타내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경계와 둘이 아닌 하나인가요. 그래서 만물이 모두 불법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답**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 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인연을 맺죠? 악한 인연도 선한 인연도 모두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그 모든 것이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의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또는 인과성·윤회성·업보성·세균성·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합쳐친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인연 삼아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정자 난자를 택합니다. 택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깡통에게 갈 것은 깡통에게 가고, 금한테 갈 것은 금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족이 되는데, 몸 속에도 가족이 되고 바깥에도 가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깡통은 깡통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납니다. 이렇게 구성됨이 철두철미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본체가 있습니다. 근본 본체.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불성 자체가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불기둥이라 한다면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일체 만물이 자라는 그 땅과도 합류화 돼 있습니다. 천지가 합류화 돼 있듯이,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생사윤회 모든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그 능력은, 심봉이 들어가야만 뵙니다. 그래야 바퀴가 구르죠. 그러나 바퀴를 퀸 그 심봉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바퀴만 굴러가게끔 그 힘을 배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성은 움죽거리질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돌아가는 바퀴는 우리들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바퀴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쁘게 감기고, 또 좋은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선으로서 좋은 것이 감기게 되는 거죠. 즉 입력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 그리고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근본 불성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되, 선하게 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 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바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일러드리는 그 자체입니다. 왜냐?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천도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사람한테 밟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하며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 아픔이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느 거든 고통의 쓰라림을 겪지 않는 생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인간으로 살던 차원대로, 죽어도 그 차원대로 있습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좀 더했다 덜했다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부딪침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한 그릇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한 그릇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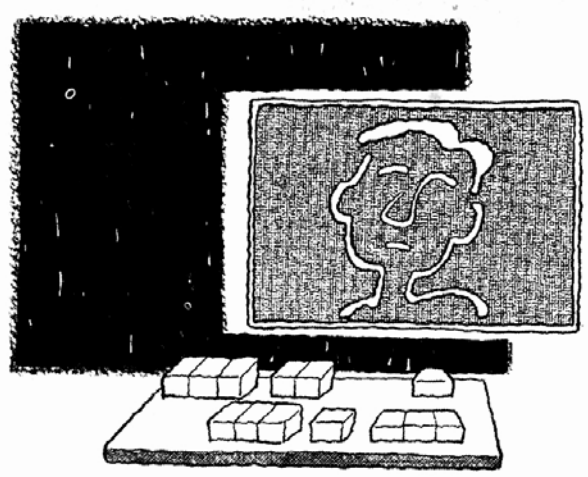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밖으로 찾지말고 근본에 믿고 놓도록

## 누가 보고 듣고 걷고 있나 참구하세요

처사님이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나를 발견해서 이 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리 저리 끄달리면서 살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올지 짐승으로 올지도 모르면서 세세생생 끌려다닌다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 궁금해하는 마음이 나오면, 밖으로 그 답을 찾아 헤매기 이전에 근본에 다 되놓고 거기에서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맡기세요.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 방황하면서 언제까지나 끄달리면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 무생물도 진화를 한다는데…

**문** 저는 미생물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책으로나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무정물들은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무정물인 체로 있었으면 좋을 걸 무엇 때문에 진화를 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거듭되는 생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정물도 저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 역시 거듭되는 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 차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무정물이라고 해서 진화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존재하든 물질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사윤회의 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천천히, 더욱 느리게 윤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번뇌 망상, 어떤 것인들 끊으려고 한들 그게 끊어집니까, 어디. 녹여야죠. 그리고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억울한 일이 생겼다, 아프다, 자식이 나가서 안들어온다,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다면 일어날 리가 없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에 상대도 생기고 세상도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없애는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공한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정수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어디다 하소연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것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 새로운 입력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되놓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풀려 나오겠죠. 녹음테이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되집어서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되놓을 때에 바로 새 입력이 들어가서 과거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에 나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것이 다 그 공법안에 들어있거든요. 현재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불을 못해요. 성불이라고 이름 부르기 이전에 자기 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지구라는 주머니 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또다시 반복되면서 수레바퀴처럼 굴러다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끄달리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사실 생각한다면 사람 뿐만 아니죠. 땅 속에서 사는 생명들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들 모두 살고 있는지. 축생들도 얼마나 처참하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생명을 다 바치면서도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좀더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게 되면 길에 오고 가면서도 축생도 건지고 사람도 건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능히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몸을 받아 있을 때 정말 나와 남을 돌아니게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 '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반야경을 우연히 보다가 그 도리가 마음에 와닿아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야경에 나오는 '공'에 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반야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였는데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하였는지요? 그리고 그 일체가 공한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요?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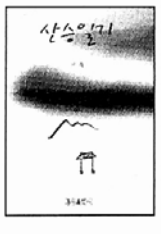
**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다 되놔라.' 하는 뜻입니다. 몸이 일할 때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에 힘쓰고 계신
지묵스님의 글모음집

산승일기



《산승일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절집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소묘라 할 수 있다.
선방생활, 총무 소임, 여름철 수련법회 원장 등을
지내며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자들과 접촉이 잦았던 지묵스님은
그간의 절집에서의 경험을 넉넉한 입심으로 풀어낸다.
법정, 성법명, 종철 스님의 이름과 관련한 일화와 전강, 구산, 고암 등
큰 스님들의 비화 등 얘깃거리가 풍부하게 담겼다.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담은
'여름 수련회' 편은 올 휴가철에 '짧은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소재가 될 듯하다.
- 경향신문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신국판/288쪽/8,000원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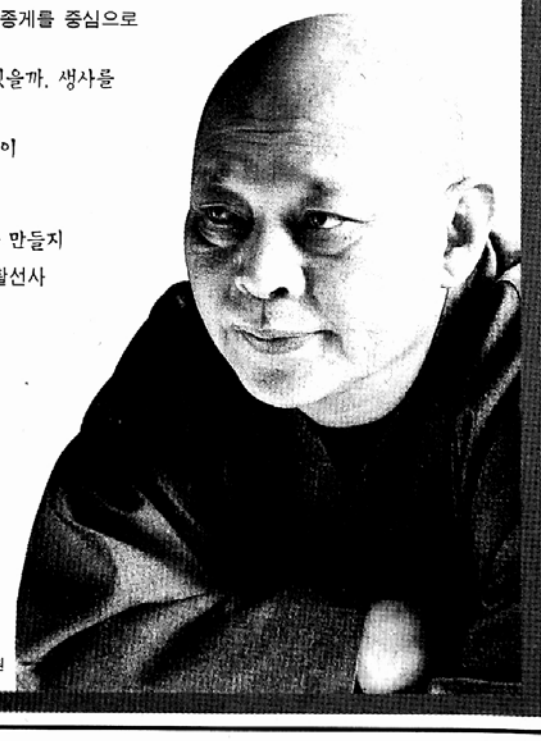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게를 중심으로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탑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활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 적멸의 즐거움 본문 중에서



우리출판사 전화/313-5047 팩스/393-9696
신국판/240쪽/7,000원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 근본 같지만 마음따라 삶 달라져요

☞ 15면에서 계속

바로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몸이 돌아가는 거는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건 생명으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없어도 아니 되죠. 우리가 마음내는 분별이 없어도 목석일 것이고 우리 몸뚱이가 없어도 남이 볼 때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건 무효고,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삼위일체가 구성돼서 회전을 하니까 어떤 거를 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인공이라고 한 거고, '공이다' '없다'고 한 겁니다. 반야경에서 말한 것도 역시 꽉 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했지, 없어서 공이라고, 허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볼 뿐이고, 그냥 들을 뿐이고, 그냥 갈 뿐이고, 그냥 디딜 뿐이고, 그냥 움죽거릴 뿐이지, 남는 것이 없어요. 떼어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어떤 놈이 움죽거리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공한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선장이 있다면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 방 통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리를 깨우쳐서 살아나간다면 그 가정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안에 불 하나만 켜도 모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한마음이 밝으면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마음공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문** 스님, 언제나 둘 아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 모두가 이 생에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세세생생 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마음공부를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전생의 습에 의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미망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우리 사는 게 늘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공부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면, 그렇게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예는 없고, 또 지나간 날에 대해 후회를 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새물로 바꿔 쓰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랜다고 갖다 끼우면 그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렇게 내 앞에 걱정이 되어 닥쳐오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이 과거부터 지어놓은 인연에서 오는 생각이든,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이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잖아!"하고 바꿔서 놓는 겁니다. 이게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원자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음파라고 하기도 하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전통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진행 해버려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빽이 있는 놈한테 다 맡겨놔요!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놔요."구정물 들어오는 거를 맑은 물로 대처하는 것도 너 아니야!"하고 돌려놔야 되겠죠.

또 어떤 생각이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은 잘 배우게끔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생각 잘 할 것을….'이렇게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낌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러한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심안으로 보게끔 하고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를 이끌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다 맡겨서 해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내기 이전은 다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고, 본래 여여한 자신의 근본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심을 키워나간다면 이런 저런 생각들도 쉬어지게 될 겁니다.

### 고통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문** 저는 올해 29살 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했던, 본래자리 주인공을 믿으라는 가르침에 이제는 의심이 없어집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허약한 몸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통해 진정시키거나 진통제 같은 것에 의존했는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부터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이 육신의 허망함을 알게 하려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싶다가도 정작 심한 두통에 시달릴 때면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오기와 짜증 그리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믿고 맡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고통에 끄달리지 않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림 · 최주현

## 주인공 둘로 보지 말고 자문자답 하세요

##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에 더 가질게 없어

**답**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없이 그냥! 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꼬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나고 죽어도 그 자리인데 뭐가 붙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주인공 자리를 확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더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급해서 안 될 때에는 '당신이 한 일이니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관하는데 그것은 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와 기도받는 상대가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하는 것은 '주인공, 내가 지금 아프잖아? 아프면 되겠니?' 한다면 내가 나에게, 같이 아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말할 수 없이 진하고 아픈 심정에서 말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지만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비쳐지는 그런 마음의 말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기도와는 다릅니다. 왜 이런 법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복된 길에 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중생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을 둘로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문자답(自問自答)하기를 당부합니다. 오직 붙들고 늘어질 곳은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스승인 근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 '無'자 화두를 들고 있어요

**문** 저는 조주선사의 無자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법어를 보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듯이 저는 無자에 다 놓고 있습니다. 때론 "주인공아, 어찌하여 없다(無)했는가" 하며 대화도 합니다. 저는 '주인공'이나 '無'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인공보다는 無자를 더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없다고 했는가?' 하며 無자를 들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 해나가야 할는지요. 제 딴엔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부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도리를 배우고 증득해서 주머니 속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선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다보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 해야 옛날 선지식들이 화두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넘어왔듯이 그렇게 할 텐데 말입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다 해도 물질로, 형상으로 치닫는 게 많고 알음알이가 많아서 진짜 정신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엔 화두를 주어 공부하게 하는 방편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부 방편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때에는 그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편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당시에도 화두를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두를 들고 깨우치신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화두를 어느 스님이 주셨다 그러면 화두를 끊지 말고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는 일어납니다. 이차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기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좌선을 해도 꼭 그것을 가지고 '뭣고 뭣고 뭣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이 준 화두를 바로 굴리질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화두는 마음으로 화두를 받은 것이지 화두라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받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경우이고 간에 마음으로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 물 한 방울이라면 그 영원한 근본에 둘 아니게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방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대로 한마음이에요.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서,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으니 항상 그릇은 비워져 있다는 얘긴데,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불법이다 라는 걸 쥐고서는, 그거를 놓질 못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이 문을 만들어 놓고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몸뚱이가 화두입니다. 남한테 이끌려서 자기의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수박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이게 뭐냐고 하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수박을 칼로 탁 잘라서 그 수박 속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공부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 조직 소속해야 공부 잘 됩니까

**문** 선도수련을 하다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스님을 친견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질 않는군요. 여쭐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도회에 소속되어야 바람직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도자들의 모임이라도 조직에서는 좋지 않은 타성이 생긴다고들 하는데요. 스님 곁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생활에 쫓기다보니 법회에도 참석하기 힘듭니다. 스님께서는 혼자 공부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원의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끔 법회만 찾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답** 그것은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로 통하려면 자기 신념이 필요한 거지, 이 공부는 누구에게 물어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부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러서느냐 물러서지 않느냐, 또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도반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하는 도반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죠.

만물만생이 다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입니다. 돌 하나라도 스승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까지도 다 스승일 수 밖에요. 매사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빨리빨리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빚을 갚아야 할 부모도 건질 수가 없고, 아래로 뿌려놓은 후손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결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나 하는 문제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허공에서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벗어나질 못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덩어리 자체도 자유스럽게 구르지를 못하고 매여서 삽니다. 우리도 매여서 살고 있고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갈 것인가를 왜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그대로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내 의지가 굳어지는 대로 그냥 집어삼키며 가는 거지요. 이것은 중(中)세계의 진리이기에,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니까 보고 듣는 그 속에서 삼세를 뛰어넘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 지장보살 발원 이루려면…

**문** 지장보살님의 발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참된 진아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의 모든 현실은 허상이고 또한 진실이라 사료됩니다. 어리석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답** 지장보살님이다, 부처님이다, 불성이다 하는 이 모두가 다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물건을 컵이라고 이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뜻을 모르고 만약에 지장보살님이라고 위대하게만 자기 위에 놓고 찾는다면 그것은 밖으로 찾는 것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망상이며 헛된 것입니다. 진정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 무명의 굳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생각을 내지 말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불성, 즉 여러분의 불성은 지장보살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숱한 보살님의 명호와 일체 부처님의 명호를 다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지장보살만 따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성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근본 진리인 동시에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약사보살도 그 무엇이든 거기에 다 들어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계합이 되어서 한군데에서 들고 나고 있으니, 이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장보살 따로, 관세음보살 따로, 약사보살 따로, 부처님 따로, 구분지어서 부르고 찾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밖으로 찾지 말고 자기 내면의 주인공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겨놓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만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자기 한 몸도 건질 수 없을 뿐더러 자기 가정마저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당뇨 · 간질 · 관질염 완치**
한국불교 태고종 서산사
주지 진성
061)762-2204(fax겸용)
761-5799
011)696-4848
전북 광양읍 칠성리

강좌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5)755-6997/759-1514
016)612-9204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역학개인 전수**
· 책없이 손으로 짚어내는 역학을 전수합니다.
· 간단하고 권리하게 손안에 숙지하여 중생의 옳은길을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를 얻는 스님이 잘 짚은 이 비전은 부처님 氣가 있어야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011-695-2320

구인구직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보경사**
02)
917-336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
873-6083

입산수행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일본에 공양주로
가실 분도 함께)
041)566-6301
011)9803-6301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 혜운
◇사 찰 명 : 금 성 사 (나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7.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오랜 지병 즉각 효험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033)435-6166
**석 련 암**

**출가수행 농장에서 수양생활 하실 분**
▶ 절 일을 도와주실 보살님, 거사님, 절에서 살고자 하는 보살님, 거사님 노스님 수행원 건립에 화주 시주자 기다립니다.
▶ 어린이 법회 위기 선생님 급구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02)885-1558
수련원 농장 043)542-2238

기타

**명당(음 · 양) 氣 탐지기**
특허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보급가 60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틀수 있으며, 이 측정기만 있으면 30년 공부 한 풍수보다 낫다
TEL:053)982-4976/011)813-3679

▶ 초등학생 유학(만12세 미만)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어학연수후 본과로 진학
▶ 대학생및 성인 대상 랭귀지스쿨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홈스테이)
▶ 공항 픽업 및 학생비자신청 대행
▶ 단기 어학연수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Email:rafaga@world-net.co.nz
PH:64-9-416-4252~3 HP:64-9-021-2132666
FAX: 64-9-416-4252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뇌졸증, 중풍, 당뇨병, 위암
간암, 위장병, 피부병, 관절
병고자는 기적같은 성취
※불사 평생함께 하실 처사님, 보살님 구함
051)244-3360
011)9554-6900

21세기 포교문화 지식정보화시대 시급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써비스 상담전화
02)2242-0331/485-3998
http : //www.mapsi.net
E-mail : webmaster@Mapsi.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인터넷사용인구가 20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교들이 불교단체 사찰 포교원등 고유 명칭을 도메인주소로 불법등록을 하고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도메인주소는 상표등록과도 같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사찰 · 한옥 석공사**
사찰 · 한옥 · 석불 · 석탑 · 석축조경
단청, 대집, 불단, 요사채
설계 시공 (전문업체)
전국 출장 양택 음택 현지답사 상담하여 드립니다
042)242-9990~3/011)209-3688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6-3번지
**연화종합토건 (주)**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사찰안내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합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1)643-9051/017)430-9051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특별시내 (최고요지)
◆ 부 지 : 4000평(종교용지+임야)
◆ 법 당 : 100평(목조) ◆ 요 사 : 250평
◆ 현시세 : 130억(땅값만)
◆ 양도가 : 65억 (50%는 일시불, 50%는 분할가능)
※매각사유 스님 건강상, 사찰포교 조건으로만 양도가능(타용도 불가)
※주변신세 뛰어나며, 고찰로써 첨선수양 도량임
※진학문의사양하며, 본사 방문 스님에 한해서 상담가능(일반인 상담사절)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공주
◇법당 : 27평
◇요사 : 20평
◇부지 : 10,000평
◇가액 : 3억 6천
※ 일반인 및 대리상담 사절합니다.
※전국 사찰 · 다량보유 · 양도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502)999-1133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천
◆부지 : 690평
(대지 82평, 준농608평)
◆가액 : 1억 4천만원
◆특징 : 영천 시내에 (5분) 인접하고 산세 수려하고, 웅장한 바위가 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기도 도량터임
0502)999-113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외,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3)378-1618/011)512-71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재/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월명공원 근처) 미륵사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미륵부처 3분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9646-3220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흥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1)953-3478/951-3308
011)453-4618

**사찰 안내**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20만원
031)868-0516
02)303-9788
016)335-8257

**사찰 안내**
선착순 한분스님에게 시설비 · 관리금 않받습니다.
◆ 위치 : 중랑구 상봉2동 107-60호
◆ 건물 : 2층 58평, 법당35평, 방3칸, 입식, 주방1칸, 에어컨 설치, 목욕실, 각방기름보일러
◆ 특징 : 개금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산신전 및 법당일체조성, 즉시법회가능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만 있으면 모든 시설 무료로 줍니다.
이유 : 스님의 몸이 안좋은 관계로
02)439-9409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천왕봉 좌청룡 주령
◆평수 : 1488㎡(약450평)
지목 야전임야 (현재 대밭)
◆특징 : 남향 산과 계곡 좋음
큰도로에서 300m 위치하여 조용함
◆가액 : 5500 만원
011)9943-456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내 165번지
◆부지 : 500평, 법당1채
요사채2개, 목조건물
◆가격 : 2억 (가격 절충)
055)834-3282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 및 평창강)에서 1km지점
◆평수 : 3만 7천평
(임야 3만3천5백, 전 3천7백)
◆특징 : 사찰 부지 납골당 적격지
◆가액 : 현지답사후 결정
043)645-2811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 수 : 약 60평, 법당30평
큰방2개, 주방
◆ 특 징 : 불사시설 완비
3층건물의 3층
◆ 가격 : 보증금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절충가능
019)473-7613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북 정읍시에서 15분거리
◆ 부지 : 500평
미륵부처님 22자 모셔져 있음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30평
◆ 특징 : 천연약수와 소나무숲으로 경관이 수려함
◆ 가격 : 7,500만원(선착순)
※ 대지와 건물 모두 사찰로 등기 돼 있음
011)890-7618/063)653-6667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왕림리 **왕덕사**

**포교당 안내**
◆ 위 치 : 수원
◆ 평 수 : 80평 방3개 사워시설
◆ 특 징 : 아미타불 삼존불 등불 有, 108지장전 有
사찰의 모든시설 일체
◆ 가격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일체포함 5,500만원
019)310-8818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신 APT 옆)
◆ 건 물 : 3층 24평 법당1, 방1, 상담실, 삼존불, 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2)654-585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상가지역 3층건물 3층(옥상사용가)
◆ 건물 : 법당시설(특급)대형에어콘 신설, 스님방1개(에어콘 시설)신도방1 조리장1, 화장실1,(현재운영중의 집기물 일체 무료 제공함)
◆가액 : 보증금1천만원(월55만원), 시설권리금2천5백
011)458-2955
(운영실태를 파악제공함)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대구시 북구 노원동3가 양제 포교당 3층 건물 3층 약50평
◆ 법당 시설비 완비
◆ 가격 : 전세금 2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상호 협의 가함
018)567-6522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적요지
◆대지 : 250평이상(국유지포함)
◆건물 : 법당40평 요사채70평 주택4가구
◆특징 : 교통편리(지하철 5분거리) 포교최적, 산세수려(靑山) 신도1000세대(현재)
◆가액 : 답사후 결정
051)208-1122
※ 부산시내 사찰신축, 실버타운적지 부지3000평 있음

**수양원 · 기도처**
◆위치 : 충북 단양군(구인사 근처)
◆부지 : 1160평
◆건물 : 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전통 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한채. 열댓평 토굴 한채 (나무와 흙으로 지음)
※평생 살려고 지은 집입니다 (2년됐음)
※소백산 줄기로 산세가 수려합니다
◆가액 : 1억 3천 만 원
· 서울 근교 암자 및 부동산과 교환가능
02)3261-2573/016)852-5255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정읍
◆평수 : 1600평(종교융지300평, 대지(300평) 2500평 추가 매입 할 수 있음(복지시설 가능)
◆건물 : 현대식 법당 40평,요사 23평 부속건물 30평 조경완비
◆특징 : 천불봉사 할수 있음. 시내10분거리 버스종점
◆가액 : 1억 8천 8백만원
011)671-0987

# 불자 세상보기

## 에어컨·기름·수돗물 '흥청망청'
##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1위

가정과 사무실, 공장, 자동차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1위라는 감투(?)까지 썼을 정도다. 흥청망청 과소비에, 그것도 모자라 에너지까지 과소비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에 남아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걱정까지 될 지경이다.

사람 하나 없는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기를 쓰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빈방에 켜져 있는 형광등을 보는 것도, 전원이 켜져 있는 채로 4~5시간 혼자 놀고 있는 컴퓨터를 보는 것도, 한나절 목적없이 줄줄 흐르는 수돗물을 보는 것도, 대형 네온사인이 밤새도록 거리를 비추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과 2~3초를 못 기다려 닫힘 스위치를 마구 눌러대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쓰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경제속도를 훌쩍 뛰어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무한대'인 것으로 여긴다.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석유는 하루에 약 200만 배럴이라고 한다. 서울 장충체육관을 다섯번 채우고도 남을 양이자, 석유소비 세계 6위의 규모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6위, 경제규모가 11위임을 감안하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함을 금새 알 수 있다.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국민 1인당 소득규모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90년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97년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도입한 원유만 해도 202억달러로 1년새 37.5%나 증가했다. 이를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4톤이나 되며, 소비를 10%만 줄여도 20억달러 이상이 절약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에너지의 97%가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에너지 낭비는 곧 달러를 마구 뿌려대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다.

불교에서는 낡은 법의로 웃옷을 만들고, 낡은 웃옷으로는 속옷을 만들고, 낡은 속옷으로는 담요를 만들고, 낡은 담요로는 깔개를 만들고, 낡은 깔개로는 발닦는 수건을 만들고, 낡은 발닦는 수건은 잘게 썰어 흙에 섞어 벽을 바르거나 앉을 자리를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경전 〈자타카〉에서 아난존자는 바로 이같은 불교의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일찍이 절약의 경제원리를 말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 한 젊은이에게 부처님은 "모은 재물을 네 무더기로 쪼개 관리하라"고 일렀다. 한 무더기는 먹고사는 데 쓰고, 두 무더기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일에 쓰고, 남은 한 무더기는 곤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라는 것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암흑 같은 IMF 터널을 지났다. 그리고 언제 다시 경제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국민들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절약정신과 곤궁할 때를 대비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시론

## 낙하산 인사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인사파문이다. 김대중정부 출범후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각종 선거에서 이런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문제만 거론하면 야당은 저절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낙하산인사로 무성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아예 귀를 막고 못들은 체 하고 있다. 도대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나눠먹기식 구태 여전

이번에 단행된 낙하산인사를 보자. 공천신청을 철회한 채영석 전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에 임명됐고, 박태영 전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앞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양성철 전의원과 한국관광공사사장으로 나간 조홍규 전의원, 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 박문수,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 보훈복지공단이사장 조만진,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동태 전지구당위원장 등 총선을 전후해 정부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나간 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명을 훨씬 넘는다.



최용기
〈창원대 교수·법학〉

한나라당 통계에 따르면 2월기준으로 85개 주요정부산하단체임원중 30여개 자리가 여권이나 친여권인사로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당시 불출마를 선언하는등 어려운 결심을 했거나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핵심인사들은 각종통계와 관행, 대통령제국가인 미국의 예까지 들며 정부인사의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특정지역의 사람들 뿐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인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특정지역 중심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낙하산인사이다. 여권실세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상위순번에 들어가려고 온갖 방법이 동원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인사에는 전문성이나 그 기관의 운영능력등 국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당시 당방침에 순응하는 등 당에 협조했는가, 아니면 반발했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다. 채영석 고속철도공단이사장은 한때 군산시장선거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고속철과 관련있는 경력이라야 국회의원 당시 건설교통위원을 했다는 것이다. 고속철과 관련된 전문지식도 없고, 도덕성을 의심받은 인물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속철도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태영 전장관도 전문성 등에서 볼 때 자격이 의심스럽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대중대통령의 전동서인 노의사가 임명된 것은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인사는 김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않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이런 인사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스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여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해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을 잘 이끈다면야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잦아들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디 그랬는가.

공자는"順天者(순천자)는 存하고 逆天者(역천자)는 亡한다." 고 말씀하셨다. 이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외쳐왔다. 그러면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공기업사장 및 임원자리에 경영전문가 대신 낙하산인사를 해온 정치권력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엉터리 인사를 할 바엔 개혁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민간부문에 무슨 명분과 도덕성으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 전문성·능력 우선돼야

건교부에 따르면 고속철도건설공사가 궤도에 오른만큼 이제는 고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의 민영화와 관련해 노조의 반발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한다면 공공부문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만에 하나 기관장의 전문성 부실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되면 민심은 떠나게 된다. 민심이 떠나면 천명도 떠나갈 것이다.

## 간 내준 가족애…아버지 살렸다

의상스님을 지극히도 사모했던 선묘라는 한 여인은 돌과 같이 굳은 스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는 스님에게 귀의하면서 반드시 시주(施主)가 되어 스님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바치겠다고 발원했다. 또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가는 스님을 보고는 자신의 몸이 용이 되어 배가 무사히 신라에 닿아 스님이 법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 용이 된 선묘는 의상이 탄 배밑을 부축해 무사히 신라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힘은 소설의 한장면처럼 와닿는다.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일까.

최근 딸과 형제들이 한 가장을 살렸다는 소식은 무더위를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만성간염으로 10년을 버텨 온 50대 회사원 김유영씨가 받아 든 인생 여백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제한된 시간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혜인(20)양이 자신의 간을 드리겠다고 나섰고, 4명의 김씨 동생들도 나섰다. 병원측도 감동해 딸과 한 동생의 간을 이식하는 국내 초유의 2명 부분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김씨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뜨거운 가족애가 아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술이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허용 반대"** 이달 1일부터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설이 허용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와 고용확대를 이유로 최소한 30여 곳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 서울 YMCA 앞에서 그린벨트내 골프장 허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통사고…살인까지

## 보험금 노린 범죄 급증

일반인들이 음식이 담긴 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달리 스님들은 발우공양을 할 때 발우를 입 가까이 들어올려서 공양을 한다. 음식 쪽으로 입을 낮춤으로써 음식에 탐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음식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음식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살아야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라는 명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 것이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살아야 하나' 라는 의문마저 던져 준다. 어떻게 남을 속여내 밥그릇을 챙기고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런 보험범죄는 98년 2천6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40%이상 늘어난 3천7백여 건이었다. 97년과 비교해서는 90%나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를 악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보험사고나 위장·가공사고 등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고의 방화와 살인까지 포함돼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비단 보험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기준에 맞춰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 시민단체-경찰 '민경협력기구' 발족

집회나 시위 때마다 서로 대치하던 시민단체와 경찰이 손을 잡았다. 경실련·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운동연합 등 전국 단위의 26개 시민단체대표와 경찰이 지난 4일 경찰청에서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민경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 환경·교통·성폭력 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에서다.

'협력위원회'는 성폭력·마약·환경·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공동연구와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단속, 시위문화 및 교통질서 확립 등을 다룰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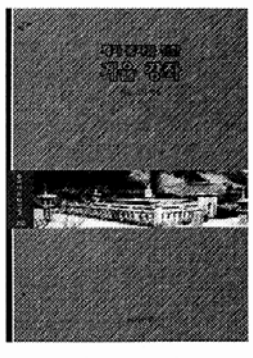
〈장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이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말한 것이 있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고, 둘째 서로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며, 셋째 법을 받들고 제도를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각종 사회문제에 시민단체와 경찰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펼쳐 보이길 기대한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내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7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 보다도 '율' 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 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 이다.
'율' 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 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 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 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시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닛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싱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 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 봉사의 땀속에 영그는 '포교'

## 교계 7개 청소년단체 서울시 사업 참여

## 문화재 애호·노인결연·무료진료 활동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등 교계의 7개 청소년 및 청년 단체가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자로 선정돼 8월부터 일반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월26일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서 열린 '2000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선정결과 발표회에서 대불청 등 111개 단체의 117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나 천주교 등이 3~4곳인데 비해, 불교계에서는 7곳이나 선정돼 타종교에 비해 사업 내용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불청과 자원봉사연합회는 장묘문화, 의료봉사, 환경사업 등 각각 2개씩의 사업이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파라미타의 '서울의 문화재 우리가 지킨다' 프로그램이다.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시행될 이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를 1백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당 1개씩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를 선정한 뒤, 중고생 4명을 1개조로 한 1백개조를 편성해 문화재 지킴이의 역할을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문화재 개론 강좌 등을 수시로 마련한다. 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전문 지도교사와 문화재 지킴이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 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도 8월~11월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벌인다. 8월에는 서울시내 수영장에서 장애인 70명을 초청해 도우미로 선정된 청소년 자원봉사자 140명이 '장애인 물놀이 체험'을 실시한다. 또 10월에는 혜명양로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이란 주제로 목욕과 머리손질 해 드리기, 안마하며 말동무 해드리기,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책읽기 봉사도 한다.

대불청은 전국조직 16개 지구 300여개 지회를 활용해 장기 기증 및 화장 유언에 동참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또 서울불교청년회는 탑골공원에서 노숙자와 실직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무료 진료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정경숙 씨는 "이번 사업에는 각 단체별로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며 "이번 사업의 시행 결과로 내년 2월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교계의 청소년 및 청년단체 7곳이 '서울시 민간 시정 참여사업단체'로 선정돼 8월부터 활동을 편다. 사진은 청교련소속 청소년들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서울시 2000년 시정사업 참여 교계단체

| 단체 | 사업내용 | 전화번호 |
|---|---|---|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나무심기 등 환경사업 | (02)723-6258 |
|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 문화재 지킴이 활동 | (02)723-6165 |
| 청소년교화연합회 | 장애인 및 노인 자원봉사 | (02)720-9139 |
| 대한불교청년회 | 장묘 문화 개선사업 | (02)738-3385 |
| 서울불교청년회 | 무료진료 및 의료사업 | (02)730-9108 |
| 조계사청년회 | 독거노인 자매결연 맺기 | (02)735-3724 |
| 한국제이티에스 | 부적응 청소년 심성수련 | (02)587-8995 |

## 사찰 편액을 찾아서

### ⑫ 우남의 문수사 · 해인사 편액

우남 이승만(雩南 李承晩/ 1875~1965)은 배재학당을 나와 조지워싱턴대학과, 하버드대학을 거쳐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그는 '매일신문' 주필 등을 지내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개화,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우남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됐다. 그는 1948년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1960년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로 하야해 하와이로 망명,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우남은 본래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으나, 미국 유학 등을 통한 신문물을 접하면서 기독교에 가까워졌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서울 문수사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지성을 드려 우남을 낳았다고 한다. 어쩌면 1954년 불교정화유시를 통해 비구승의 입장을 수용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불교를 아끼려는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우남은 대통령 재임시 여러 사찰에 글씨를 남겼는데 서울 경국사 〈경국사〉, 〈삼성보전〉, 서울 문수사 〈문수사〉, 합천 해인사 〈해인대도량〉, 영주 부석사 〈부석사〉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문수사 요사에 걸려 있는 〈문수사〉 편액은 도서나 관지는 없으나 1960년 경 우남이 쓴 글씨다. 생전에 이 절을 다녔던 인연으로 모신 부모의 신위를 참배하기 위해 그가 산길을 걸어 올라가 그 기념으로 쓴 글씨라고 전한다. 우남의 글씨는 필획이 원윤(圓潤)하고 운필이 유려(流麗)한 것이 많은데 이 편액은 주



◇문수사 요사 편액

◇해인사 해탈문 편액

### 문 수 사 신도이던 부모위해 쓴 명작

### 해인대도량 대통령시절 쓴 유려한 필체

경한 필치로 쓴 글씨다.

합천 해인사 해탈문 뒤쪽에 걸려 있는 〈해인대도량〉 편액은 세로 10개의 쪽판을 이어 붙여 글씨를 새기고 윗부분의 변죽에 봉황문으로 단청을 했는데 아마도 현직 대통령의 글씨였기 때문일 것이다. 편액의 액판 좌측에 '계사국추 우남(癸巳菊秋 雩南)'이라는 관지와 음, 양각의 도서 2과가 있어 1953년 우남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절에 들러 쓴 글씨임을 알 수 있다. 편액의 글씨는 운필이 유려(流麗)하고 후윤(厚潤)한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무용단은 북한어린이 돕기 자선 공연 '전국순회 연주회'를 펼친다.

### "북한 어린이들에 의약품 보내자"

### 대한불교 소년합창단 전국순회 자선공연

#### 보현사 공동법회도 추진

대한불교 소년소녀 합창·무용단은 8월2일부터 15일까지 북한어린이 의료장비 및 기초 의약품 지원을 위한 '전국 순회 자선 공연'을 펼친다.

'통일, 그날을 위해'를 주제로 제주 광주 등 7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무용을 비롯해 '반야심경' '경사로다' '우리절 연못' '절에 갔었네' 등의 찬불가 합창이 연주된다. 또 2부에서는 무용단의 살풀이, 장고춤, 부채춤과 '오 브리넬리' '즐거운 방랑자' '그리운 금강산' 등 국내외 가곡 및 민요 10여곡이 공연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불교교육연구원 황학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 남북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의 수익금으로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물론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불교 공동법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2일 저녁 7시30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7일 저녁 7시30분 광주 남도예술회관 △9일 저녁 7시30분 대구 대덕문예회관 △11일 저녁 7시30분 부산 금정구청 문화회관 △12일 저녁 6시 이천 시민회관 △15일 오전 10시 임진각, 오후 5시30분 서울 리틀엔젤스회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 "청소년, 그대는 항상 깨어 있는가"

### 선재연구모임 봉인사 지도자 연수

### 선무도·심성계발 등 프로 다채

선재연구모임은 1·2일 양일간 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그대는 항상 깨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4차 선재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열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불교습의, 전래놀이, 자연놀이, 심성계발, 과학교과, 레크리에이션 등 청소년 지도자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 교육 과정이 7개 분과별로 나눠 진행됐다. 이어 열린 전체 강의 시간에는 최봉수 교수(인터넷 불교대학)의 '근본불교로 본 붓다'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미얀마 등 남방에서 10여년간 이어졌다. 위빠사나를 수행해 온 거해 스님의 '위빠사나' 강의와 중앙승가대 강원스님의 '선무도 지도' 특히 선무도는 실습까지 겸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이종만 실장(좋은 벗 풍경소리)의 '찬불가 지도'와 대동놀이 등 전통전래 놀이도 펼쳐졌다.

선재연구모임의 김종헌 간사는 "이번 수련회에 처음 도입된 분과 강의는 실제 법회에 응용될 수 있도록 구성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청소년 지도자의 육성을 위해 포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재연구모임이 주최한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이 불교의식을 배우고 있다.

### 청소년 단신

#### 10대 · 부모 아우성 캠프

인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는 27일부터 2박3일간 가평 약속의 섬에서 '10대 자녀와 부모님을 위한 아우성 캠프'를 연다. 한 가족 당 2인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부모 자녀 역할체험 △모의 육아교실 △10대의 성(性) 이해하기 △뗏목여행 △청소년 난상 토론 등이 펼쳐진다. (032)577-0266

#### 동대부고 금석배 우승

종립 동대부속 고등학교(교장 우하수)가 제9회 금석배 전국중고축구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동대부고는 6월 30일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경희고를 맞아 1백분의 접전끝에 승부차기(4:1)로 승리를 거뒀다.

#### 사나사 여름불교학교

양평 사나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유아·초·중·고 여름불교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아침예불 및 참선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래놀이, 산행 등이 펼쳐진다. 또 불교레크리에이션과 찬불가 배우기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2만 5천 원. (031)772-5132

#### 제주 불청 축구단 창단

제주불교청년회는 2일 스포츠 포교를 위해 '제주불청 축구단'을 창단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축구단은 '사찰 순회 법회'와 '어린이 축구교실' 등을 통해 청년 포교에 힘쓸 계획이다. 또 제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개신교·천주교 등 타종교의 청년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 책 어떻게 고르고 읽을까

### 전국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관으로 초·중생을 위한 여름 독서교실이 열린다.

서울 강남도서관을 비롯 전국 3백여개 도서관에서 개설될 예정인 독서교실은 각 도서관별로 초·중생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개최된다.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떻게 읽을까' '도서관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나' 등 올바른 책읽기 준비 과정과 실제 책읽기를 통한 동화구연대회, 독후감상화 그리기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21세기입니다.
지난 세기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 왔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이제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선'입니다.
선은 인류평화와 행복의 지름길로 향도하는 이치입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덕수총림 수덕사에서는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안정과 평화,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일 시 · 1차 수련회 - 7월 22일 ~ 7월 25일(토~화, 음 6월 21일 ~ 6월 24일)
· 2차 수련회 - 7월 27일 ~ 7월 30일(목~일, 음 6월 26일 ~ 6월 29일)

장 소 수덕사 황하정루

◆참가자격 : 선에 관심있는 일반인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 복장, 운동화, 세면도구, 침구
◆수련회비 : 50,000원
◆접수방법 : 선착순 100명한도 - 방문, 전화, FAX, 우편접수
◆문 의 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041)337-6565, FAX 041)337-0072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법장



최고의 전문가만이 그 진가를 아는 "메가플러스 명상기"

— 단 20분간 명상으로 3시간 업무를 한시간에 끝낸다!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자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소승의 견지에서 볼 때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메가플러스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어떤 심리학자는 비만이 되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먹는 데서 찾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반응에는 민감한 반면 자신의 내적(심리적) 공백상태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습관적인 방어, 거부 등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고, 더불어 먹는 분위기에 휩싸여 방법모색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안내책자에는 메가플러스로 명상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처음 명상하는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현대사회의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빠른 시간 내에 릴렉세이션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쁜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은담명상체험교실 증익 합장 · (031)742-96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미국 마이크로펌사 제품〉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쿤달리니, 유체이탈, 무시간 상태경험을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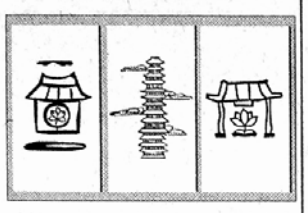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메가플러스 색채 광안경

기본사양 : 녹색 광안경(재충전과 힐링)
옵 션 : 청색 광안경(릴렉세이션과 명상)
청색과 빨간색 혼합 광안경(기공과 차크라)
순백색 광안경(최고의 명상경험과 시각화)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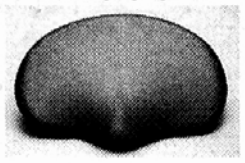
마인드테크 / 상담 (02)888-2142

##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9-02503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한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퀘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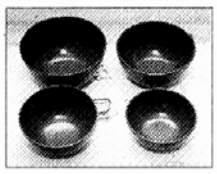
## 신상품 및 추천상품

###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 황토로 만든 수형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 玉온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가격: ₩60,000

###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 ₩20,000원
무개폐형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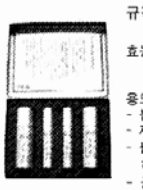
##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 4개 1세트

효능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봉보살게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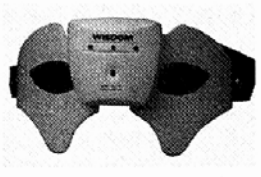
가격 : ₩60,000

##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 순금도금 은 하란야매달



▸용도및효능 : 남녀공용 브로치형 배당
▸재질 : 천연자수정大부착 은세팅순금도금, 루비 세팅
▸효능 : 결화치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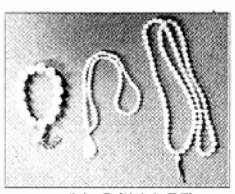
##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닦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인시대,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가슴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러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일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돌출게 붙은 것과 물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일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일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일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측, 차살피라고도 한다.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배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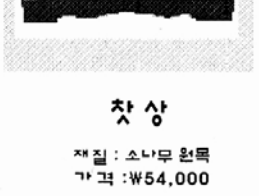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형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뚜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피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예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실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격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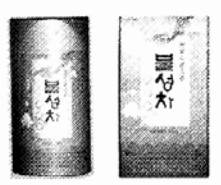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 날개 CD



가격: ₩10,000

## 무비스님 특강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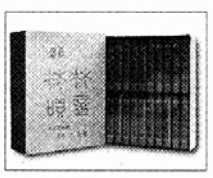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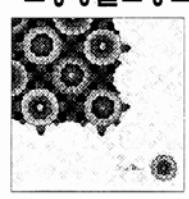

가격:₩9,500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가격:₩5,000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 불자 반디라이트 펜



■1세트 : 10개입
■가격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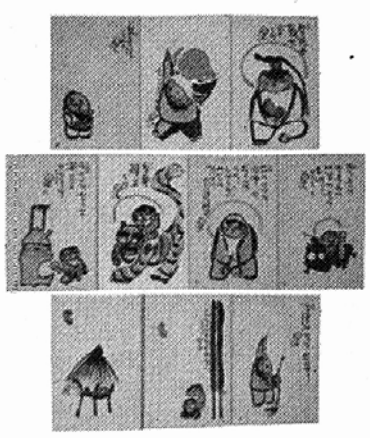
## 쑥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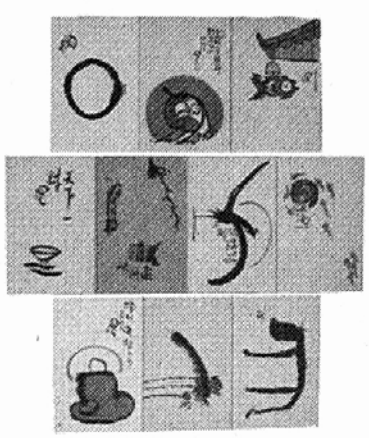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 불교 그림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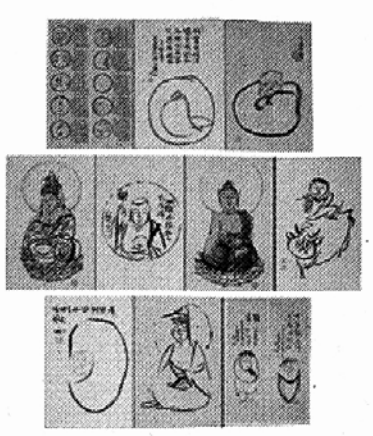
■소중한 마음을 불교그림 엽서에 담아 보내세요.
■가격 : 1세트(10장) 2,500원 / 4세트(40장) 9,500원



수안스님 그림엽서1



수안스님 그림엽서2



석정스님 그림엽서



일장스님 그림엽서

##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 |
|---|---|
| · 고추장 | 12,000원 |
| · 무우 장아찌 | 12,000원 |
| · 된장 | 8,000원 |
| · 마늘쫑 장아 | 12,000원 |
| · 쌈장 | 8,000원 |
| · 된장 콩잎 | 12,000원 |
| · 더덕 장아찌 | 30,000원 |
| · 된장 깻잎 | 12,000원 |
| · 오이 장아찌 | 12,000원 |
| · 산초 장아찌 | 30,000원 |
| · 감 장아찌 | 12,000원 |
| · 울외 장아찌 | 12,000원 |
| · 나나스키 | 12,000원 |
| · 간장(1.8L) | 8,000원 |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 이렇게 들었다 — 환경보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법구경 화향품〉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환경부하가 15만배 증가했고, 생태파괴지수는 생태적 생산능력의 9배 이상을 초과하는 등 환경훼손이 가속화되가고 있다. 가야산 관통도로, 지리산 댐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은 환경훼손을 부채질하는 주범이다. 청정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불교의 환경사상은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國土淸淨)'으로 강조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환경과 우리 몸이 둘이 아님(身土不二)'을 살펴보자.

### 산·강도 내몸처럼 아끼고 사랑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마경〉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범망경〉

▨저 불국토에는 목욕할 수 있는 호수가 수 없이 있다. 그 호수에는 여덟가지 공덕을 갖춘 물(八功德水)이 철철 넘치고 맑은 향기가 풍겨 마치 감로수와 같은 느낌이다. 호숫가에는 전단나무가 서 있는데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잎과 꽃이 드리워져 있다. 호수 속에는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흰 연꽃이 눈부시게 피어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흰희에 넘쳐 마음의 때가 맑끔히 씻긴다. 〈무량수경〉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뼈·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성읍, 촌락과 산림, 천담과 동산, 궁전, 누각 그리고 일체의 행로 및 교량, 자연적인 굴택, 일체의 농작물과 화, 초목의 선림 등을 태우거나 파괴하지 말고 물을 빼거나 대지 말며 자르고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같이 생명을 가진 짐승과 벌레들이 잇으므로 그 죄없는 중생들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괴롭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분율〉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 또 모든 곳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거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류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쉴사이 없이 들리게 하라. 〈보리행경〉

▨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지 말며, 파괴하지 말며, 물을 대지말지니, 이것이 무릇 세간을 보호하는 것이옵니다. 일체가 착하지 못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땅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뭇 삶들이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상응아함경〉

▨사중사(四重思) 가운데 중생의 은혜와 국토의 은혜를 강조한다. 국토와 중생의 은혜는 참으로 크기 때문에 보답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일체의 존재를 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동시에 산, 강, 공기 등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승심지관경〉

▨비취색 대나무는 푸르고 푸른데 이들 모두가 법신이로다. 노란꽃은 만발한데 그를 모두가 반야 아닌게 없노라. 〈양충스님 어록〉

▨'정신과 물질은 하나다(色心不二). 물질과 정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서로 보조하면서 존재한다. 고로 신토불이(身土不二)인 것이다. 〈기신론〉

▨이 세상을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모든 중생을 여래가 될 수 있는, 여래가 감춰져 있는, 여래가 들어있는 그런 부처님, 숨은 부처님, 드러나지 않는 부처님으로 존경해야 한다. 〈원효스님 어록〉

# 신행 캘린더

### 7월12일 (수)

■석불佛 사랑방 모임=한국석불연구회는 오후6시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은정 회원이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02) 760-5138

### 7월13일 (목)

■자양복지관 무료한방진료=자양사회복지관은 29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복지관 3층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2)458-1664

### 7월15일 (토)

■선학회 직지사서 월례발표회=한국선학회는 양일간(15~16일) 황학산 직지사에서 7월 월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간화·위빠사나 수행의 연관성'과 '남방선의 수행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위빠사나에 대한 강의 및 직접 체험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135

■조계사 어린이불교학교=조계사 어린이회는 17일까지 2박3일간 조계사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2)720-1390

■부산 불교교육원 1만배 정진법회=부산불교교육원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원동 신흥사에서 1만배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51)466-4080

■금강메아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1박2일(15~16일)의 일정으로 설악산 봉정암으로 산행법회를 떠난다. 02)772-9517

■법장사 중·고등학생 여름수련회=법장사는 동해묵호 해수욕장과 삼화사에서 중·고등학생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02)971-0303

■대불청 지도자 연수=대한불교청년회는 17일까지 공주 마곡사에서 제17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02)738-3386

### 7월16일 (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부산양정청소년회관은 16일 인터넷 상에서 오전10시부터 제2회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연다. 051)868-0750

■문화재 보호재단 백제불적답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백제미륵신앙과 불적'이란 주제로 답사를 떠난다. 교원대 정영호 교수의 해설로 진행될 이번 답사는 전라북도 완주일대의 금산사, 미륵사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02)555-9337~8

■염불만일회 아미타 여름성지대회=전국염불만일회는 양일간(16~17일) 전남 보성군 대원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연다. 02)732-1215

■전국생태기행지도자 워크숍=두레생태기행과 지리산 실상사는 생태기행 지도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실상사에서 제2회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12-5812

## 사찰음식점 창업 도와드려요

'사찰음식 전문식당의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적문)이 최근 사찰음식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위한 창업연구반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업연구반은 1년 과정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기초 이론과 조리 실습은 물론 창업과 창업이후 성공에 이르는 경영기법 등을 교육한다.

사찰음식문화연구원은 채식주의의 전세계적인 파급과 '선(禪)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현대화 사회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사찰음식문화연구원은 제10기 문화강좌 정기연구회원을 모집한다. 문화강좌는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2시에 열리며, 사찰음식 조리실습, 현지사찰 탐방, 사찰음식 천연조미료 제조법, 다이어트와 사찰음식 등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02)355-5961

도필선 기자

## 조계사 "부부연 맺어 드립니다"

조계사(주지 지홍)가 최근 결혼 상담을 위한 '청실 홍실'을 개원하고 '부부연 맺어주기'에 나섰다. 이미 10명의 미혼남녀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각기 다른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 남녀가 '청실 홍실'의 주선으로 2차 만남까지 가져 결혼에 골인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청실 홍실'의 인연을 맺어주는 방식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선호하는 배우자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두었다가 원하는 조건이 비슷한 남녀에게 만나볼 것을 제의하는 것. 1차 만남 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실 홍실'은 지체없이 2차 만남을 주선한다.

회원신청은 부모가 해도 무방. 하지만 '청실 홍실'의 상담 신청서를 포함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보 한가지. '청실 홍실' 회원들의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02)723-3810

한명우 기자

## 법회안내

### '보현행원품' 강의



시명 울산 극락사 주지는 12일 오후8시 진주불교회관에서 〈보현행원품〉에 대해 법문한다. 055)747-0108

### 가족법회서 설법

현문 길상사 교무 스님은 9일 일요가족법회에서 〈불설삼세인과경〉을 중심으로 법문한다. 02)3672-5945

### '평양정상회담' 특강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1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에서 열리는 다보문화강좌에서 '평양정상회담-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02)703-0108

### '숫타니파타' 법문



김재영 법사는 15일 오후5시30분 남산 충정사에서 〈숫타니파타〉 연찬법회를 봉행한다. 02)016-260-6951 전충근

### '불교의 이해' 강의

최종석 동국대 교수는 18일 오후1시30분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에서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02)3411-6167

## 게시판

### 알림

▲수능시험 백일기도=강남포교원은 오는 8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수능시험 응시학생들의 원만성취 발원을 위한 백일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입재는 8월8일 오전10시 대웅전. 02)539-2631

▲명상체험 캠프=명상아카데미 부설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27일~8월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꽃피아 명상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02)521-2149

▲한국문화체험단 공모=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단을 공모한다. 원고 모집부문은 시(시조), 수필(체험수기, 편지, 여행기 포함) 등. 9월30일 마감. 02)732-4885

### 답사

▲동영 소매물도 비진도=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15~1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소매물도와 비진도 순례길에 나선다. 서호시장(새벽 어시장)을 시작으로 통영 유람선 선착장, 소매물도 및 비진도, 해저터널 등을 둘러본다.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씨가 맡는다. 02)725-1284

### 모집

▲후원결연사업=송파재가노인센터는 송파구내 무의탁 독거노인(저소득층 노인)들과의 1:1 후원결연 사업을 벌인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02203-3677

▲여름불교대학=대한불교삼보회는 8월27일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제 26회 삼보여름불교대학을 연다. 강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02)913-2859

▲치매, 뇌졸중 어르신=인덕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의 치매, 뇌졸중 환자 및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물리치료, 여가활동,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02)385-8205

▲선방 대중공양=전북불교회관은 칠불암, 위봉사선원, 백장암 등 선방 대중 공양 보시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불자를 모집한다. 063)277-3497

▲아동 방학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예비 중학 영·수교실, 만화캐릭터 교실, 물로켓만들기, 인터넷 박사반, 수영캠프, 이색박물관 기행 등으로 진행된다. 02)852-0525

▲성보운영 자원봉사단=수덕사는 근역성보관 운영에 도움을 줄 제1기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성보관 안내 및 진행을 보조하고 박물관 내부 전시안내를 맡게될 자원봉사단은 성별 나이 국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041)337-2902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치료 레크리에이션, 선통민요, 스포츠 맛사지 등을 진행하게 된다. 02)365-3677

▲성인풍물패=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북 꽹과리 장구 민요가락이 어우러지는 성인풍물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3시30분. 02)2282-1100

▲수강생 컴퓨터 활용 자격증반=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6시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자격증반 강의를 실시한다. 0510363-2063

### 구인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장기요양원 호암마을은, 30~50대의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를 구한다. 대상은 각 분야 교육 이수자. 020385-8205

▲지도법사=PC통신 나우누리 불교동아리 부처님마을은 한달에 한번 열리는 서울·경기 지역 법회에서 설법을 해 줄 스님을 모신다. 018-230-4892 박찬주

### 급구

▲전자타자기 급구=대구 효성사는 '전자타자기'를 급히 구한다. 주지 설봉스님은 타자기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친필 채색전신 달마도로 보답할 예정이다. 053)857-218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불교학과, 불교북한학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 | | |
|---|---|---|
| 1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br>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북한불교사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br>·오 궉 근 (동국대교수)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br>·김 상 현 (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
| 2년 교과목 |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br>밀교사상·포교방법론·북한불교포교론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김성철(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br>·권기종(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br>·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김호귀(동국대교수)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 고 |
|---|---|---|---|---|---|---|
| 정규반(100명)<br>주간반(50명)<br>통신반(50명)<br>불교북한학과(2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br>·주민등록등본 1통<br>·반명함판사진 3매 | 2000년 6월 15일~<br>2000년 7월 31일<br>입학금 150,000원 | 서류전형<br>(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br>·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br>·동산교육회관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

4. 입 학 일 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불교북한학과 지망생은 북한불교사, 북한포교방법론을 이수하여 함.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2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 사찰 수행환경 '몸살'

## 마태사 채석장 발파에 소음 공해 · 법당균열
## 약사사 일주문 안 주택허가 반발 규탄 집회
## 법흥사 숙박 · 음식점 들어서 성지 인상 흐려

사찰이 인근 광산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진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가 하면, 사찰 경내지나 인근에 무분별한 건축·도로허가가 남발돼 사찰 생태·수행환경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사찰이 폐사위기에 놓일 정도로 피해상흥이 심각한 곳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2리에 소재한 마태사(주지 제화). 사찰인근(약 1km)의 7개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진동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찰수행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봉선사 말사인 마태사가 창건된 것은 39년전, 창건후 4년뒤에 채석장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채석장들이 다이너마이트와 중장비를 동원해 채석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개천 등의 환경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마태사는 지난 10년간 정신적·신체적(피부병 등) 피해를 제외하고도 삼성각 및 법당 균열로 인한 개·보수비용 13억5천만원, 요사채 보수비용 1억2천만원, 신도격감 및 행사(수련회 등) 취소로 인한 피해액 1억5천만원 등 총 16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태사는 5일 7개 채석장 대표들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현장을 함께 둘러봤으나, 업주들의 준비소홀로 협상에 실패했다.

마태사 주지 제화스님은 "몇년전부터 사찰행사를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종교활동에 지장을 받아 피해보상 및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쌍용자원개발(주)의 석회석 광산 채석발파에 따른 삼화사(주지 원행)의 소음·진동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조계종총무원, 강원도청 등 7개기관 합동연석회의가 5일 동해시 여성회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험발파 조건방법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시험발파를 15~25일 사이에 3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충북 옥천군이 일주문내에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내어줘 말썽이 되고 있는 여래종 본산 약사사(주지 경안)는 6일 군수 면담에서 '허가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 옥천역 앞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5대 적멸보궁중의 한 곳인 강원도 영월 법흥사와 제주 수정사지 인근에는 요식업소와 관통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포천=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마태사 주지 제화스님이 채석장 발파로 인해 석탑 기단부의 갈라진 틈(3~4m)을 가리키고 있다.

## 종단소식

### 조계종

#### 부산 · 경남 주지 연수

교육원(원장 일면)은 부산·경남 주지연수회를 12~13일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또 17일 오전 10시 직지사에서 전국강원학인연합회와 함께 전강련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02)732-4923

### 태고종

#### 제24기 행자 소양시험

제24기 행자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가 오는 8월 11일 서울종무처에서 개최된다. 소양시험은 불교기초교리와 초발심자경문 습득정도를 알아보는 필기시험과 반야심경, 천수경, 조석예불, 승가의 화합관, 종단관, 불교관 등 행자의 기본 습의정도를 알아보는 면접시험으로 나눠 치른다. 이번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에 한해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주동안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 봉원사 여름불교학교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28~30일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를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찬불가배우기, 반야심경 사경, 선재놀이, 기초교리,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392-3007

### 진각종

#### 금강원 종조존영 바꿔

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백주년을 앞두고 금강원 성역화불사의 일환으로 6월 27일 울릉도 금강원에서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간부들이 동참한 가운데 종조 영정을 새롭게 봉안했다. 성초통리원장 등 종단 스승들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내 각 심인당을 돌아보며 창교정신을 되새겼다.

#### 해탈절 불사 봉행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심인당과 해외 각 심인당은 15일 오전 10시 해탈절 불사를 일제히 봉행한다.

### 조동종

#### 부산교구 종무원 개원

총무원장 학봉스님 등 종단 간부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6월 28일 대구 대연3동 무량사에서 부산교구종무원 개원식및 지산(덕정) 종무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무량사 무량수전 봉불식도 함께 봉행됐다.

### 열반종

#### 중앙포교사 3명 임명

해곡 총무원장은 직장인과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우석, 이경훈, 김해석씨 등 3명의 거사를 종단의 중앙포교사로 임명, 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 선각종

#### 사무총장 진천스님 임명



종정 정업스님은 6월 30일 광주능인회관 녹야원에서 총무원장 정암스님, 천봉선원장 도륜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김두원회장,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간부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사무총장에 억불암 주지 진천스님〈사진 왼쪽〉, 사회복지원장에 천봉사 주지 지훈스님〈사진 오른쪽〉, 비구니선원장에 자성사 주지 명지스님, 정책실장에 조희일 가야불교대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홍룡사 주지 광현스님은 조계종 승가전문 교육원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 포천 홍룡사 통일원찰 떠올라

### 1만2천5백 지장불 봉안
### 중부전선 군인불자화 추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민통선 입구 '철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백운산 홍룡사(주지 광현)가 신라시대 창건이후 1300여년만에 통일 원찰로 거듭나고 있다.

18만평의 사찰 부지를 가진 홍룡사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 말사인 공찰로서 현재 사찰 주변의 축대와 종각, 일주문 등을 정비하고 1만2500불을 모신 대웅전과 석조지장보살상 등을 완공하고 앞으로 관음전, 나한전, 지장전, 삼성각 등을 추가로 건립해 통일 중심도량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28 서울수복이전에 노동당사와 김일성의 별장(산정호수) 등이 있던 곳으로 한국동란 와중에 8만명이 사망한 지역에 위치한 홍룡사는 금강산의 유일한 육로 입구라는 점에 착안해 1만2000 지장보살상과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천도하고자 500좌의 지장보살을 합쳐 1만2500불(현재 6500불)을 조성하게 되었다.

5군단 관할내의 전부대에서 법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현스님은 중부전선 전군인의 불자화를 발원하면서, 홍룡사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찾는 통일원찰로 가꾸고 있다.

포천=김재경 기자

# 6·25 학살양민 천도재

### 부산 영도 사암련

1950년 6.25전쟁발발과 동시에 좌익이라는 사상의 올가미에 묶여 억울하게 국군에 학살당한 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선덤골짜기(현재 '미니공원')에 매장당한 양민 수백명에 대한 천도재가 부산영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각 영도·미륵사 주지)와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 의해 추진된다.

영도불교사암연합회 소속 36개 사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찰별로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영가천도를 위한 지장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이 기도회는 7일 부산종교인평화회와 합께 확정한 보도연맹원혼 천도재일(8월9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은 최근 펴낸 자료집 '부산지역 학살의 진상'에서 "1950년 7월부터 9월사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산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범 4천8백여명과 좌익계열 보도연맹에 가입해 있던 5천여명이 집단학살돼 암매장된 사실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사기피해 연변조선족 돕자"

### 부산자비원 희망촌 건립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이 조선족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3일 부산불교자비원은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촌을 건립하고 있는 이윤식씨를 초청해 부산역 철도그릴에서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부산불교자비원, '작은 이를 생각하는 사람들',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 종교단체 대표와 회원 30여명은 앞으로 희망촌 후원회를 결성해 조선족 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건립중인 사회복지시설 연변 희망촌은 100세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세대분 공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 원명선원 삼매체험 선수련

참선 생활운동을 펼치는 한라산 원명선원(회주 대효스님)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 21일부터 2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삼매체험 선수행 참선생활운동 2000 전국 여름수련회'를 갖는다.(064)755-3322

김재경 기자

### 수덕사등 내포문화권
### 특정지역 지정개발 요구

충남도는 대통령비서실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최근 충남대에서 주최한 '대전·충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해안지역 내포(內浦)문화권(아산, 예산,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보령)을 국가차원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내포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충남도는 2002년부터 국비 등 2조여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문화유적조사 및 발굴, 관광단지 조성,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곳은 백제시대 불교가 들어온 관문으로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 불교유적이 많다.

김재경 기자

### 석가모니부처 탄생 입증
### 네팔 룸비니서 석비 발견

네팔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팔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석비 하나를 발굴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인도 고대 아쇼카 황제가 세워놓은 기둥 모양의 이 석비는 네팔 서남쪽에 위치한 룸비니에서 발견됐다.

김재경 기자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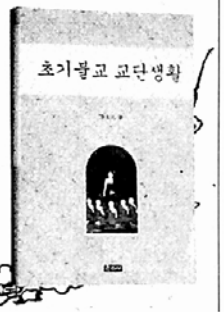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증하나인 다라니와 란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 조계종 복지재단 '사법연수생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 사찰 관심부족…포교기회 놓쳐

포교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사찰들이 무료 법률상담 등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법연수생들의 요청을 거절하는가 하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받아들인 사찰들도 활동에 필요한 준비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찰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법연수생들이 불자이거나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사회지도급 사람들인 점을 감안하면 인재양성을 강조해온 불교로서는 말뿐인 '인재양성과 포교'를 외쳐온 셈이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5월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연수원생 40명의 사회봉사연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고 이들이 봉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사찰 섭외에 나섰으나, 대부분 사찰들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 사찰의 관계자는 연수원생들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아마도 신경쓰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일부 사찰들의 속성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1차(7.3~7.14)와 2차(7.18~7.31) 두 차례에 걸쳐 20명씩 사찰과 복지관에서 실시키로 한 봉사활동은 시작 첫날부터 삐걱댔다. 사법연수생 자원봉사를 받아들인 6개 사찰 중 조계사와 관문사만 6일까지 하루 평균 7~10명의 상담자가 있었을 뿐이고, 고양 연덕암은 이틀만에 연수원생 2명을 돌려보냈다. 억지로 떠맡았으나 상담은 고사하고 말길 일도 없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또 태고사는 총무원 사회부 한쪽에 자리를 내주고 상담을 하게 했고, 봉원사의 경우는 6일 오전에야 비로소 첫 상담이 이뤄졌다. 또 총지사는 상담자가 없다는 이유로 연수원생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로 돌려 업무보조를 맡겼다. 심지어 모 사찰은 3일 당일 오전 연수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복지재단 관계자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나 사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관심과 준비부족을 시인했다. 이들은 "개인사가 노출되길 꺼리는 신도들이 상담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고급 인력들이 스스로 찾아와 불교를 배우겠다는데 이들을 활용할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사찰들의 홍보부족으로 법률상담은 극히 저조했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사법연수생들이 법률상담하는 모습.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일부 타종교 연수생과 사법연수원 법우회 '다르마'의 연수원생들은 불교를 배우고 불자들과 친분을 쌓고 싶어 불교를 택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불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찰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교가 발전하려면 사찰들의 인식이 변하고 안이한 포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탑사 관리인 교체 불교탄압"

### 태고종, 전북도에 항의공문…"철회 마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5일 전라북도가 진안군 마이산 탑사의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한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면서 이의 취소를 요구했다. 〈본지 277호 23면 기사 참조〉

태고종은 전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항의공문과 성명서를 통해 "관람료 배분에 따른 문제점만을 들어 신앙의 대상인 탑사의 관리인을 탑사주지로부터 진안군수로 교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불교문화재의 유지 보호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주지스님을 관리자로 위촉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이자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또 "그동안 왕선주지가 천지탑의 관리자로서 탑관리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진안군수가 탑사의 탑에 대해 스스로 관리자라고 나서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상징하는 불탑에 대한 훼손이며 불교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하고 "전북도와 진안군수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전종도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어 "종단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불교인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탑사의 산문폐쇄 등 강경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경숙 기자

##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 개관

### 진각종 지원…여성 청소년에 컴퓨터등 교육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19일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에 위치한 진각복지재단 부설 직업훈련센터 개관불사를 현지에서 봉행한다.

스리랑카 직업훈련센터는 진각복지재단이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의 하나로 JGO지부를 설립,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30년간 장기 무상임대를 받아 지난 3월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증축 건립한 것으로 총면적 3천8백여평에 사무실, 강의실, 자동차정비동, 전기용접동 등이 자리잡고 있다. 직업훈련센터는 1차적으로 현지 불우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제빵, 한국어 등의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점차 교육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19일 개관식에는 성초 통리원장 등 진각종 간부들이 동참하며, 21일에는 캔디에 위치한 시양종 소속 불치사에서 비로자나불 봉안불사도 함께 갖는다. 이 불상은 높이 1.2m의 금동 비로자나불로 한국의 전통미를 자랑하는 불상을 기증 받아 영구히 전시하겠다는 불치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경숙 기자

## 조계종 '봉정암 산림훼손' 조사

조계종 총무원은 봉정암 산림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부와 호법부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6일 현장으로 보냈다. 총무원은 조사단의 헬기장 건립 경위 및 산림훼손 실태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정암측은 "요사채 보수공사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헬기장을 건립하려 한 것이었다"며 "산림을 훼손한 것은 유감이다"고 사과했다. 봉정암은 헬기장을 건설하며 산림을 훼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인 6일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에 들어갔다.

봉정암의 산림훼손에 대해 불자들은 "사찰이 앞장서서 환경친화적 불사를 해 환경보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사찰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종단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사찰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통사찰인 봉정암은 헬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에 건조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운 기자

## JTS, 인도서 국제자원봉사 캠프

### 아시아·미주지역 청년불자 2백여명 참석

한국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등의 청년 불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 '제2차 국제 워크 캠프'가 JTS(이사장 법륜) 주관으로 3~12일 9박10일간 인도 보드가야 등게스와리 지역에서 열렸다.

'노등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주제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운동의 창시자인 아리야라트네 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80명을 비롯 아시아, 미주 지역의 청년 불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각 나라의 청년불자들은 JTS가 수자타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는 등게스와리 인근 지역에서 △우물가 위생시설 확보 및 청소 △집짓기 및 각종 시설 보수 공사 △망고나무 심기 △지붕 및 벽 수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JTS 이지현 간사는 "이 캠프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청년 불자와 대학생들에게 국제 봉사활동을 통한 노동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종교 복지연대 9월 창립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종교 복지관계자들이 연대한 '종교사회복지연대'(가칭)가 오는 9월 창립된다.

지현정사(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권경임(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박용철 신부(서울 구로동 성당) 정무성 교수(가톨릭대) 등 각 종교 사회복지 관계자 30명은 6월30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9월에 '종교사회복지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한편 권경임씨를 대표로 한 임시 집행부를 구성했다.

한명우 기자

## '불교성전 5천권 서울시내 호텔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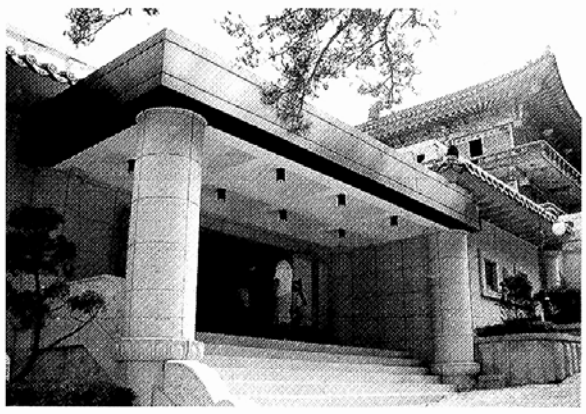
### 日불교전도협 기증

서울시내 호텔을 가면 불교경전을 볼 수 있다. 일본 불교전도협회의 기증으로 신라, 래디슨 프라자, 웨라톤워커힐 등 서울시내 20개 호텔 객실에 불경(佛經) 5천권이 비치됐다.

세계의 불교경전연구와 불교학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본 불교전도협회는 최근 서울 동방관광㈜을 통해 신라호텔과 프라자호텔에 각각 500권 등 서울 시내 20개 호텔에 모두 5천권의 〈불교성전〉을 기증했다. 지난 86년 한국관광공사에 2만권의 경전을 기증한 이래 두 번째 보내 온 것. 〈불교성전〉은 외국인 투숙객을 위해 영어, 일어로 번역된 2종이 전달됐다.

서울동방관광의 이금배 이사는 "평소 본사와 친분이 있었던 일본의 젠코지(專廣)라는 사찰의 가꾸 료에이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일본 불교전도협회의 불경 기증사업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16일 문을 여는 도선사 시민선방 무차선원 전경.

## 도선사 무차선원 개원

서울 강북지역 최대 기도도량인 도선사(주지 광복)시민선방 무차선원이 16일 정오 개원한다.

청담스님이 주석했던 곳의 이름을 따 건립된 4백평 규모의 청운당에 자리잡은 무차선원은 1960년대 초 도선사에서 조계종 종정을 지낸 청담, 성철, 서암, 서옹 스님을 비롯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이 용맹정진했던 선풍의 전통을 잇는다는 취지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월11일부터 참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매일 두차례씩 주지 광복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뉴스 & 뉴스

###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실상사와 두레생태기행 주관으로 16-17일 1박2일간 남원 실상사 및 지리산 일대에서 '생태적 시각으로 지리산 돌아보기'란 주제로 제2회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리산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02)712-5812 김재경 기자

### 국가보안법 사문화 종교선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는 각 종교단체 대표들은 4일 오전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사문화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음을 선언하고 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 염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가 7월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보성 대원사에서 열린다.

여름성지대회는 아미타여래 48대원을 독송하는 '저녁 장엄 염불', 아미타 삼존불을 영접해 법문을 듣고 수계받는 모습을 표현한 '아미타촘' 대동제, 촛불의식, 아미타불 철야정진, 설산정토사 조실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염불보살 수기식' 등으로 진행된다. 02)732-1215~7 도필선 기자

### 서초경찰서 경승실 개원

서울 서초경찰서 경승실이 오는 20일 오후 1시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혜덕 서초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서초구청장, 조삼낭 서초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하며, 관음보살 봉안 법요식과 개원대법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두식 기자

### 비새는 제석사 대웅전

원효대사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주지 적연)가 빗물이 새고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예산마련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

제석사의 성인 스님은 "몇년전부터 대웅전과 산신각의 지붕 기와가 썩어 빗물이 새고, 석가래의 흙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미타사 복장성물 봉납법회

지장도량 충북 음성 미타사(주지 명안)는 오는 10월 41m규모의 지장보살입상 점안식을 앞두고 9일 복장성물 봉납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해인사 무관스님의 관장으로 욱련존자 사리, 다라니, 금, 은, 칠보, 오곡 등 70여 가지의 복장물이 지장보살입상에 봉안됐다. 도필선 기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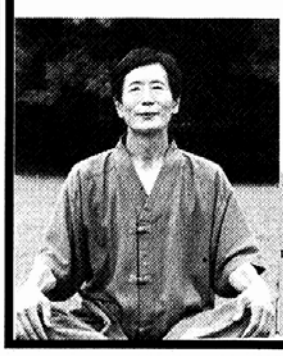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일주일 만에 精(氣心)神 원리 관통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 담 바 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여는 이뭐꼬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相 집착 벗고
전체와 더불어 담뿍퐁당 業習 벗고
현실경계 자유로이 머뭄없이 마음내는 길
· 믿어라를 깨어라로 · 마음굴을 얼굴로
· 놓아라를 받아라로 · 나뿐을 모두나로
· 의식을 여의주로 · 웬수를 元師로
· 호흡을 숨(importance)으로 · 순간을 영원으로
· 見을 觀으로 고쳐 · 공허를 충만으로



특 징
※ 언어 이전 道와 삶을 합일
※ 종교 안팎 모든 방편 용해
※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15:00(55만원)
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세라믹 납골용기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납골당 운영 준비하시는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태림 세라믹"에서는 큰스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년간 노력끝에 납골용기함을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사용하고 있는 제품) 나무·도자기·옥·대리석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수공법으로 견고성과 습기에 강하여 변질이 없이 영구 보존할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골당을 준비하시는 사찰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제품문의는 본사에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특히 사찰에 따라 특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태림 세라믹 임직원 일동
서울 연락사무실 02)877-4353
본사 031)943-3606
016)541-3606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 4리 438-2호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당림법(망출 위패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재(시령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화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삼재풀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 주부신행담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났다 ㊦




그림 · 이준석

##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것 아니니 주위사람에 베풀고 편안케하며 맡은 일 최선 다하며 살고싶다

오래 전부터 기회가 되면 하고 싶었던 사진공부를 시작했다. 이리 저리 바쁜 틈틈이 가방을 메고 훌쩍 떠나 방방곡곡을 내 카메라에 담아 보곤 한다. 올해 초에도 새천년 새해의 일출을 찍기 위해 바닷가를 여러 번 찾았다. 그 때마다 떠오르는 해의 모양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어떤 날은 떠오르는 해를 놓치고 집에 와 보니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해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하루는 아침 기도를 일찍 끝내고 바닷가로 가서 생각없이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아! 이것이 일출을 위한 준비인가!'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고 그 가운데 붉은 덩어리의 꿈틀거림이 너무 성스러웠고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어느덧 큰 붉덩어리가 불쑥 수평선 위에 올라 앉으면서 출렁이는 물결마저 잠재우는 듯했다. 이름하여 일출이라 하는가. 가슴으로 밀려드는 환희를 삼키고 셔터를 열심히 눌렀다.

그때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 놓고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그 붉은 용트림을, 그 공간적인 현상의 느낌을 살지어 사진으로도 전달할 수 없어 안타깝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던 스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일도 자기가 경험해야만 알 듯 글로써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이 글을 쓰면서도 내 미천한 수행이 전달될까 걱정이 된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된다. 할머니를 따라서 절을 찾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도 주지스님의 따스한 보살핌이 좋았던지 절마당이 우리집보다 훨씬 넓게 보였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풍기는 구수한 밥 냄새가 좋았고, 보살님이 주시는 누룽지 맛과 내 키만한 독에서 꺼내온 김치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물독을 채우는 행자의 힘든 한 숨소리도 재미있었으니, 참 어린아이다운 천진한 시선으로만 절을 대했던 것 같다.

그후 난 불교에 매료됐다. 불교공부를 한답시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여 혼난 적도 많았다. 한 때는 출가를 생각한 적도 있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지만 내 맘 속 깊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 내가 고민해왔던 것과는 다른 출가(?)를 하게 되었다. 신혼여행 중에 육조 혜능대사의 깃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남편도 그 후로 불법공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2녀 1남을 두었다. 두 딸은 이미 모두 커서 대학에 다니고 늦게 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큰딸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이지 싶다. 울산불교 조계종 사암연합회에서 불교교육원을 개원했다. 알고 있는 불자 몇 분께서 함께 공부하기를 권유했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한 공부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 몇 번의 입학 기회를 그냥 스쳐 보냈다. 사실 속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았었나 보다. 남몰래 입학을 하고 보니 벌써 6기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입학을 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다. 결석 한 번 없이 초심반 발심반 1년을 끝내고 경전반 1년까지 마치게 되었다. 출업하는 날 회색 바지에 조끼까지 입고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채 법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때 찍은 기념사진을 가끔 꺼내 보면서 입학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지금은 17기 교육생이 공부 중인데 복잡한 생활 속이지만 바쁜 걸음으로 달려와 강의를 듣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믿음은 의심을 끊어주고 지혜와 덕을 길러 주고 부처가 되는 공덕을 쌓게 하여 나로 하여금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다. 큰 믿음은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보게 되니 팔정도의 바르게 보아라(正見)를 실천하게 되므로 세상 살이에서 바로 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가 적게 됨을 깨달았다.

지난해에 교육원에서는 경전반을 새롭게 만들어 상반기에는 〈육조단경〉을, 하반기에는 〈원각경〉 공부를 하였는데 문경 김룡사 주지스님께서 1년간을 울산까지 버스를 타고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 스님은 장삼 밖으로 배어 나오는 땀냄새를 강의중에 교육생이 느낄까봐 가사 장삼 싼 보자기 속에 항상 향을 넣고 다니셨다. 향내가 은은히 흐르는 모습과 호탕한 웃음 한자락으로 스님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던져 주셨다.

이런 좋은 만남이 다른 모든 이에게도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인연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무궁무진한 만남의 연속이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배웠다. 나의 존재는 수많은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엄마가 되었다가 아내가 되고, 친구도 되고 동생도 형님도 된다. 스님 앞에선 불자가 된다.

최근 입적하신 탄성 큰스님의 말씀을 옮겨 본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귀한 인연을 가꾸며 살고, 마음이 산란하여 탐욕스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외면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셨는데 되새겨 볼 만하다. 자광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서 "입을 지키고 마음을 모아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이와같이 행하는 자 능히 도를 이루리라"라는 구절을 마음깊이 새겨 아주 좋아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와 마음을 고요함에 이르게 하여 번뇌망상 속의 잠자는 불성을 일깨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지난 주에는 발심반 강의를 해인사 스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또는 나 아닌 외부의 간섭에 의해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오르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초하루나 보름에 절에 가게 되는데 기도가 끝나면 스님께서 하시는 축원 중에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해달라는 대목이 있다. 스님께서는, 간절히 축원해 달라 함은 탐심을 적게 하라는 뜻이 있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진심을 낮추라는 것이고 수명을 길게 하려는 마음은 치심을 짧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일러 주셨다. 그리고 단순히 내 복만 빌지 말고 그 깊은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남보다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고 있다. 지나친 기대심과 시기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베풀면서 사느냐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이롭게 하느냐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주체는 바로 자신인 것이다. 연출자가 드라마를 만들고 연기자가 연기를 하듯이 나도 내가 맡은 배역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한바탕 잘 살다 갈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힌 불법을 지키고 받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머리 위에 얹어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치를 깨달아 불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반려자가 또 있겠나 싶다.

김민희(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 나한 木 500 나한



규격×높이 : 1자(30cm)

나한이란? 모든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덕을 두루 갖춘 성자를 말합니다.



나한의 공덕

① 살적(殺賊)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응공(應供)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해야 합니다.

③ 불생(不生)
나한은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마음의 적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木 나한의 특징

◆ 혼이 담긴 작품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 반가격으로 보시해 드립니다.
※ 스님의 주문에 따라 상호와 크기(규격)를 별도 제작해 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 (02) 494-4890